



지금우리

2021년도 녹원 65호 교지

P A R T

1

공정

지 금 , 우 리

“즉, 구체화된 내재적 원형은…”

마지막을 장식해 줄 강렬함이 필요해 보였다. 수현은 자신이 10분도 넘게 입술을 잘근거린다는 사실은 잊은 채, 깜빡이는 커서만을 바라보았다.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체를 꺾어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기로 했다. 충분히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을 담아낸 보고서였다. 게다가 A 기준을 훨씬 넘는 방대한 양이기도 했고, 그렇게 기말 과제를 제출한 과목명은 ‘현대사회의 이해’. 21세기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한 한 남교수가 기본 서식을 이용한 강의자료로 겨우 수업을 이끌어왔었다. 그래도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도 범위가 적으니 학생들 사이에는 인기 많은 강의에 속했다. 조금의 여유가 생긴 수현은 성적 확정일만을 기다리며 이번에도 수강신청이 나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다. 강의평가를 읽고, 선배의 조언을 구해서 가성비가 좋은 강의만을 골라낸 보람은 그의 대학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래도 이번 학기는 약간의 다이내믹함이 있었다고나 할까. 중간고사

가 끝난 초여름. 그 남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어보라며 짭작한 공지를 내려주었다. 현사회를 설명하는 책이라 뭐라나. 언제나 그랬듯이 수현은 서점에 들러 책을 찾고 그 자리에서 중요 내용만 골라 내서 글을 써버릴 생각이었다. 어느덧 지난 세 학기를 속성으로 보내고 나니 수현에게 대학 과제는 별게 아니었다. 마치 일기장을 제출해야 했던 초등학생처럼. 날씨도 속여보고, 일도 꾸며내자. 길게 쓰자. 최대한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최선을 다한 모습인 양.

‘마이클 센델…’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다. 강렬하진 않지만.

그를 기억해 내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책을 살펴보려고 종이를 펼치는 순간, 수현의

손에 성가신 피지가 만져졌고, 아주 크고, 대담한 글씨로, 그의 전작과 유명 잡지사의 평가가 간략히 적혀 있었으므로.

중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께서 잘 보이고 싶었던 수현이 들고 다녔던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

던 사람이다. 왜 한국이 정의에 그렇게 열망했는지는 모를 일지만. 당시에 수현은 나이에 맞지 않는 어려운 책을 읽느냐면서 타박도, 칭찬도 아닌 선생님의 말에 어깨가 으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윤리를 눈으로 꾸역꾸역 글자를 투영시켰던 아이였다. 수현은 그런 아이였다. 어른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잠깐 과거의 기억이 수현의 머리를 스쳐갔지만 눈앞의 책에 대한 흥미는 없었다. 작가의 이름이 익숙했을 뿐.

수현은 목차에서 중요해 보이는 소제목을 고르고, 페이지를 빠르게 확인한 뒤, 여태까지 길러온, 중심적인 내용을 잘 찾는, 눈을 가지고 내용을 훑기 시작했다.

.....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수현은 자신도 모르게 책을 사납게 앞으로 넘겼다. 마이클 센델이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고 한다.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수현의 머릿속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까지 반항심이 든 책이 있었나 싶었다. 노력해서 제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알고 보니 모두 행운아라나 뭐라나. 책값을 낸 독자에게 어려운 말로 말할 때부터 이상한 작자임을 알았어야 했다. 수현은 센델의 주장을 하나하나 비꼬고 있었지만, 이 책을 과제로 내준 교수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정확히 읽혔다. 나름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다니는 자신의 제자들이 머리를 치켜세우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 아니겠는가. 웃긴 교수다.

그러다 문득 수현은 자기가 집안에서 가장 고학력자라는 사실이 떠오르자, 가슴에서 무엇인가

어우러져 나오는 것을 또다시 느꼈다. 엘리트, 자부심, 대학, 학력, 공부, 명문. 그렇게 따지고 보니 센델의 말이 영 기분 나쁘진 않았다. 어쨌거나 수현은 사회가 인정하는 높은 곳에서 젊은 인생을 시작한 셈이니, 그에 따른 책임감... 정도는 감당하는 게 꽤 멋진 것도 같았다. 이런 게 배운 사람들의 부담이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성공하고 잘

난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지하는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무튼 불쾌한 책이었다. 수현은 그렇게 느꼈다. 수현은 힘겨운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왔다.

수현은 평범한, 단지 수능 성적이 조금은 높았던 20대였다.

서점에서 빠르게 발을 돌린 수현은 갑자기 불어닥친 상쾌한 바람이 좋았다. 분명 그 책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마 저자의 이름을 본 순간부터 수현은 자신이 그 대단하지 않은 행운아니까 기분 나쁜 책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사고를 가진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현실을 뚜렷이 안다고, 행운아가 아닌 사람들은 <공정하다는 착각>을 보며 헛된 희망을 품게 될 것이라며 또 스스로를 다독였다. 수현이 마음을 다독이는 건 일종의 스스로의 칭찬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다. 그게 수강신청인지, 자만인지는 중요치 않다.

책에서 본 목차들이 날아가기 전, 수현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감상문을 서둘러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현대의 한국 사회 대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것, 겸손.”

수업의 목적과 책의 내용을 적절히 섞었다. A의 기분이 또다시 물씬 풍겨움을 수현은 느낄 수 있었다.

이 긴긴밤의 끝에 ‘우리’가 있다

“학교 판단(사과)이 조금이라도 빨랐으면 저희 가정이 거짓말과 우격다짐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불쌍한 사람들로 비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유족이 전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이 씨의 사망 원인은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엄연한 산재였다. 짐통 더위가 마스크 안을 파고들던 6월. 이 씨는 자신이 일하던 학교의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씨가 손으로 쓸고 닦던 학교가 유족에게 사과하기까지는 37일이 걸렸다. 노조, 학교, 언론 등의 기관에서 책임을 묻는 37일 동안 논의의 중심에는 이 씨가 없었다. 모두들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기 바빴을 뿐,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건물을 대형 쓰레기봉투를 들고 오르내린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잊었다. 이는 학교가 이 씨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비추었다. 학교가 침묵으로 일관하자 동료들과 학생들이 입을 열었다.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갈고, 종일 인파에 찍힌 발자국을 지우는 등, 이 씨의 노동은 불특정 다수의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노력이었다고. 이 씨가 지켜낸 수많은 이들의 일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더운 여름날 열악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한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대를 불러온 것이다.

이와 같은 연대는 <공정하다는 착각> 속 공정한 사회의 필수조건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가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다양한 경제적 층위의 사람들이 제각기 고유한 모습대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회이다. 이때의 품위는 특정 계층의 사람만이 누리는 경제적 특권에서 우리나라는 풍족함이 아닌, 사람다운 삶을 온전히 누리는 여유를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전제에는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성취를 향한 겸손과 감사, 소속된 공동체를 향한 공감과 염치,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 오늘 나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미덕은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 간의 참된 연대를 완성하는 토대가 된다. 연대의 순간에는 나의 일로 느껴지는 남의 일이 생긴다.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행복과 기쁨에는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눈물이 눈물을 위로한다. 가령, 대한민국의 안전법은 유가족들이 만든 법이 많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 아래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법이 제정되고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까지 기약 없는 싸움이 되더라도, 그 긴긴 어둠이 끝이 분명한 터널이길 바라면서 말이다.

진정한 연대를 가로막는 두 가지 벽으로 사회적인 벽과 개인적인 벽이 있다. 우선 사회적인 벽으로 능력주의 사회의 미신(迷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공동선은 GDP로 환산가능한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기술관료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경제적 생산 능력이 곧 개인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노동 시장에서 사람은 소외되었다.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총합이 그를 나타냈다. 공동선을 위한 논의가 공허해진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GDP에 기여한 비중이 큰 이들에게 더 큰 마이크를 쥐여주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보존하는 데 구조적 요인이 큰 몫을 하는 사회에서, 가난이 세습되고 부가 특정 집단에 고착화되는 모습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배경에는 그 마이크를 쥔 이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능력주의 사회의 철학이 있었다. 능력주의 사회를 지탱하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끼기 시작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다리를 오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개개인들은 무력감과 분노에 빠졌고, 공동체는 와해되었다. 그 균열은 사다리를 오를 수 없는 이들과, 사다리를 치운 이들 사이의 틈이 되어 공동체의 연대를 가로막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벽은 타인을 향한 순수한 환대의 어려움을 떠올릴 수 있다. 사회적인 벽이 관계의 단절과 공동체 해체의 원인이 되었다면, 개인적인 벽은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주춤하게 만든다. 연대에 앞서 우리는 '공감과 이해'의 벽에 부딪힌다. 한 사람은 나와 다른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저마다 함부로 넘겨짚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영화 <별새>의 한문교사 영지와 중학생 은희가 재개발 예

정 구역의 현수막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존재를 쉽게 지우고 가볍게 잊어버리는 곳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남의 집을 왜 뺏느냐는 은희의 질문에 영지는 이렇게 답한다. "그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함부로 동정할 수 없어, 알 수 없잖아." 이때 동정할 수 없다는 말은 사회에서 우위의 자리를 선점하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다.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넘겨짚거나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영지의 말은 동정의 시선도 때로는 함부로 휘두르는 권력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사회의 한 부분으로 분명 존재한다.

참된 연대는 공동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개개인의 삶을 반추하는 기준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는 연대를 동시대의 세대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가치이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높은 차원의 시작으로 보았다. 완전한 연대를 위해 사회적, 개인적 벽은 허물어야 한다. 허물지 못하면 적어도 높게 솟은 벽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할 구멍을 뚫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벽은 어렵게 무너지는 데 반해, 쉽게 견고해지고 두꺼워진다. 건너편의 목소리는 두꺼운 벽에 막히기도 하고, 커다란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일은 바위에 계란 치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벽을 부수려는 작은 노력이 연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연대의 지향점은 완성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마음이 모인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누구든, 연

제든, 어디든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각자의 세상을 구축하는 과정이 망각과 편집의 과정일 수도 있다.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고 편향되기 마련이니까. 삶의 시기에 맞춰 필요한 것들로 동지를 채우다 보면, 나의 세계에 국한된 아주 작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세계가 채 닿지 못하는 부분이 결코 누군가의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참된 연대의 시작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대는 과정인가 결과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가 공정을 바라보며 달려온 인류 문명의 역사를 나열하고, 능력주의 사회의 공공선의 추락을 꼬집은 뒤, 마지막 장에 결론으로 연대를 제시한 까닭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연대는 매일매일의 꾸준한 노력이자, 이기적 개인들의 마음이 모인 이타적 순간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뉴스에서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식당을 누리꾼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고, 먼 지역의 누리꾼들도 식당을 방문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윤보다 따뜻한 정을 선택한 사장님에게 찬사를 보내고, 나아가 식당에 적극적으로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태 주류의 큰소리에 소외되었던 목소리가 우리 세상에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은 쉽게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에 묻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신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두

리번거려야 한다. 벽돌 틈으로 들리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을 뻗고 있는 서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단연코 모든 서점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있는 도서였다. 왜 인기가 있었을까? 책 이름에서 알다시피 “공정하다는 착각”이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끈 것 같다. 공정이 많이 무너진 요즘의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공정을 원하기에 이런 책들이 나오고 인기를 얻는 것 같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처지가 선조들보다 공정해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 한반도는 노예제가 20세기 초까지까지 존재하였다. 노예제 폐지에 있어서는 서구 근대 사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서구 근대 사상에는 기독교 사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상들 또한 노예제를 폐지하는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에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인간의 사상은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이 자행한 성차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노예제를 폐지한 위대한 사상의 근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남녀평등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 진통을 겪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샌델은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공정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공정성 또한 꼭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서구 근대의 평등 사상이 노예제 폐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근대 국가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이에 기독교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칭송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가? 기독교의 성서에 나온 여성 차별적인 문구로 많은 경우 여성은 차별 받아왔고 외면 받아왔다. 교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적인 존재로서 있어야 했다는 점과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근거 조항 때문에 많은 부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기독교가 진실된 평등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사고에 의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말해보고 싶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 능력주의의 폭정

지난 6월,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우리나라 노동 사회의 허점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소노동자 A씨는 가장 큰 여학생 기숙사 건물에서 일하면서 과로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청소 일과 관련 없는 시험을 요구받아 왔다고 한다. 청소노동자를 관리하는 안전관리팀장은 청소부를 대상으로 '관악학생생활관'의 영어 혹은 한자 명칭, 개관 연도, 대학 건물에 붙은 숫자와 명칭 등을 쓰는 시험을 보게 했다.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어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 평소에도 과한 노동 강도와 불합리한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하소연하던 59세의 A씨는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우리는 열악한 노동자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을 말한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경제적, 정치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에 따르면, '모두가 성공

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이렇게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지적, 육체적 능력이나 예술적 감각 등 '재능'과 그 재능을 만개하게 해주는 '노력'을 합친 결과물인 '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능력주의 근간을 이룬다. 능력주의는 혈통이나 부와 같이 우연적인 조건에 따른 차별은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지능, 재능, 근성, 체력, 건강, 인맥 등 수많은 요소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에서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능력주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당하다고 여기는 요소를 가지고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면 불합리한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사망한 A씨는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주의로 포장된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기숙사 건물을 영어나 한자로 쓸 줄 알아야 하거나 개관 연도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단지 노동자 계급에 대해 고위층이 능력의 횡포를 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능력이 '갑질 면허증'인 마냥 자신보다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본인들은 시험을 잘 봐서 정규직, 사무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찬 이들이, 청소노동자를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며 모멸감을 주었다. A씨가 사망하고 그의 이력이 밝혀지면서 능력주의는 더욱 물매를 맞았다. A씨는 한국경제 기자 생활 16년, 몽골 등 빈곤국 NGO 활동 15년의 경

력이 있었고, 의료 봉사와 직업 교육을 했다고 한다. 아무나 갖지 못하는 화려한 스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인재였다. 그렇다면, 과연 직업으로 능력과 노력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또 다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에 의한 부정의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직업을 능력의 정도와 비례 관계로 여기고, 능력이 적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실태가 만연하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능력주의의 뻔뻔한 거짓말에 오랫동안 물들어 온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노력"만으로 모든 결과를 판단한다면, 일정 수준의 성취, 학력, 혹은 지적 수준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게으르다'란 평가로 이어지기 쉽다. 능력주의에 따른 승자가 갖게 되는 오만한 태도는 민주주의를 논하기에 앞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 이는 앞으로 제 2의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의 허점에 빠져 똑같은 비극을 낳지 않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울대 청소부에게서 알 수 있듯이, 직업이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역사적으로 깊게 뿌리박힌 능력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타파할 수 없는 사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벌을, 그리고 부를 잣대로 타인을

평가내리곤 하는 습성이 알게 모르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일,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을 인지하고, 직업=능력=개인의 가치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사회 구성원 각각은 모두 필수불가결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지님을 인지한다면 능력주의의 폐단을 점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진

성과사회 쳇바퀴의 동력 SNS, 그리고 그 가운데 제시되는 현대인들의 연대 가능성

현대인들은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모두가 인정받을 수는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성의 폭력으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내리는 이 사회를 우리는 ‘성과사회’라고 부른다. 이러한 성과사회에 대해, 마이클 센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은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능력주의의 광채를 두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그 속도에 맞추어 더욱 스스로를 착취한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하루하루를 살며 삶에서 압박감과 회의감을 느낀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이 이 지루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가혹한 채찍을 휘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에는 개개인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글은 SNS를 통한 개인의 정체화 그리고 그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이 개인 착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SNS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진열장에 놓인 물체로 전락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때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맡기고 오로지 그에 의존하는 ‘객체화’가 발생한다. 특히, 재력, 직업, 외모 등이 하나의 능력으로 인지되는 성과사회에서 SNS 유저들은 팔로어(follower) 수, 좋아요 수 혹은 정보를 공유하는 친구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를 정체화한다. 이는 팔로어, 좋아요 그리고 댓글 수와 같은 소셜 미디어 속 장치들이 이용자들의 인기를 표면적으로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다른 이들에 의해 공식화된 지위는 유저들에게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며, 유저들로 하여금 SNS 공간을 끊임없이 꾸미도록 만든다. 즉,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뒤따르는 가공된 자신감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착취라는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SNS에서 허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SNS 리플리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한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거듭되는 실패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스스로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 규정하며, 비교적 조작이 쉬운 SNS를 통해 타인을 조종, 통제하며 우월감을 느끼고자 한다. 타인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경쟁 문화가 SNS로 번져, SNS 공간에서 경쟁적으로 “내가 더 잘 살고 있다”를 뽐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 2015년에 미국 명문대 하버드와 스탠퍼드에 동시에 합격해, 두 학교를 2년간 다니며 최종적으로 졸업 때까지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받았다는 한 한인 학생의 SNS 게시물이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다. 이 소식은

언론에까지 기사화 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결국 모두 학생의 상상으로부터 비롯된 거짓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 세대’로 대변되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열등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젊은 청년들이 SNS에서 ‘가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어 스스로를 자위하려는 현상으로 분석한다. 즉, 체면, 지위를 중시하는 성과사회 문화가 SNS를 통한 경쟁적 사생활 노출과 결합되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SNS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에게 자유를 누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유 속에서도 자신을 착취하는 ‘강제하는 자유’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SNS상임을 증명한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성과사회 가운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바쁜 삶을 영위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 본인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능력주의의 추구는 결국 개인의 오만과 개인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태도를 가지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SNS라는 공간은 개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도, 남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오늘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과연 진정한 연대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는 할 수 있을까?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로 스스로를 착취하는 현대인들을 보면, 진정한 인간 대 인간간의 유대는 점점 그 색을 잃어갈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마이클 센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의 결론을 통해 현대사회

속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개인이 공동선에 기여할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며, 이로부터 동료 시민들의 존경을 얻음으로써 연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개인’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 같은 목적을 공유한 ‘집단’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장려하고 도출해야 한다. 각개전투로 개개인의 목적이 난무하여 성과를 내려는 사회가 아닌, 같은 성과라는 단어라도,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는 목적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공의하는지에 따라 진정한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대인들이 애써 숨기고 싶어하는 개개인의 ‘취약함’은 오히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대를 돕는 중요한 징검다리로 기능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본인의 실패와 약점은 철저히 숨기고 무시하는 반면, 작은 성공과 강점은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행복하다고 증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며,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그저 삶 그 자체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불행하고 어두운 개개인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이를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연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구준생들의 애환을 담은 김훈의 단편소설 〈영자〉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모두 다 배고프지만 각각 다 다른 배고픔 이었다.” 이 구절은 노량진이라는 성과사회의 한 축소판에서 각자 개개인의 배고픔을 안고 혼자 외롭게 달리고 있는 고시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모두 ‘배고픔’이라는 공통된 취약함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모든 현대인들은 궁극적으로 같은 아픔과 고민을 공유한다. 이를 숨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는 용기가 발휘될 때 비로소, 개개인의 취약함은 진실된 연대를 이뤄나갈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주의란 능력을 준거로 하여 합격, 승진, 보수 등의 자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다 자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는다. 사실 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는 운, 사회적 배경, 재산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고 평가된' 자신을 탓하며 우울의 수렁으로 빠지고 사회는 그들을 매몰차게 몰아낸다.

교육은 능력주의 사회의 핵심이다. 교육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능력주의 사회가 가진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활동 제도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봉사활동을 했다. 그 활동의 시작은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필수였고 나처럼 학종을 준비하던 친구가 제

안을 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활동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맡았던 멘티 수연이(가명)는 멘토링 첫날부터 입을 열지 않았다. 적잖이 당황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멘토’로서 책임감을 느꼈던 나는 수연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무작정 나혼자 말을 하면서 활동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다른 팀들이 교실에서 정해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슬래잡기를 한 적도 있었다. 나중에는 수연이도 진심을 알아주고 나에게 다가왔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수연이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외국인이었던 어머니와 소통이 잘 안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 지금보다 더 미성숙했던 나는 그것을 몰랐고 그저 ‘봉사자’의 책임을 다했지만, 그 노력은 어느새 수연이에 대한 공감으로 변해갔다. 한 아이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것을 직접 목도한 경험은 ‘인간 존중’이라는 내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누군가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허울 뿐이라고,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과 수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분명히 의미가 존재하며, 이는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도덕성’과도 연관이 있다. 도덕적인 개인은 현재에 감사하고 성찰하는 인간이다. 그리고 내가 얻은 행운을 베풀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한다. 더불어 실패한 사람들은 때론 불행과 행운의 얼굴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불행이 있기에 행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시련을 이겨내면 언젠가는 행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공동체를 비롯해 나를 둘러싸

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며 삶을 긍정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 사회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도덕성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활동이다. 다만 입시 경쟁에 지쳐있는 학생들이 의미를 음미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봉사활동의 허점이며 나도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교육의 보조가 필요하다. 봉사활동에서 도덕적인,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면 참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즉, 기계적인 봉사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진심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허울 뿐이 아닌, 알맹이가 짙찬 봉사활동이 뒷받침 된다면 능력주의 사회가 아닌 다양한 인간 군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왜 조건의 평등이어야 하는가

어렸을 때 모두들 롤모델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은 모두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하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성공’, 즉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이상적으로 꿈꿔왔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좌절하고 그 탓을 본인에게 돌리며 무력감을 느낀다.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말하는 능력주의의 한계점은 꼭대기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그 성공의 대가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자업자득이라 생각하여 오만한 승리자와 자격 없는 실패자를 만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주의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들은 보통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들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우선 결과의 평등은 이뤄내기가 불가능할뿐더러 본인

의 노력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아예 반대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기회의 평등이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끔 하여 본인의 노력만으로 상승을 이루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는 실현 불가능함을 차치하더라도 공정한 사회적 상승에 집중하기에 능력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나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더욱 자만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본인들의 ‘성공’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오만해질 것이다. 또한 ‘실패’한 자들은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며 자괴감에 빠질 것이며 이들의 간극이 계속 벌어져 사회적 연대나 합의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은 또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이 아닌 조건의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조건의 평등은 막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연대와 시민의식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연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성별, 인종, 부의 정도, 나이 등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계층이 생기고 그 계층 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계층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수록 공적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합의할 시간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한다. 본인과 다른 의견의 사람들은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를 계속하여 비난하는 사회가 형성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계속하여 멀어지고 결국은 사회가 분리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생각해 보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흔하지 않다. 카페, 영화관 등 앉아서 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려면 모두 값을 지불해야 하고 연령, 나이, 부의 정도에 따라 이용하는 공간이 달라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만나는 것조차 힘들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이나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이 많이 생겨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인생에 필연이 아닌 우연이 많이 작용함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결과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부모님 밑에서 우연한 유전자 조합으로 태어나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 사회, 제도를 무엇 하나 선택할 수 없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이 오롯이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본인이 얼마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를 알고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는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처럼 모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의 중요도는 누구도 함부로 따질 수 없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는 직업별로, 소득별로 분명한 벽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그 벽이 더욱 두터워져 서로 간의 유의미한 대화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서로를 배척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사회의 분열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조건의 평등을 통해 모두가 본인의 위치에서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2018년 내가 재수할 당시, 논술 수업에서 자유주의를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아니며, 능력주의,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 능력에 맞는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삼성의 최고경영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지셨다. 선생님의 말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나라는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언제나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앞서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대기업에 총수자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내가 대학생이 된 뒤,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와 공정성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기회가 많이 생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놓여있다. 하지만 일일이 찾아보면 우리는 다 다른 출발선상에 놓여있다.

이렇게 다른 출발선상에 놓여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현상들을 ‘유리천장’, ‘기울어진 운동장’ 등등 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사회의 불공평 제도를 지적하는 단어들이다. 그렇다면, 불공평한 제도들을 완화하기 위해 수정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현상들을 좋아할까?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불공평한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불공평한 사회를 완화하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싫어한다. 나 역시도 고등학교 때 입시를 돌아보면, 이러한 제도들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 같다. 지방에 사는 친구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선발 제도에 인강도 있고 좋은 콘텐츠들도 많은데 왜 단순히 지방에 산다고 그 친구들이 대학 입시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되어야 하는거지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했었다. 대학에 입학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니, 내가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불공평한게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것 외적인 요소에서도 불공평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면 모두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이 있고 이와 정반대로 동네에 학원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공부해야 하는 친구도 있다. 나는 단편적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에 분노했었던 것이다.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받고 있는 암묵적 유리 천장

과 기울어진 운동장에는 분노하면서도, 자기보다 출발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봐주지 않는다. 물론 출발선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모두 옳은, 완벽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요새 사회적 트렌드를 보면, 단편적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기득권층의 횡포에 자신의 능력이 좌절되는 상황에서는 화를 내고 그러한 현상을 비판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사회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 비난하고 각 계층들을 혐오하는 사회가 온 것 같다.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불공평하고 생각할 것이다. 동시에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불공평의 연속이고 이러한 사회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수학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사회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자신의 출발선 뒤에 있는 사람과 연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뚫으려는 사회적, 개인적 노력도 매우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기업가와 같은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적 책임, 기업 윤리 등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보다 약자에게 함부로 불이익을 가하는 일을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송한나

능력주의의 근본적 해체는 가능한가? -체제 내에서의 체제 극복의 어려움

공정과 정의, 능력과 운을 둘러싼 갈등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의 능력주의의 필요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 인정을 분배하는 체계이다. 혈통으로 세습된 귀족, 양반중심의 봉건사회 신분제를 벗어난 능력주의는 그야말로 혁신이었다. 누구나 능력으로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의 마인드는 사회적 이동가능성을 상징하며 능력주의의 대표 슬로건으로 자리매김했다. 형식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능력주의는 개인의 이기심이 경쟁을 통해 경제적 진보를 이룬다는 아담 스미스의 논리와 부합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펼친다. 이는 내 노력으로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자기착취가 존재한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에 사회 시스템이 아닌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하게 되어 끝없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한다.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사회가 도래하면서 성과주체가 된 개

인들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게 된다. 착취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결국 본인이다. 사회구조에 의해 강제된 자유는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과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애쓰다 지쳐버리고 심지어는 낙오되고 만다. 팔목할 만한 성과를 위해, 더 잘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역설적으로 피로한 사회를 만든다.

능력주의가 문제시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의 이분법적 분리보다 운과 실력의 모호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성공에 있어서 능력 이외에도 운의 요소가 강하게 개입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교만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직업으로서의 일, 일에서의 성공적 결과와 그에 따른 보수는 노력과 운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치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급여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성과실적에는 나 자신의 노력 외에도 운, 동료들 포함한 사내 환경 등의 영향이 있는데, 이들 간의 비중을 정확히 매기기 어렵다는 점이 능력주의를 외면하게 만든다.

그러나, 능력주의의 본질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운이 따르지 않아 실패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능력과 운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불운한 사람의 불운이 운이 좋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며, 따라서 희생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운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운과 노력의 산물로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만큼은 그만큼의 보상을 주는 것이 마땅

하다. 비엘리트계층이 엘리트계층에 갖는 자격지심은 당연하듯 여기면서 엘리트계층이 이룬 성과를 전부 운으로 간주해 끝없이 의심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분위기도 부당하다.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높은 능력에 높은 보상이나 혜택을 지불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자원의 투입과 이를 수행하는 노력이 많다면, 이에 대한 비례 보상이 최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방식이 된다. 반대로 높은 능력을 요하는 중요한 역할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노동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창출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능력과 보상의 비례적 상관관계는 자본주의를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자본주의와 능력주의가 결을 같이 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능력주의가 완전히 제거된 사회는 어떻게? 마이클 샌델이 제안한 ‘유능력자 제비뽑기’ 방법은 완전히 공정한가? 그렇지도 않다. 시험과 내신 성적에 따라 일차적으로 지원자를 분류하고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이 방식은 능력을 1차적인 기준과 최소한의 조건으로만 간주하고 그 비중을 극대화하지 말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능력주의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한다. 사회가 규정한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결국 평가의 잣대를 들이밀고 그들의 노력을 서열화하여 능력주의를 답습하기 때문이다. 운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절대적으로 여기면 도전하고 평가받는 기회자체를 부정당하게 된다. 어차피 운이 결정하는 운명, 열심히 노력할 의지도, 능력을 키울 이유도 없어진다. 최악의 경우 아무도 노력

하지 않는 사회로 정제, 혹은 도태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능력주의를 완전히 해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능력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능력주의와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궁합이 잘 맞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찾아주는 시스템인 시장경제는 능력이 곧 자본, 소득 분배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능력주의를 대체할 만한 뾰족한 방법도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미 능력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깊게 몰든 상황에서 이를 온전히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능력주의를 완전히 철폐하기보다는 이를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개인의 능력 차이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운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조건과 기회의 평등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개인이 온전한 '인분'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인사관리를 통해 보수 이외의 보상체계를 다양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에서는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실패를 겪거나 좌절한 이들을 위한 이른바 '패자부활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다. 꾸준한 논의를 통해 파편화된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기적인 연대와 결속의 힘을 믿어봐야 할 때이다.

손채린

능력주의 사회와 유연성

고등학교 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을 들은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을 한 이름이 있다. 바로 롤스이다. 존 롤스는 미국의 철학자로, 그는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상가였다. 롤스의 철학이 나오는 부분은 늘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늘 수험생의 미움을 샀지만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다. 롤스의 철학을 배우면서 그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입장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그가 만들어낸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이 나의 흥미를 끌었다. 원초적 입장 이론을 적용한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롤스는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도 공정하다고 여기는 순수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익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평등을 지지하였는데, 이에 관해서 유연성에 따른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유연성에는 타고난 재능과 가정 배경을 포함한다. 그는 유연성 그 자체로는 정의로운 것도, 부정의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유연성의 문제를 그 사회가 어떻게 다루는

지에 따라 정의와 부정의가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해낸 원초적 입장 이론이 바로 이 우연성을 제거한 것이다. 이는 사고 실험으로 순수가상적 상황이다. 롤스가 이 원칙을 가정한 이유는 공정한 조건이 조성된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원초적 입장 이론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합리적이며 이기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상호 무관심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없고 수요와 공급 등과 같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일반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무지의 베일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했다. 무지의 베일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베일 뒤의 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층과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가치관도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자신의 특정 조건이 유리할만한 원칙을 구상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계약이 체결된다고 생각했다.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다 보니 자연스레 롤스의 원초적 입장 이론이 떠올랐다. 마이클 샌델이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우연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롤스의 주장처럼 우연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연성을 다루는 사회의 모습이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 우연성으로부터 오는 혜택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여긴다. 이 사회에서는 우연성의 혜택을 받아 성공한 이들은 유능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받들고 칭송하는 한편, 우연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의 실패를 그들이 게으르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규정

짓고 매도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치인 자녀의 군 면제와 부정 입학, 채용 비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우연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자녀라는 우연성 하나로, 혹은 성별을 이유로 혜택을 받는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리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쩌다 보니 얻게 된 우연성 하나로 능력의 유무가 결정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이 적용된 세상은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원초적 입장을 통해서 롤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성의 문제에 관한 사회의 반응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서 우연성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뻔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당연하고 뻔한 주장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재의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서 샌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가진 몫이 운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보다 겸손해지게 된다. ... 그러나 완벽한 능력주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제거한다. 또한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받아들이는 능력도 경감시킨다. 우리의 재능과 행운이 우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연대감을 약화시킨다. 그리하여 능력은 일종의 폭정 혹은 부정의한 통치를 조장하게 된다.’¹⁾

1)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53p

그는 우연성에 대한 겸손함을 지켜야함을 강조한다. 누구든지 우연성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일 수 있다. 즉, 당신 또한 우연성의 수혜자일 수 있다. 미래 사회를 일궈 나가고 지탱할 우리는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연성을 배제한 사회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연성을 당연시하지 않고 능력주의와 우연성에 대한 착각과 자만을 버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배숙경

대학입시와 능력주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으며 능력주의, 공정성 그리고 대학입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에서 저자는 미국사회에 만연해있는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능력주의는 사회적 성공을 오직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한 성과로 보며 승자와 패자를 구분 짓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자에겐 오만함을, 패자에겐 자책감을 심어주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기인할 수 있고, 대학입시제도가 공정하게 개인의 노력만을 평가한다는 착각이 능력주의를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상당히 공감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만연해있는 능력주의와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경쟁'과 가장 치열한 경쟁 중 하나인 대학입시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느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와 공감도가 특히 20-30대 연령층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느꼈다. 이들은 입시나 채용과 같이 제한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함께 분노하고 목소리를 낸다. 이는 촛불혁명과 같이 오롯이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의 발달, '공정하다는 착각'을 겪었던 보편적 경험이 뒷받침되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공정성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치열한 입시 경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극심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패배감이 크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통령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며 대학입시는 대학입시의 단계를 직접 밟을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책에서는 사회적 상승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사회 제도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이것이 복지제도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었다. 미국인들이 상당한 빈부격차를 참아오고 있는 이유는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사실상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기반 하여 미국

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미국 내 계층 이동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이는 사회적 상승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보다 개인을 뒷받침해 주는 수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잘 마련해놓았고 결과적으로 미국보다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다른 인식이 서로 다른 복지제도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도 계층이동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대입 경쟁이 치열한 국가의 경우, 입시 결과에 따라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된다. 대입이 사회적 이동 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대입경쟁이 매우 치열한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명문대학교'에 가는 것은 안정적인 삶의 보장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대입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앞으로 삶의 안정성을 보장받았다는 일종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상징이 되곤 한다. 대입은 말 그대로 대학에 입학하는 의미를 넘어서 향후 사회적 입지, 그 사람에 대한 인식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명문대 입학이 모든 능력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능력주의, 공정성, 사회적 이동 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대중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명문대 입학’의 상징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입에서 공정성은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 최근 몇 년 간 대입에서 학생 선발 시 미국의 입시제도에서처럼 학생의 인성, 리더십, 성장 가능성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높이하고자 시도했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이른바 ‘학종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었다. 이는 결국 정량적인 평가 지표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확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다시 정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한 것인가’라는 물음은 참 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노력, 다양한 재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될 경우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험들을 부모님 또는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을 선발할 때 두 가지 평가 요소를 모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수험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입시제도의 공정함을 확보하는 중요성만큼이나 성과에 대한 개인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책에서 제시하는 결론을 통해 하게 되었다. 책의 마무리에서 저자는 능력주의가 초래한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겸손함’을 가지는 것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자신이 얻은 성과가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의 환경은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성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입시의 성과를 만들어낸 학생의 경험과 생각들이 오롯이 학생만의 노력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에 취해 오만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입시에서의 성공이 능력주의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성공과 능력에 대한 획일화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학생의 능력으로 인정되고, 공부를 잘해야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발현될 가능성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입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한 것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가 ‘명문대 입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로에 있어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동안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치며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몰아붙이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내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에게는 공부 잘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느낀다. 점수에는 등급을 매길 수 있으나, 노력에는 등급을 매길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사회가 정해놓은 순위표가 있기에 입시를 치른

학생들은 노력의 과정보다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를 마치고 홀가분함보다 아쉬움과 후회,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노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 더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다양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류지민

청년의 삶과 능력주의 - <일의 기쁨과 슬픔> 서평

능력주의란 어떠한 기회나 자본의 획득에 있어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능력주의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존재한다. 바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윗세대가 축적한 부나 명성이 아랫세대에게도 세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능력주의로 인해 기회를 얻은 이들과 아닌 이들을 비교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기도 한다. 능력이 있어도 이를 능가하는 힘을 가진 이에 의해 자신이 쌓아온 능력이 무시되는 경우도 일어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능력’으로 통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은 능력주의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능력주의 속에 패자로 여겨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또 어떠한 것을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성찰하게 한다.

주인공 ‘안나’는 동네 주민들끼리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중고 거래 앱

을 개발하는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에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수평적인 직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회사 내에는 위계 구조가 존재하고 안나는 이 위계 구조의 가장 마지막인 막내에 위치해있다. 입사도 자신보다 늦고 나이가 자신보다 두 살이나 어린 ‘케빈’이 있지만 그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해 온 천재 개발자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나이에 따른 연공 주의에 의해 서열이 결정되는 것과 달리 안나는 나이가 많음에도 회사의 막내 역할을 하며 작업이 되지 않을 때 ‘케빈’이 부리는 히스테리를 모두 감당하고 있다. 이는 안나가 배려심이 많거나 케빈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서가 아니다. 케빈이 안나보다 능력 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연공 주의를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능력주의라는 제도 아래 희생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케빈이 한숨 쉬는 것만으로도 긴장하는 안나는 능력이 뒤처지는 이들이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길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작품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안나가 일하고 있는 ‘우동마켓’의 가장 큰 고객은 판교 강남 지역에 하루에 수십 개씩 새 물건만을 올리는 엄청난 사용량의 유저 ‘거북이알’이다. ‘우동마켓’이 하루종일 거북이알이 올린 글로 도배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때 거북이알을 만나 글을 좀 줄이라고 이야기해보라는 대표의 권유에 안나는 거북이알에게 거래를 신청하고 만나게 된다. 막상 거북이알을 만나자 안나는 내심 놀라게

되는데, 거북이알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거북이알이 매일 물건을 되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북이알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은 클래식 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연 기획팀에 소속되어 있던 그녀는 회장님이 좋아하는 클래식 아티스트를 극적으로 섭외하게 된다. 하지만 회장님이 자신의 개인 SNS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회사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으로 발령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후 회의에서 모든 고객이 포인트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거북이알은 월급을 포인트로 받게 되는 일까지 겪게 된 것이다. 거북이알은 섭외가 힘든 클래식 아티스트의 공연을 성사시켰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능력주의에 따라 크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유능한 직원이지만 회장의 변심으로 인해 부당대우까지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월급으로 받은 포인트로 물건을 결제해 이를 되파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거북이알은 안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이상해져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회사원들과 사고 구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나 행동에 의문을 갖지 않는 편이 좋다고. 능력 있는 직원을 점심시간마다 중고거래에 목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회장의 말 한마디였다.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부와 권력이 있고 그것이 바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일의 기쁨과 슬픔〉은 능력주의를 단순히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인가 또 능력주의라는 명목 아래 누군가가 부당한 상황을 참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권력과 부당한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능력주의를 넘어서 수 있는 공존을 위한 평가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글의 마지막 안나는 거북이알에게서 케빈이 좋아하는 레고 시리즈를 구매하여 케빈에게 건넨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호의를 건네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공존으로 향해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안나가 내민 손을 케빈이 잡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진짜 ‘능력’은 공존을 위한 배려의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별

초능력주의 세계에 반항하다 - 아직은 신이 아니야/민트의 세계

능력있는 자가 승리한다. 역사를 통틀어 능력은 노력의 결과이자 성공을 향한 통로로 여겨졌다. 물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노력이 반드시 사회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회의감을 갖는 입장도, 능력있는 사람이 다수일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인류가 발전할 거라는 믿음은 쉽게 부정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상상조차 막연한 기술이 보편화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도래한 시대라면 어떨까? 초능력자들로만 구성된 사회는 매끄러운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신, 꽤 정교한 도구로 그 틈을 잠깐 엿볼 수는 있다. 바로 SF 소설이라는 도구다.

『아직은 신이 아니야』(2013)와 『민트의 세계』(2018)는 같은 배경을 공유하는 두 편의 SF소설이다. 2026년, 인류에게 잠재되어 있던 초능력이 발현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정신 감응력과 염동력, 그리고 타인의 능력을 증폭하는 배터리.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보유 능력에 따른 격차가 교묘히

형성된다. 타인의 정신까지도 접근 가능한 정신 감응력자는 새로운 엘리트 계층으로 자리 잡고, 염동력자는 그들의 수족이 된다. 그리고 독자적인 능력은 발휘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에너지원인 배터리는 부품으로서의 가치만 남는다.

2026년 첫 번째 배터리가 전주에 나타나고 전 인류가 배터리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초능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미국 코믹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능력은(이제 아무도 ‘초능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단순하게 디자인된 게 아니었다. (민트의 세계, 15-16쪽)

『아직은 신이 아니야』는 초능력이 도래한 시점부터 그 이후 인류의 행보를 담은 연작 소설이다. 11개의 단편 중, 특히 ‘LK 실험 고등학교 살인 사건’과 ‘루카스 에크보리 정신 개조 캠프’는 새로운 듯 낯설지 않은 이야기다. LK 실험 고등학교는 일류 대기업 LK그룹과 과학부의 공동 프로젝트로, 정신 감응력이 우수한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특수 학교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특기생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학교는 엘리트 간의 교류만을 추구해 외판 섬에 고립되어 있다. 과학부는 오직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덮는다는 이유로 이를 조사한다. 미스터리식 구조를 따라 흥미를 자극하면서, 진실보다 이익만을 따지는 모습이 씩씩하게 느껴지는 에피소드다.

루카스 에크보리 정신 개조 캠프는 염동력자를 위한 캠프다. 실험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캠프의 목적은 염동력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염동력자 청소년들을 정신 감응력자로 ‘개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에서 염동력보다 정신 감응력을 더 우월한 능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초능력이 사교육 열풍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결과였다. 당연하게도 정신 개조 캠프는 거대한 사기 행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캠프는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고 한국의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진다.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 겹잡을 수 없는 능력 경쟁과 무너지는 사회 규범 사이에서 인류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초능력이라는 비현실적인 힘을 어느덧 모두가 익숙하게 여길 즈음, 2049년. 『민트의 세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서로 다른 단편으로 구성된 전작과 달리, 『민트의 세계』는 LK 특수 고등학교를 탈출한 청소년 초능력자 민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직은 신이 아니야』의 스핀오프인 셈이다.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은 점점 어른의 통제 바깥으로 뻗어갔다. 고소득층 엘리트들만 모집하던 LK 고등학교도 이제는 방향을 틀었다. 반대로 어떤 일을 가해도 괜찮을 청소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중국에는 초능력과 배터리에 관해 실험을 하는 장소로 변모했다. 국가와 기업은 눈에 보이는 실적과 발전에 집착하고, 거리는 사실상 무법지대였다.

인간만이 유일한 실험 대상은 아니었다. 돼지와 개를 비롯한 동물들, 인공지능, 유령으로 불리는 영혼들. 그리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

을 버리거나 외면했다. 그리고 민트가 이끄는 ‘민트 갱’은 이런 존재들과 함께 기존 체제에 반항하기 시작한다. 민트의 원동력은 옳음과 선함을 내세우는 영웅 심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민트의 이야기에 독자는 경쾌한 해방감을 느낀다. 동시에 깊은 궁금중에 빠져든다. 도입부에 등장한 신원 미상의 시체는 누구였을까? 민트와는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위 물음들에 대한 답은 직접 소설을 읽으며 알아내기를 추천한다.

초능력이라니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소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당장 2년 전만 해도 전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사적 모임의 인원 수를 법으로 규제해서까지 바이러스와 의 기나긴 전쟁을 이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소설의 내용이 마냥 허구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른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서 특정 ‘능력’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는, 현대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풍경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세계를 좌우하는 전환점은 그 시대를 아우르는 가치관이 아닐까? 아무리 신기술이 발전하고 그토록 강조하던 4차 산업혁명이 역사에 새겨져도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리란 보장은 없다. 기업이 기술을 독점할 때 노동자는 여전히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칠 것이다. 계층 간 차별 아래 누군가는 냉담하게 버려질 것이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보면 질서를 파괴하는 민트의 이야기가 왜감을 전달하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그저 언젠가 찾아올 기술 혁명

을 낙관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능력 그 자체가 아닌, 이를 다루는 인간에 초점을 두고 고민할 때라고 본다.

‘공정하다는 착각’의 작가는 현재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권력의 정당성을 비판하고 있다. 세계의 중심에서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연설이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능력주의인 현대 사회 속 중심이고 권력을 잡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유복하게 지내며 걱정 없이 살아온 이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승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였다. 자신들의 집이 부유하든 아니든 그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 자신들이 성공하는 것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공부였다고 한다. 혼자 생각하며 고민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모두에게 공부하는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니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인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공부하는 기회인 교

육에서 공정함이 실현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은 공립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립학교도 당연히 존재한다. 나는 여기에서부터 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공정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고등학교 시스템이 있다. 영국은 state school(공립고등학교), public school(사립 교육기관), Grammar school(성적 우수 학생이 가는 공립 중등학교)이 있다. State school과 Grammar school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고등학교이다. 이와 반대로, Public school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곳이다. 이튼스쿨, 해로우스쿨, Winchester college, Rugby school, Marlborough college가 이에 속한다.

공정함이 추구되어야 하는 교육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한 학기에 지불하는 학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한 학기당 학교에 지불하는 학비의 차이가 크게 난다. 즉, 해당 학교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비를 지불 가능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나왔던 이튼스쿨을 예로 들자면 한 학기 학비로 약 2500만원 상당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천재라도 이튼을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심하게 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인맥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영국 총리의 출신 학교를 찾아보면 18대 총리인 보리스 존슨 그리고 56대 총리인 데이비드 카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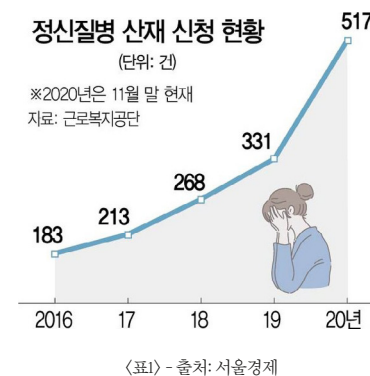
론 두 명 모두 이튼 출신이다. 즉, 같은 public school(사립 교육기관)에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같은 단과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총리가 되는 구조인 것이다. 총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출신들끼리 모임이 있다. Gentlemen's Club라는 곳이다. 결국 지위와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평범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다. 실제로도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주위 사람들 중, 사립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한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정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에서부터 불공정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에서 고등학교 입학이나 대학교 입학에서 기회의 평등을 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의 교육에서도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에서 공정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나현

근로자 존엄성의 현실과 해결방안

‘능력주의 시대는 노동자들에게 더 악랄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베스트셀러 <공정하다는 착각>의 한 구절로, 현대 사회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음을 고발하고 있다. 즉, 능력주의로 전문직 종사자는 더 번영해 가는 데에 반해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은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과 기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점점 더 노동자의 존엄성을 갉아 먹고 있다.



이러한 불행적인 상황은 노동자들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있다. <공정하다는 착각>에 제시된 미국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과 국민의 건강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45세에서 54세의 백인 연령층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이상 조짐을 ‘절망 끝의 죽음’이라고 명명했다. 왜냐하면 사망자들은 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블루칼라 종사자들로,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재 선별 과정에서 밀려나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오랜 우울 끝에 자살, 약물 중독 등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제 이러한 상황은 특수하지 않게 되었다. 정신 질병 산재 현황의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왼쪽의 <표1>를 통해 알 수 있듯 더 이상 블루칼라뿐만이 아닌 화이트칼라 근로자도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7개 중소기업을 대상을 실시한 스트레스 자각 척도를 통해, 사무직 중에서도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종사자들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우울정도가 대기업 종사자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의 스트레스 자각 평균 점수는 19.65점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점수 14.62점보다 5점 이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세상은 더욱 소수의 기업, 소수 전문직의 능력만을 높이 평가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은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일과 근로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서는 ‘논쟁’해

야 한다고 말했다. 논쟁을 통해 일 또는 근로자를 향한 잘못된 낙인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숙고해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능력주의 시대로 풀린 연대의 끈을 다시 동여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근로자들의 존중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상력을 더한 두가지 제안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제안할 방법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마이클 샌델의 방법과 독자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직무명을 존중받을 수 있는 호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전문가, 환경미화 전문가, 전화상담전문가 등으로 말이다. 간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언어의 위력을 실감해 본 사람이라면, 이 방안의 효과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리주부, 청소연구소와 같은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에서는 가사도우미 대신 청소매니저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고객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다.²⁾ 이렇게 직업 및 직무의 호칭 변화는 그 직업이 가진 사회적 편견을 벗겨내고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는 힘을 갖고 있다. 이 방법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실행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직무에 대한 인식 전환의 태동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조직 내 자부심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요즘 노동자들은 자신 스스로도 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라도 각자의 일을 응원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존

2) 청소도 전문직 노하우 생기니 도전해볼만, business watch,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07/01/0027/naver>, 접속일: 2021.08.11

엄정 회복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근로자와 가장 밀접한 영역에서 시작되는 방법으로 회복의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청소부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서비스 매스터 기업은 사업본부마다 분기에 한 번 이상 시상식 및 표창식 행사인 '자부심의 날'을 갖는다고 한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매스터 기업은 직원들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자부심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큰 행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매일 아침 직원들이 서로에게 훌륭한 존재임을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마련하여도 직원들의 존엄성을 높이는 데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방법은 많은 대기업들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훈련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자부심 훈련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사기를 얻고 명망을 회복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보다 공정한 가치 분배로 직무 간 극심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는 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전한 내용들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인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선배, 후배, 동기들과 취업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마다, 나를 대체할 많은 경쟁자들 앞에서 무력해지는 경험을 하곤 했다. 다수의 청년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에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더 이상 청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고 공정한 근로 기회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근로자 존엄성의 하락 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파악해보았다. 제

시한 방법은 '전문가 등의 단어를 붙여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 호칭으로 전환하기'와 '조직 내 자부심 훈련 의무화하기'였다. 녹원의 독자 여러분도, 본 글을 통해 현재 근로자들의 심정에 공감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참고 문헌

1.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함규진 옮김, (와이즈 베리).
2. 코로나 블루에 멎들었다...산재신청 역대 최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7D8ULHH>, 접속일: 2021.08.10.
3. 청소도 전문직 노하우 생기니 도전해볼만, business watch,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07/01/0027/naver>, 접속일: 2021.08.11.
4. 최고의 보상은 돈보다 마음 자존감 키워주면 조직에 불이 붙는다, 동아비즈니스리뷰, https://dbi.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5673/ac/a_view, 접속일: 2021.08.11.

P A R T

2

사회

지 금 , 우 리

선교 장학생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와의 원활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래의 계획에 위기가 온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의 상황 덕분에 새로운 선교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확장해서 할 수 있었고 지금의 시대의 부름에 조금 더 응답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었다. 이렇듯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낸다면 더 나은 종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온라인 예배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익숙한 분위기에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성베드로 다미아노의 입장처럼 우리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로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평신도의 참여적 예배에 더 나아가 온라인 예배를 하나의 새로운 예배로 또 인정해 달라는 시대의 요구에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힘들 것이다. 기존에 누리고 지내왔던 집에 지진이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집의 부족했던 부분과 약한 부분에 내진 설계를 더욱 튼튼히 한다면 중국에는 더 나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

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이해를 절대 거부하는 이들은 온라인 예배가 탈육체적이며 탈공동체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알지 못하고 하나를 알면 반밖에 모르고 있다. 세계는 점차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종교 공동체 말고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와 같은 이익 집단은 세상이 알려주는 하나의 사실에 발 빠르게 구조를 변화해 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원격회의의 질과 회사원들의 삶과 노동의 질을 높일지 궁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수요가 지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지만 회사와 같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만큼 육체적이고 공동체적일 수 있다. 흔히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정부의 현장 예배 제한과 규제는 종교적 박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친다.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는 꼭 기독교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 공동체도 해당이 된 부분이었으며 자영업자만큼 손해와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이를 박해라 하니 조금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정말로 이들이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면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수용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평등하다고 평가되는 역사에 있다. 종이든 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에 대한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의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었던 급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내에 존재했던 평신도와 목회자간의 권력

관계를 타파할 수 있다. 기독교는 치유공동체이자 밥상 공동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고 피라미드적인 것은 태생적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보다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 예배가 기독교의 정신을 더욱 잘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육체성 또한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장 예배에서와 같은 똑같은 육체성은 아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의 경우 육체가 없이는 결코 어떠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갈 수도 접속할 수도 없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청각 시각 그리고 예배 접속과 기록을 위한 촉각의 다양한 감각들이 여전히 사용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육체적이다. 다시금 기독교가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다시금 희생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의 기독교로 계속 아무 발전이 없다면 인간은 일상에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공간을 구조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배를 모두가 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세상만사가 모두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의 작은 기기에 매일 뉴스, 유튜브, 소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하여 전세계의 비극이 매일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극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표정의 변화 없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먹방을 찾아본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잔인성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칠레는 당시 홀로코스트 이후 전범국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느꼈으며,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한 것들은 모두 희망과 모순이라고 한다. 그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관심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기력을 찾으며 살아야 이 세상과의 고난과 제대로 한판 대결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 우직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를 시작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또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달라고” 하

나눔에게 떼를 쓰는 느낌을 주는 신앙 고백도 존재한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이 나약함은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약하다. 청년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 사무친 이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나약하다. 중년은 슬하의 자식이 자신을 떠나가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나약하다. 노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집착을 저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약하다. 그렇기에, 전지전능한 신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나약함의 모습에 신에게 투사하려는 인간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는 누군가 의지하면 그때 마음에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프리허그(free hug)를 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처럼 단순히, 포옹 하나에도 이렇게 변화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동물(e.g. therapy dog)을 통해서도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모든 고난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왜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멜 깁슨의 Passion of Christ를 보면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쥘레는 십자가는 그저 현실의 상징이며 해방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 즉, 예수의 그 큰 사랑을 드러내는데 십자가는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대결하라”라는 것의 참 뜻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마초적이며 카리스마적인

백마 탄 왕자님이 아닌 노새를 타고 온 정치범인지 알 수 있다.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가르침을 줄 때, 답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에 대한 논쟁이 항상 존재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달걀을 주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과 대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다. 즉, 우리를 주체적으로 가능성 있게 미래를 위해서 키우시기 위하여 직접 개입하시기 보다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현대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간혹 머리말이나 글의 본문에 각 신학자들이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나 혹은 어떤 경험이 그들의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나 담장 너머 훑쳐 보듯이 살펴보는 것이 현대신학 텍스트 읽는 것의 또 다른 묘미이다. 정현경 선생님의 경험은 나의 고등학교 선배님으로서 우리 세대에서도 가난한 집 아이들이 겪은 문제를 고백해 주셔서 많은 공감이 되었다. 현영학 선생님의 고백은 나도 그런 효녀가 되야 되는데..썩썩하게 만들기도 하였음과 동시에 피클(서양의 신학)이 아닌 김치(한국의 신학적 해석)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 고난을 통해 나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해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지금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어 주셨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 ‘버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즉, ‘Let it go’를 배우는 연습을 하는 것과도 같다. 신학을 공부하면 내가 왜 이기

적으로 살면 안 되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성찰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이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성찰은 내가 나의 고난에 머물기 보다는 다른 이와 고난을 함께 왜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주었다. 앞선, 여러 신학적 사조에서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 어떤 이는 기독교의 특징은 교리, 종말,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랑에 있다고 본다. 결국 교리, 종말, 복음의 기저에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이 제일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 즉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2021년 2학기 내가 마음으로 머리로 깨달은 진리라고나 할까?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에 저항하여, 소수민족들과 버마족들이 자치적으로 군부에 저항할 때 나는 선교장학생으로서 미얀마 활동가들과 한국의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간담회를 연 적이 있다. 미얀마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것 같다. 한편, 미얀마 선교가 끝날 무렵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때 나는 BBC, CNN을 처음 구독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튜브로 다른 취미 콘텐츠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하였다. 나의 관심은 오직 아프간에만 쏠려 있었다. 비행기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그 짧은 동영상은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고 그 짧은 순간이 카불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영상에서 여성이나 어린이가 뛰고 있는 모습은 보았는가? 보

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억압과 고난의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했다.

이 와중에, 우리는 극적으로 탈출하는 아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축하해주어야 할 일이지만, 아프간 난민을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유럽 국가들의 반응들이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나그네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 십자가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난민을 받으면 우리 생활의 터전이 불안정 해지고, 우리의 것을 '무상'으로 난민들에게 내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난민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몰트만이 그렇듯이 현실주의적인 사고는 지양해야 될 사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 또한 회개한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머리로는 난민을 받아주면 좋겠다는 것을 알지만 과연 난민들이 우리 집에 오면 정말 환대해 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우리는 몰트만이 지적했듯, 희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움을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어려워도 기도로서 이겨내고, 난민들과 동일한 고난 체험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해 주고 그들의 고난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위로의 손길을 먼저 내밀면 난민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사람 사는 것 다 같다. 내가 먼저 남에게 잘해야 남도 나에게 잘해준다. 우리가 먼저 난민에게 잘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축복에 있는

위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과거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서 이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고난을 함께하고 빵 한조각도 반으로 나누어 먹을 때의 그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아프간의 난민들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 다툼에 피해국들로서 제국주의를 자행했던 국가들에게 우선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난민의 경우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왔고, 더 안락하고 발전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기후난민은 이제 돌아갈 곳조차 없다. 아프간 난민의 경우,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면 다시 고향에 갈수라도 있다. 그러나 기후난민은 살던 집이 물에 잠기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다. 에브게니 엡투센코라는 시인은 '이 세상에 흥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시에서 '누구든 죽을 때 홀로 죽지 않는다 / 그가 맞은 첫눈도 그와 함께 죽는다 / 그의 첫 입맞춤, 그의 첫 싸움.... 모든 것을 그는 데리고 간다. 모두 함께' 라고 고백한다. 기후난민들은 그들의 기억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만다. 이것이 과연 인간적인 것일까?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서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설령, 남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 기계와 인간 사이의 감정 등에 있어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는 소설, <대니>. 이 소설의 주요한 핵심 쟁점은 로봇이 육아를 전담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까지는 아이를 돌보는 일은 부모와 보육교사의 당연한 몫으로 여겨졌기에, 아이돌보미 로봇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2016년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팀은 '엄마 로봇'을 개발 중이고 곧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³⁾ 육아로봇 상용화가 멀지 않은 이 시점에 육아라는 어려운 영역에 로봇을 끌어들이는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엄마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황혼 육아'라는 말이 보편화되는 만큼 노인 육아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비추어본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육아가 시간과 질에 제한이 있는 사람 대신에 대니와 같

3) 채세롬(2016), 연합뉴스, "바쁜 '워킹맘' 육아 대신하는 '엄마로봇'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312064500004>

은 로봇에게 맡겨질 것이기에 육아 로봇의 필요성과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니〉라는 소설에서 로봇 캐릭터 대니를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후에, 로봇이 육아를 맡는 소재의 자료를 더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인⁴⁾ ‘로봇 알포’가 있었다. 전투 로봇으로 제작된 ‘알포’라는 로봇이 아이를 돌보면서 겪는 일들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TV 만화이다. 소설에서 다룬 육아 로봇과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것에는 어떤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전통적인 육아를 중심에 두고 비교해 보았다. 이들은 가상의 존재이지만, 로봇이 침투하지 않는 영역이 사라져 가는 미래 사회를 그럴듯하게 예측하게 하는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니와 알포를 통해 로봇의 육아를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에 있어 장점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육아의 전부를 로봇에게 맡겨도 되는지 고민하는 것은 로봇 육아 논의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대니〉에서 우선 대니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육아에 전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이 인간과 구별된다. 각각의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아채는 능력도 있다.⁵⁾ “아이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저에게는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1분 뒤에 민우가 웅가를 할 거거든요.”(p. 150)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예측 능력은 편안한 육아에 있어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부모가 아기의 생리 현상을 파악하고, 직

4) MBC 2012 방영, ‘로봇 알포’, <http://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2713100000100000>

5) 황정은(2013), 『2014 수상소설집 양의 미래 외』, 현대문학 中 윤이형(2015), 「대니」

감적으로 아기의 요구사항을 충족해 줄 수 있다고 해도, 이처럼 정밀한 예측은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대니는 안드로이드 로봇으로서 단순히 기계적이지 않다. 소설에서 ‘나’와 무리없이 대화를 나누고 감정 교류를 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으로 육아에 전념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p. 163)라는 그의 대사는 인간처럼 성취감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목적과 자의식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아이들의 욕구가 보이니까요. ...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죠. 그런데 그걸 제 마음대로 채워줄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니니까요.”(p. 154) 자신이 보육시설 사건으로 인해 개발된, 육아를 책임지는 로봇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하는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이 말에서 알 수 있다. 오히려 인간을 제약하는 불안, 슬픔, 두려움, 공포와 같이 불완전한 감정적 요소는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세요. 불안해하지 않죠? 저에게는 감정적 불안정이 없거든요.”(p.148) 대니가 우는 민우를 안으면서 ‘나’에게 한 말이다. 한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기에, 사소하더라도 웬만한 요구사항은 곧잘 들어주는 존재로서의 대니는 일반적인 부모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전을 넣으며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는 지희의 명령에 노래 부르고 춤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한편, 애니메이션 〈로봇 알포〉는 ‘알포’라는 육아 로봇을 나름의 참단

사회의 일부로서 잘 그려내어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한다. 알포는 다니엘이라는 영아를 돌보는 로봇으로, 사람과 매우 흡사한 대니와 같은 안드로이드는 아니기에 인간과 식별 가능한 로봇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 대니처럼 감정적으로도 섬세하지 않고, 인간과 언어로 대화할 수 없다. 그리고 체력 면에서만 우월한 인간 육체를 지닌 대니와는 달리,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도 힘입어 알포는 다소 인간을 초월하는 ‘로봇스러운’ 면모도 보인다. 기계 팔의 길이를 조절하여 멀리 있는 물체를 조정하거나 주변 환경 요소를 지배할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의 부모, 즉 인간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수퍼바이징된다는 점은 대니와 알포 모두 같지만 자율성 면에서는 알포가 대니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포는 장착된 내부의 장치가 사람으로부터 명령받은 바에 따라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을 한다. 아이에게 위험성을 주는 요소에 대한 관리를 맡는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의 강도가 다니엘의 엄마에 의해 강화되는 장면이 나온다. 반면에 대니는 프로그래밍된 반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그에 따른 욕구에 의해 욕아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 그리고 ‘로봇 알포’에는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아이인 다니엘이 다른 아이랑 놀 때 다툼이 생겨서 알포가 중재해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두 아이 모두를 올리면 안되지만 다니엘을 우선해야 하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포는 딜레마를 겪는다. 이를 통해 수동적인 프로그래밍 동작만이 가능한 로봇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니와 알포를 통해 본 베이비시터 로봇은 공통적으로 요리, 놀아주

기, 안전관리 등의 기본적인 육아는 완벽하게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프로그램 명령을 주입받고, 아이의 요구를 바로바로 들어주고, 불완전성이 없기에 아이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준다는 특성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는 결핍이 없이 자라갈 것이기에 낙천적이고 원만한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감정과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알포는 물론이고, 인간과 흡사한 대니조차도 아이와 완벽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⁶⁾ 애착은 주양육자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며 생후 첫 1년 동안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인간 발달 단계 중 영아기의 아이는 인지 발달 측면에서 부모와 애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긍정적 정서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에게만 육아를 받은 아이는 서로 진심을 나누는 쌍방향 애착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자신이 돌보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아이라는 인식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지, 부모와 같이 자신의 피붙이로서 소중함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이 로봇이 육아를 전담하면 아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아이의 정서 형성에 제약을 줄 것이다.

또한 로봇에게 육아를 받은 아이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로봇에게 명령 내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들어주는 존재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식주 해결까지 모두 지치지 않는 로봇이 수행한다. 생후 초기인

6) 도현심, 이희선, 김상희, 최미경, 이사라, 김상원(2011). 「인간발달과 가족」. 교문사.

영아의 기저귀 갈아주기, 이유식 챙겨주기 등은 상관없지만, 조금씩 자라 유아기가 된 아이에게는 씻기, 옷 입기 등 자신이 스스로 하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쉽게 해결해주는 로봇 아래서 자란 아이는 결국 자율성이 결핍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니나 알포는 아이에게 무엇이 올바른고 그른 행동인지를 가르쳐주는 등 훈육을 하지 못한다. 육아 로봇과 하루 24시간 생활한다면, 아이는 자신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지 않고, 뒤처리도 로봇이 해주므로 그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부터 훗날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의범절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 거절당하는 것이나 훈계를 듣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로봇 육아는 분명 바쁘고 복잡한 현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기계가 많은 분야에서 인간에게 이롭기에, 육아로봇 또한 우리에게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여유를 제공할 미래의 모습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앞서 부작용들을 살펴봐왔듯이, 로봇이 전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인간성과 바람직한 정서 발달, 정신적 성숙 등은 훈육과 교육이 포함된 부모와의 직접적 관계 맺기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이의 미래와 사회적 문제 완화를 위해 기계의 양면성이 적절하게 고려되는 로봇 육아의 시대가 오길 기대해본다.

이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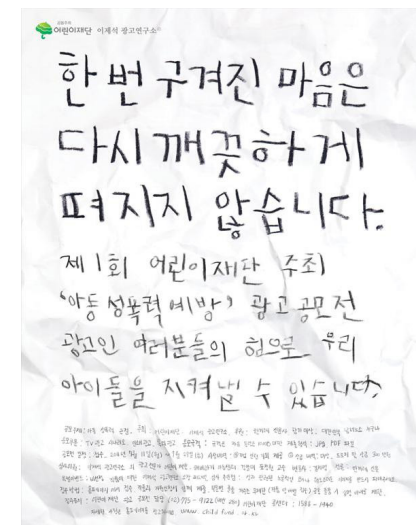
죽어야 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성폭력 공익광고의 모순점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타인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지속한다. 피해자들은 편견에 찬 시선으로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반면 가해자는 신상 보호는 물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얻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심지어 일부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이름이 아닌, 피해자의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미래의 잠재력을 기대하며 판결을 받는 가해자와 달리, 왜 피해자는 ‘피해자다움’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져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야 할까?

그 원인은 여성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 책임을 강요 받는 동시에,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는 보호 가치의 여부에 따라 진정한 피해자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당한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피해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피해자를 과연 진정한 피해자

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이는 김은실 외 8인의 저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의 1장, 권김현영의 '성폭력 폭로 이후의 새로운 문제, 피해자화를 넘어'에 나와있듯이, 사회문화적 해석을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피해자가 과거 폭행의 한 순간에 자신을 끊임없이 파묻고 가두도록 만든다. 본인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은 베인 상처에 딱지가 채 붙기도 전에 상처를 더 들춰보게 되며, 결국 이 상처는 찢어져 더 이상은 아물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증언이 부정당할 때 억울함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을 느낀다. 즉, 피해자가 더 처절해지고 고통스러워야만 비로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야 사는 피해자의 인권'이다.

이렇듯, 성폭행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기는커녕 더 차가운 현실을 맞닥뜨리며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참 모순적으로도, 성학대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공익광고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손상된 물건으로 비유하며 피해자화를 강요하는 치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음 장에 나오는 두 포스터를 한번 보자.



위 포스터는 201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고 수상작이다. 초등학생의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구겨진 종이의 중앙에는 “한번 구겨진 마음은 다시 깨끗하게 펴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공익광고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마음을 구겨진 종이에 비유하여, 피해자들은 결코 깨끗하게 펴 수 없는, 즉,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덧붙여, 어린 아이의 서툰 글씨체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다수가 어리고 힘없는 아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그렇기에, 이 공익광고는 피해자를 구겨진 종이라는 손상된 물건에 비유하여,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함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은 다시 회복될 수 없음을 의미하여 성폭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과거 속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이 파문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포스터를 한번 살펴보자. 위 공익광고는 2016년, 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다. 종이컵에는 슬픈 표정을 짓는 여성으로 보이는 그림과 함께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으며, 종이컵은 누군가에 의해 구겨진 흔적이 보인다. 컵의 뒤에는, 회사 책상으로 보이는 배경이 어둡게 깔려있다. 그리고 포스터의 중앙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폭력’, 좌측 하단에는 ‘승진을 핑계로, 업무를 핑계로 직위를 남용하지는 않으셨나요? 한번 구겨진 종이컵은 다시 펴 수 있지만 구겨진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당신의 동료를 지켜주세요.’ 라

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공익광고는 종이컵에 그려진 그림 그리고 립스틱 이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 공익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익광고 속 피해자가 여성임을 유추해내게 한다. 종이컵은 본질적으로 약한 재질로 제작되어 일회용으로 쓰이는 제품이다. 일반 컵이 아닌 종이컵을 쓴 목적 은, 근본적으로 약할 뿐더러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일회용성의 욕구 풀 이로 쓰이는 피해자들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한 종이컵 이 누군가에 의해 구겨진 것은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구겨진 종이컵이라는 손상된 물건 에 비유하여 피해자의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성학대 공익광고는 ‘손상된 물건’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당사자 의 고통과 다시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강조한다. 가해자는 감형을 해줄 수록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되어버리고, 피해자들은 영원히 잊지 못 할 기억으로 상처받는 사람들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는 공익광고 하나가 피해자화 그리고 피해자의 등급화를 더더욱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해를 하는 너는 인간성이 바닥을 치는 것 이며, 다시는 그 누구에게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 피해자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이 해 받지 못한 채 아픔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의 잘못된 시선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폭행,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인 동시에, 사회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광고들이 개선되어야 할 이유이다. 성폭력을 당한 이유는 분명하다. 피해자가 본질적으로 약하고 그럴만한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니라,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광고의 시선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그리고 방관하는 제 3자에 맞추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되지 않기’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기’ 그리고 ‘방관자가 되지 않기’가 강조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성폭행 피해자들 또한 과거의 특정 시간이 아닌, 찬란하고 빛날 미래를 고대하며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핵가족을 넘어, 지역공동체가 가족이 되는 사회를 꿈꾸며

가족의 가장 정상적인 형태로 알려진 핵가족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행복과 안정의 이미지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부터, 이상적인 이미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핵가족의 문제점들이 서서히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현대 사회, 특히 한국의 핵가족에 내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주거 공동체의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핵가족에 내재된 첫 번째 문제점은 핵가족이 정상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공고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핵가족 이외의 가족 형태는 모두 정상 범주에 벗어난다고 보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회 구성원들을 만들어낸다. 예로부터, 유교문화권의 한국은 여러 대의 직계 존비속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의 형태를 띠어왔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혼인 관계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2세대의 핵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사회는 가족의 붕괴 내지 해체현상에

관한 불안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렇다보니,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한 부모 가정, 아이 없이 살아가는 덩크족 등을 가족의 당연한 한 형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에 따라, 입양을 통한 자녀 양육은 극히 드물고, 사회는 혼외 결혼을 통한 출산에 관해 여전히 관대하지 못하며, 다문화 가정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

또한, 핵가족은 여성의 모성애를 변명 삼아 그 희생을 당연시 그리고 정당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로부터 집을 돌보는 일은 여성성의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80~90년대의 전업주부는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동시에 경제권까지 확보한 존재로 인식되며 여성이 쟁취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기에 보상받지도 못하는 노동을 핵가족 내에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한 가족에 대한 기대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노동의 문제점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교묘하게 공고해지고 있는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남편에게 종속된 채 살아가지만, 사회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상적인 면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핵가족의 문제점들로 가족의 가치관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시각이 변화함에 따라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가족 형태의 변화에 관대하지 못하고,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지

만 비혼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욱 적다. 이 같은 문제들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진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지향하는 이상인 안락함과 편안함은 핵가족 내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족 밖에서도 가족의 존재성을 구현할 수 있는 동시에, 구성원과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 유대감을 나누고 살아가는 협조적인 생활 공동체의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한 부모 가정, 동거 커플, 다문화 가정 등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가족 형태, 또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핵가족의 틀을 벗어나 비혼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교구’ 형태의 지역 사회 공동체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의 교구 개념에서 착안하여, 한 지역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게 작은 단위로 쪼개고, 여러 단위의 중심지에는 지역 사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돌봄, 교육, 휴식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집에서는, 아이들이 주말에 모여 같이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른들이 모여 탁구를 칠 수도 있다. 사정이 좋지 않아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볼 수 없는 한 부모 가정, 그리고 결혼했으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는 이 집을 활용하여 각각 돌봄 그리고 아이와의 유대감이라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정상적 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이 서로의 도움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위로와 따뜻함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희생을 요하는 결혼 대신에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1인 가구는 실제로 안전한 주택에서 살기 위해 늘 불안에 떨

며 잦은 이사 및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다. 하지만, 방문하면 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비혼 여성들 또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교구 형태의 공동체 그리고 ‘집’은 구성원들이 일부의 주거 공간만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적인 권한과 개성을 함몰시키지 않는 동시에 구성원들이 자주 모여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즉, 가족의 존재성은 핵가족의 밖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정상 가족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고 여성을 돌봄의 주체로 만드는 핵가족의 형태 너머로, 지역 구성원들이 연대하며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 형태의 공동체는 정상으로 표상되는 핵가족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서로 채워주고 나눠주면서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집’이라는 일정 주거 공간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고 또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 또 가족의 의미이다. 지역 사회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돌봄, 공유와 같은 가치들이 핵가족 내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잊고 있던 연대, 사랑과 같은 가치들도 더더욱 널리 확산될 사회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 가고 싶었던 공연이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취소표를 기다려서 양도를 받아보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인기 가수의 콘서트를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 등장했다. 바로 대리예매를 해주는 사업이었다. 이를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간다고 해서 플미티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연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콘서트 대리 예매 사업들은 대량으로 티켓을 구입하거나 혹은 미리 요청 받아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가 있다. 티켓들을 구매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도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구입한 콘서트 티켓은 보통 적게는 5만원을 붙여서 판매된다. 또한 그룹이 해체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열린 콘서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붙어 판매된다. 실제로 프로젝트 그룹으로 결성된 워너원의 경우 마지막 콘서트 원래 티켓가격보다 천 만원 넘게 더 붙어 1700만원에 판매된 사례도 나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가수와 팬들 모두의 권리를 빼앗는다. 콘서트를 구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된 티켓 가격에서, 정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가격은 누가 가져갈까? 바로 원래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던 예매 대행 사이트들과 혹은 예매 대리인들이 가져간다. 콘서트를 양도 받는 과정은 정가에 돈을 얼마 붙여서 다시사는 건데, 정가에서 비싸진 나머지의 돈들은 콘서트 예매한 대리인들이 가져간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티켓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타인에게대가를 지불하고, 더 능력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콘서트는 해당 작품을 만들기 위한 아티스트들과 해당 콘서트 담당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정가 보다 훨씬 배 더 많은 돈의 차익을 티켓 대리구매 사업가들이 가져감으로써 행사에 대한 수익 배분이 정당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종적 결과로 봤을 때 콘서트를 위해 노력을 들인 사람들이 아닌 제3자가 가져가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관객들은 그저 돈만 지불하면 끝나는 문제일까? 대리 티켓팅 사업 활성화로 인해, 팬이 아닌 사람들이 예매를 함으로써, 팬들이 제 돈 주고 콘서트를 볼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생겼다. 미리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 타겟층들은 티켓팅을 성공하지 못한 팬들이다. 티켓팅을 성공하지 못한 팬들에게 추가적으로 플미(프리미엄)를 붙여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 추가적으로 팔기 위해 미리 티켓팅이 열리는 날 티켓을 대량 구매한다. 안그래도 어려운 티켓팅에, 플미를 붙여 팔기 위해 대량 구매하는 구매자들까지 등장하다 보니 팬들은 티켓팅하기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더 플미가 붙여진 표를 찾기 시작했고 수요자가 많다

보니 대리 티켓팅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에는 이런 목소리에 대응하여 양도 적발 시 담당 회사에서 입장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강경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기획사 역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진행되지 않다가, 이번 연말부터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콘서트 사업이 다시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콘서트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플미 사업 역시 다시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티켓팅 사업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금족이와어른금족이

최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려주는 <요즘 육아 금족 같은 내 새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별하게도, 이 프로그램은 보통의 육아프로그램과 다르게 아이를 두지 않은 젊은 어른들, 즉 20대의 시청층도 보장한다. 어린 아이와 부모 사이, 가족 간의 갈등에서 본인의 어린시절을 발견하고 폭력적으로만 느껴졌던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족 같은 내 새끼>는 부모나 자녀를 가해자나 피해자로 선불리 규정하지 않는다. 부모 또한 어린 시절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또 다른 ‘금족이’, 이해 받아 마땅한 존재로 바라보고 부모의 성장과정 또한 깊이 다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걸잡을 수 없이 자리하여 치유하기 어려웠던 기억을 보듬는다. 이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이 오로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특별한 문제행동이나 부모의 양육방식이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했던 소통을 메꾸고 갈등을 해소하게 된 경우도 있다. 흥행에 힘입어 어른 ‘금족이’들을 위한 <오은영의 금족 상담소>가 새롭게 방영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외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수요 때문이다. 이 팍팍한 사회에서 위로 받고 싶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증명하는 셈이다.

나는 드라마를 잘 챙겨보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아예 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는 열심히 시청하는데, 특유의 따뜻함과 힐링,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시사점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종종 주인공들에 나를 대입하여 상상하는 편이다. 가장 일반적이고, 그래서 가장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담은 한국의 <응답하라 시리즈>나 각자의 이유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중국의 <이가인지명>, 친구 같은 모녀관계를 다룬 미국의 <길모어 걸스> 등의 드라마를 좋아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가인지명>을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가족의이름으로, <이가인지명>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드라마로 중국의 <이가인지명>을 소개하려 한다. ‘가족의 이름으로’라는 뜻을 가진 <이가인지명>은 보통의

드라마들과 약간은 다른, 특별한 가족을 결성한다. 어떻게 보면 남이고 모종의 이유로 각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족을 결성하기 때문이다. 리하이차오와 그의 딸 리젠젠네 집에 이웃으로 링허핑과 그의 아들 링샤오가 이사를 오면서, 그리고 허쯔추가 우연한 계기로 리젠젠의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린 시절 엄마를 여윈 상처를 아빠의 사랑으로 덮어보려고 노력하는 리젠젠, 아내를 일찍 보내고 사랑으로 딸 리젠젠을 키우는 리하이차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쁜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링허핑, 비록 사고였지만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엄마의 정서적 학대에도 반항하지 못하고 자신을 탓하는 링샤오, 사랑하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며 혼자 슬픔을 삭이며 살아가는 허쯔추 총 5명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세 명의 아이들과 두 명의 아빠, 흔하지 않은 가족 구성이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가족이라 여기며 단단한 유대감과 결속력으로 똘똘 뭉친다.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성도 다른 세 사람이지만, 각자 부모로부터, 편견 어린 주위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의지하며 성장해간다. 하지만 이대로 영원히 함께 행복할 것 같았던 이들도 위기를 맞이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링샤오, 허쯔추 두 오빠들이 각자의 본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가족이라 여겼던 이들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 점점 소원해진다. 9년 후 두 오빠는 다시 리젠젠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어린 시절에 정의한 가족과 진짜 피가 섞인 친가족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이가인지명〉은 핵가족화가 만연하고 깊게 뿌리내린 개인주의의 틀을 지울 수 없는 현 사회에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지붕에 사는 가족, 하나의 공동체로 본인들을 정체화 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서로 위로하고 성장하는 서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혈연으로 연결된 친가족이 아닌 비혈연으로 이뤄졌다는 설정 또한 전통적인 가족관념을 깨고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앞장선다. 혈연보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핵심 등장인물 5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부모와 자녀들이 등장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던 행동들마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해서 한 것임을 깨닫기도 했다. 어른과 부모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듯 보이는 부모들마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었다. 물론 이 과정이 자식의 방식과는 달라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어린 허쯔추를 리하이차오에게 맡기고 도망치듯 떠난 허쯔추의 엄마는 역설적이게도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 집에 들어와도 얼굴만 겨우 마주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 링샤오의 아빠는 무관심하고 무뎡뎡해 보이지만, 자식을 위해 돈을 버는게 최선이라 여겼기에 열심히 일에 매진하는 것이 본인 나름의 사랑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학생 때는 변호사가 하라고 하더니 딸의 성적이 그만큼 못 미치자 공무원

이 답이라며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치밍웨의 엄마는 헬리콥터 맘이지만 결국 자식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 편한 길을 걷게 하고자 했던 마음이 곧 사랑이었다. 각자의 배경을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얹히고 설켜 더욱 정의하기 어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었다. 모두 소통의 결여로 어긋난 관계이기도 하다. 한편, 이들과 대비되는 절대선(善)의 캐릭터도 존재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성도 다른 세 남매가 진정한 가족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과정의 중심에는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빠 리하이차오의 역할이 크다.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만큼 드라마 내에서 철저히 이상적으로 설계된 캐릭터이지만, 시청자로 하여금 부모로써 갖춰야 하는 자질, 적절한 양육방식 등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정의하는가족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어른이 된다는 것, 나아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고 어른인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흔히 말하는 호적에 같이 이름을 올려야만 가족인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본인이 가족이라고 정의하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사회는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드라마에서는 5명의 구성원 모두가 그들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살아가지만, 병원이나 학교에서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문제, 세 자녀의 다른 성, '부부(夫婦)'가 아닌 '부부(父子)'의 형태 등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앞길을 막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수없이 좌절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겨내려 노력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형태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칭할 수 있다면, 현대사회의 정형화된 가족의 의미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 듯하다. 앞으로 가족은 부모-자식 간의 혈연이나 입양, 부부간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부르는 개념을 넘어,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를 정의할 수도 있겠다. 각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충분히 고민해볼만 하다.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

지난 9월 17일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었다. 넷플릭스는 190개국에 2.1억 명의 고객을 보유한 세계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넷플릭스에서만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물론 전 세계의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은 공개된 직후부터 큰 반응을 얻으며 그 인기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하는 게임과 음악, 캐릭터들의 복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 하며 시청을 인증하고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기는 한국의 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달고나' 등을 유행시키며 한국을 알리는 것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문화를 쉽게 알릴 수 있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

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친숙하게 다뤄지는 것의 문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소재가 '데스 게임'이기 때문이다. 456명의 참가자가 456억을 상금으로 하여 살아남은 한 사람만이 상금을 독차지하는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자극적 소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에서도 19세 이상의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로 공개가 되었다. 기존에도 <배틀로얄>(2000), <헝거 게임>(2012), <신이 말하는 대로>(2014) 등 누군가를 죽여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데스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는 존재했다. 하지만 큰 폭력성을 지닌 <배틀로얄>이나 <신이 말하는 대로>는 <오징어 게임>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며 <헝거 게임>의 경우에는 데스게임이 소재이지만 결국은 부당한 독재 권력에 저항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유흥거리로 여겨지고 이들이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서로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징어 게임>의 문제는 어떠한 주제 의식을 담았는지는 불분명하게 드러나지만 폭력성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 성인들이 아닌 잔인한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들과 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최근 시초가 된 틱톡의 큰 인기로 따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짧은 동영상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해당 드라마의 잔인한 장면 등이 이러한 숏 플랫폼을 통해서 제한 없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숏 플랫폼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층과 나아가 초등

학교 저학년의 아이들까지도 폭력적인 콘텐츠에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동영상 플랫폼은 연령 제한이 이루어지는 유튜브와 달리 별다른 연령에 대한 제제가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잔인한 장면을 담은 콘텐츠의 패러디가 올라오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도 다수 공유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롭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고 본사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 제한과 올릴 수 있는 영상 콘텐츠에 제한을 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다 함께 술래의 노래에 맞춰 놀이를 하다가 술래에게 잡힌 친구들을 구해주는 의리 있는 놀이가 아닌 술래의 눈에 걸리면 총에 맞아 죽게 되는 무서운 게임이 되었고 딱지치기에서 이겼을 때 딱지를 갖는 것이 아닌 서로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호주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 측이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과 이로 인해 달라진 운동장 문화를 우려하는 공문을 학부모에게 보내는 등의 일도 있었으며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장면을 따라 딱지치기를 한 후에 이기면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일도 일어났다.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과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와 이것이 제한 없이 공유되고 재생산되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청소년들은 너무나 쉽게 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인지하고 제작에 참여하

는 이들이 불필요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성인 이용자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자극적인 성인 전용 콘텐츠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이러한 콘텐츠를 발견했을 시에 신고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동영상 플랫폼을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모두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즐기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딱지치기’가 본래의 의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과도하게 폭력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는 완벽한 파라다이스의 꿈을 꾸는가?

모두가 꿈꾸는 미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편하게 상상해보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인공지능 비서가 스케줄을 관리하며, 드론이 택배를 배달하는 사회가 그려진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아예 가상 공간으로 삶의 일부를 옮긴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력은 문학 작품과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을 통해 꾸준히 등장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부쩍 가깝고 현실성 있게 들린다. 이와 관련해 최근 빠지지 않고 들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메타버스다.

우리 옆의 또다른 세계

메타버스는 Meta(가상)와 Universe(우주)의 합성어로 현실과 같은 생환이 가능한 3차원 온라인 가상세계를 뜻한다. 단어만 놓고 보면 눈앞에 특 등장한 새로운 기술처럼 들린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오래 전부터 사람

들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 옆의 또다른 세계다. 익숙한 예시로는 ‘싸이월드’가 있다. 2000년대 인터넷 교류를 즐겼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싸이월드’를 통해 미니홈피를 만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미니홈피 주인이 자신의 취향대로 가상 공간을 꾸미면, 방문객들은 그 공간을 구경하고 방명록을 남긴다. 다양한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토리라는 유료 재화가 필요하다. 이런 특징들을 놓고 보면 그 시절의 싸이월드나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같은 토대를 공유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임을 즐겨하던 사람들에게도 메타버스는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아바타를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현실처럼 경제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는 오래 전부터 게임의 형태로 존재했다. 온라인 MMORPG 게임을 비롯해 대표적인 샌드박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나 닌텐도의 ‘동물의 숲 시리즈’ 역시 메타버스의 예시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실과의 유사성을 강조한 게임으로는 ‘세컨드 라이프’가 있다. 세컨드 라이프는 2000년대 초에 상당한 주목을 받은 미국의 온라인 게임이다. 세컨드 라이프에는 특별히 정해진 목표도 엔딩도 없다. 사람들은 현실을 옮겨 놓은 듯한 사이버 공간에서 쇼핑을 하거나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무언가를 만듦과 세컨드 라이프를 누린다. 하지만 초반의 폭발적인 관심과는 달리 오랜 인기를 끌지 못하고 게임 역사의 뒤편으로 남게 됐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으며 현실을 가상 공간에 재현하려는 시도는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보인다.

메타버스는 완벽한 파라다이스의 꿈을 꾸는가?

메타버스 유행에 긍정적인 평가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는 개념들을 결집하여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단어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새로운 단어는 힘을 갖는다. 가상 현실, 증강 현실, 온라인 게임 등은 이미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낯선 단어를 듣는 순간 이제 막 떠오르는 신기술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분위기 전환을 통해 기업은 불투명한 미래 기술에 투자하게끔 부추긴다. 이전의 가상 화폐 열풍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메타버스가 기업의 장사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 공간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사실이다. SNS가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통 수단이듯, 메타버스 플랫폼 또한 그런 잠재력을 갖췄다.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를 실현하고 시공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단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더 자유롭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가상 현실에 자신이 욕망하는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세계를 투영한다. 그리고 욕망의 근원이 현실 세계인 이상, 가상 현실 또한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다. 가상 세계에서의 분신, 아바타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아바타들은 사회적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외모로 그려진다. 동시에 현실에서 암묵적으로

단점으로 여겨지는 특성들은 지워진다. 이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게임 다수가 지적 받았던 문제이기도 하다. 메타버스의 핵심인 VR 기술이 활용되는 아이돌 산업과 버추얼 인플루언서 또한 지나치게 루키즘,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계란 무엇일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에서는 무엇이 용인되고 무엇이 배제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름답고 완벽한 세계를 꿈꿀수록, 사회가 기대하는 정상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는 사용자의 참여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이다. 또다른 가능성을 품은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어떤 공간과 문화를 형성해야 할까? 이는 기술 개발자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한정된 질문이 아니다. 새로운 공간을 향유하는 구성원 모두가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

영화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매체이다. 압축된 러닝 타임 속에서 관객은 영화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되돌아보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발견하기도 한다. 특히 범죄나 액션 등이 주요 소재로 다뤄지는 누아르 영화에서 악당이 이러한 관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당은 등장인물 간의 갈등 관계 중 주축이 되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영화에서는 깡패나 건달, 조폭 등으로 표현되는 범죄조직, 즉, 등장할 때부터 이미 '나쁜 사람'에 속하는 이들이 악당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2000년 초반을 보면 악당 캐릭터가 조폭, 깡패 등으로 획일화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며 악당 캐릭터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기득권층을 악당으로 그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검사와 같이 법조계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인물이 악당이 되거나 범죄 조직이 등장하더라도 정치의 고위관계자와 연관되어 있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2010년도부터 최근에 이르러서는 악당의 개인적인 서사가 부각되기도 하며 이전처럼 전형적인 이미지 외에도

다양한 특징을 가진 악당 캐릭터가 그려지고 있다. 이전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화 속 악당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영화 속 인물의 선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악역도 그 나름대로 범죄의 정당성이 관객에게 납득되는 입체적 인물로 설정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영화를 보며 관객의 관점에 따라 악당으로 명명되는 집단이 유일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의 캐릭터가 '악역'이 될 수도 있고 '선역'이 될 수도 있는 영화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듯 현실을 반영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악당 캐릭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우리 사회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한국 느와르 영화에서 악당에 서사가 부여되는 양상과 그로 인한 부작용은 2000년대 중반의 영화들에 잘 나타나있다. 먼저 2015년에 개봉한 <강남 1970>에서는 악역 '종대'의 상황과 환경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악당에 대한 관객들의 선입견을 깨뜨린다. 강남 개발을 위해 권력과 비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용기'와 '종대'는 권력의 하수인이 된다. 종대는 건달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전형적 악당 역할이지만, 종대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과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서사는 관객들로 하여금 종대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게 한다. 종대가 악당이 된 것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배신당하는 종대의 결말은 연민을 자아내며 그는 악당같지 않은 악당이 되었다. 또한 2014년에 개봉된 <황제를 위하여>에서도 유사한 서사를 찾을 수 있다.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승부조작에 연루되어 야구를 포기하게 된 ‘이환’은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조직 생활을 하던 중 사랑에 빠지지만 조직의 방해로 사랑했던 사람과 이루어지지 못한다. 두 영화는 모두 약자였던 주인공이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서사를 부여하고 조직에 연루되지만 조직의 권력에 의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 대중들에게 주인공들의 행동을 납득시키고 이들을 동정하게 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악당 캐릭터에 과도한 필연성 부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악당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그리며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큰 인기를 얻기도 하고 팬덤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악당 캐릭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에만 집중하게 하며 악함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이는 어떠한 ‘악’은 용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악당을 통해 직시해야 할 우리 사회의 ‘악’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를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악당 역할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층은 영화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의 악당을 대변한다. 깡패와 조직 폭력배들은 지난 시대의 악당이 되었고 대신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일반적으로 선망의 대상인 인물이 악역이 된 영화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2017년 영화 <더킹>의 악역은 부장검사로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한강식’이라는 인물이다. 대외적으로는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권력의 실세로서 ‘한강식’은 주인공 ‘태수’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고 결국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화 속에는 실제 우리 사회의 이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고위 세력의 부정의한 권력과 정의의 맞바꿈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정의를 잃은 법조인, 안하무인의 재벌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 속에 권력과 재산을 위해 끝없이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기득권층이 바로 우리 영화의 악당이자 현재 우리 사회의 악당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대통령과 대기업의 총수가 오랜 기간 부당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가 고발되며 대통령이 탄핵되고 기업의 총수는 실형을 받은 사회이다. 또한 검찰의 비리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보아 영화 속 악당은 단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속 악당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되어주고 있다는 순기능을 한다.

나아가 우리는 현재의 악당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우리 사회의 특정 구성원을 악당으로 설정하는 영화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악당 캐릭터가 단순히 영화적 장치가 아닌 실제 삶에서 누군가를 구분 짓고 혐오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영화 속 ‘조선족’이 재현되는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황해>가 조선족 살인청부업자라는 캐릭터를 앞세워 흥행에 성공하며 이를 패러디한 개그 프로그램까지 나올 정도로 ‘조선족 악당’에 대한 열기는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에 이어 <신세계>(2013), <범죄도시>(2017), <청년경찰>(2017) 등도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며 조선족은 현재

우리 영화의 가장 큰 악당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영화 속에서 조선족은 항상 절대적 악을 상징하는 악당으로 등장한다. 영화 속 조선족은 항상 붉은 조명 아래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를 도축하고 있고 청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며 연변 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한다. 그러나 조선족이 등장하는 많은 영화들은 모두 조선족을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속에서의 조선족은 만들어진 허상의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선족 악당 캐릭터는 조선족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이들의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부여하고 계속되는 악당 이미지로 편견을 공고히 하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 출신의 시민들을 배제하는 영화들이 계속해서 흥행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화의 악당이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관객이 이러한 영화 관람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영화 산업과 대중매체, 관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동인물로서 ‘적’으로 여겨졌던 과거의 악당. 최근에는 영화 속에서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이 주어지며 ‘악당’을 마냥 ‘악당’으로 대할 수 없게 하기도 하고 악당을 특정 계층으로 좁혀 표현하며 우리 사회 속 구성원들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기도 한다. 악당 캐릭터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하는지 또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악당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우리 영화 속 악당 캐릭터들을 더 올바른 모

습으로 만들어 나가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영화 속 악당 캐릭터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대중매체와 영화 산업, 그리고 관객까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화 속 악역에 서사가 부여되었을 때 매체에서 캐릭터의 ‘악함’ 자체에 집중하여 캐릭터화 하기 보다는 그러한 악당이 된 배경에 집중하고 이를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 산업 내부에서도 악당 캐릭터가 어떠한 편견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함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 속에서 악당 캐릭터를 만들 때 특정 대상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말투나 특징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객은 악당 캐릭터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통해 영화 산업 내부를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영화 <블랙팬서>의 악당 ‘킬몽거’는 발전된 기술력과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과 흑인 커뮤니티 내부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와칸다’(영화 속 가상 국가)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절대 ‘와칸다’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인종 문제에 침묵해왔던 이들에게도 질문을 던짐으로써 함께 반성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사회 문제에 대해 안일했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악당이 등장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점점 악당 없는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영국 왕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넷플릭스나 왓차를 보면 왕족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왕족 관련 영상 중 17세기나 18세기 등을 표현한 작품들도 있지만, 현재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물론 있다. 그중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 ‘더 크라운’을 보았다. 원래도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왕족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더 크라운’이라는 작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호기심이 생겼다.

‘더 크라운’은 총 4개의 시리즈인 드라마로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의 시점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현재의 모습만 알고 있는 나이기에 이 작품이 더욱 궁금하였다. 작품을 감상하며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 조지 6세의 죽음으로 평범한 젊은 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또한, 여왕의 남편인 에든버러 공의 여러 가지 사건/사고와 그녀의 동생과의 문제 등이 반복해서 일

어났다. 누군가의 아내 또는 언니로서 그들을 대하고 싶지만, 여왕이라는 지위에 묶여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여왕이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나라면 과연 여왕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보기에든 힘든 여왕을 왜 그만하지 않을까?’와 ‘21세기에 왜 아직도 왕족이 남아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의문점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전에 유튜브를 보며 ‘왕족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와 관련된 댓글을 읽은 적이 있다. 댓글은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라고 했다. 그 댓글을 읽었던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뺏겨 식민지 생활을 하였던, 일제강점기를 보냈던 우리는 결국 순종에서 조선의 왕이 끊겼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에 반해, 영국은 식민 지배를 당해본 적이 없고 나라의 기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군주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왕족이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왕실이 해외에서 영국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막대하다. 현재, 왕실이 연간 3조 원 정도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 왕실의 궁정과 로열패밀리를 보기 위해 매년 약 358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영국을 방문한다. 즉, 영국은 로열패밀리가 행사하는 소프트 파워가 강력한 나라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상징성 때문이다. 세계에서 'The Royal Family'라고 하면 생각하는 왕실은 영국의 왕실이다. 유럽은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도 왕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많은 왕실에서 '로열 패밀리'하면 떠오르는 곳은 영국이다. 즉, 사람들의 생각에서 '왕실=영국'인 것이다. 해외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에게도 엘리자베스의 상징성은 대단하다. 지폐와 동전 그리고 영국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보통 2세대, 길면 3세대가 엘리자베스 여왕만을 알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만약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한다면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일 것이다. 그들에게 더 이상 영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재위 기간으로 상승한 엘리자베스와 로열 패밀리의 브랜드의 가치도 함께 하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영향은 영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전부터 왕족과 왕실이 왜 계속 남아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왕실을 보존하기 위한 인력부터 자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왕실에 예산을 쓰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왕실에 쓰는 예산보다 그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것과 그러한 것에서 오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돈으로 열정을 살 수 있을까?

2021년 11월 가을 야구가 시작되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포스트 시즌이 막을 열어, 관객들의 흥분이 며칠째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가을 야구 진출팀은 kt, 삼성, LG, 두산, 키움 총 5팀이다. 삼성이 진출팀으로 확정되면서, 올해 2월 뉴스를 꽤 뜨겁게 달궜던 삼성 신연봉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삼성의 신연봉제는 협상을 통해 합의된 기준 연봉을 토대로 '기본형', '목표형', '도전형' 가운데 하나의 연봉제를 택하는 것이다. 기본형 연봉제는 기준 연봉을 그대로 받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 목표형 연봉제는 기준 연봉에서 10%를 낮춘 금액으로 연봉을 계약하고, 좋은 성적을 내면 10% 낮춘 금액의 몇 배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도전형 연봉제는 기준 연봉 20%를 낮춘 금액이 기본 연봉이 되고, 기준점 이상의 성적을 내면 차감한 20%의 몇 배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삼성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신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즉, 기준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선수들은 열정을 다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즉, 삼성 구단의 신연봉제는 인센티브와 선수들의 열정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정확히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선수들의 열정이 선불, 인센티브가 후불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련의 보상체계가 선수들의 열정을 끌어올리는 데에 도움이 된 것일까? 이번 KBO리그에서 삼성은 최종 성적 2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8위였던 삼성이 올해 2위까지 약진한 것으로 보아, 신연봉제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하지만, 필자는 삼성의 이러한 성과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연봉제가 불러온 효과는 언제든 다시 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돈으로는 내재적 동기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도 인센티브와 동기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진다. 책에 제시된 예시로는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금연과 체중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수혜자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했다. 이처럼 성과급은 충분히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한 체중으로 감량한 사람에게는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은가? 그동안 번번히 체중 관리와 식단관리를 실패했지만, 거액의 상금이 걸렸다면 체중 감량을 위해 어떠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수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상을 하더라도 건강했던 몸은 하루 사이에 돌아올지도 모른다. 금전적인 보상은 순간적인 태도만을 변화시켰을 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거액의 상금을 받고 난 후부터는 금전적 보상 없이는 운동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인센티브는 외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행동의 근원이 되는 생각까지는 미처 변화시키지 못한다. 즉,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성적이 중요한 야구 구단에서나 직원 및 선수들의 빠른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자면), 이들이 인센티브로 거래하는 것은 결코 직원, 선수, 구성원들의 열정이 아니다. 그들의 단발적인 행동일 뿐이다. 또한, 인센티브는 내재적인 동기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나아가 잘못된 가치부여 방식을 심어준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돈을 목적으로 운동했다면 운동의 장점은 퇴색된다. 돈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운동은 단지 재미없는 것, 어려운 것으로 치부되며 서서히 밀어내고 운동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동기를 돈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행위는 그것이 가졌던 원래의 기능과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기에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미, 인센티브 제도는 많은 기업에서 관행으로 이뤄지는데, 이에 따라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인센티브가 줄면 노조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원래의 목적과 의미조차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다음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돈 대신 ‘칭찬과 격려’로 열정을 불러내자. 앞에서 언급했던 야구도 칭찬에 매정한 스포츠다. 성과를 냈을 때는 사람들을 즐거움으로 흥분시키고 칭찬을 받지만, 조금의 실

수에 선수들은 야유를 받기도 한다.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칭찬은 인색하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늘 평가와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받고 피드백을 받는다. 진정으로 잘하지 않는 이상, 칭찬은 언제나 희귀하다. 며칠 전, 과제를 제출하고 교수님께 진심을 담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다. 과제의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과제를 위해 쏟았던 노력을 인정받는 내용의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 과목은 내가 어떻게든 A+ 받아야겠다는 열정과 각오가 마음 한 쪽에 뜨겁게 달궜다. 이처럼, 언제나 장학금, 성과급, 상금 등의 인센티브만이 열정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사람들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P A R T

3

위로

지 금 , 우 리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2020년 1월의 겨울이었다. 당시에는 확진자 한 명의 소식에도 전국이 떠들썩했다. 온 국민이 한 사람의 출신 지역, 직업, 이동 경로에 예민하게 들끓었다. 한 명이 열 명이 되고, 열 명이 백 명이 되는 동안 모두들 손가락을 들고 탓할 대상을 찾기 급급했다. 병명도, 증상도, 연고도 알 수 없는 낯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낯선 것에 면역이 없다. 정확히 일 년이 지난 2021년의 1월은 어떠했는가. 줄을 서서 사야 했던 마스크도 홈쇼핑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 방역 제품은 필수를 넘어 패션처럼 일종의 개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지역별 안전문자의 확진자 수가 이례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는 이상 숫자에 둔감해졌다. 분명 저 숫자는 사람의 머릿수일 텐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무심하게 화면을 끄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일상답지 않은 일상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팬데믹 이후 사람의 맨얼굴보다 네모난 사각형 프레임에 뜬 픽셀의 형태가 더 '사람'으로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소울〉은 반복으로 모마된 우리의 이상한 일상에 질문을 던

진다. 지구통행권으로 파란 별에 안착한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탄생과 죽음의 틈을 채우는 것은 삶의 충실한 이행이다. 그런 통념에 반하게 영화 〈소울〉의 주인공은 영화 초반에 죽음을 맞이한다. 그것도 필생의 기회를 목전에 두고 발을 헛디더 맨홀 구멍에 빠지는 바람에. 조가드너는 재즈 피아니스트의 꿈을 품고 살지만 현실은 중학교 파트타임 교사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큰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은 어느 쪽에도 완벽하게 달라붙지 못한 채, 양극 사이에 놀려 회의와 불안으로 점철된 납작한 자아를 갖기 마련이다. 커다란 꿈에 짓눌려 자신의 일상을 미워하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그러던 중, 유명 색소포니스트와 함께 공연할 오디션 기회와 교사 정규직 제안이 동시에 찾아오고,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고민하던 찰나 맨홀에 빠져 죽음 너머 영혼들의 세상으로 빠진다. 〈소울〉은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모든 영혼이 다양한 성격 교육, 지구상 직업 체험을 통해 할당된 칸을 모두 채우고, 마지막으로 '스파크'를 찾으면 지구통행권을 얻어 지구에 갈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에 가기 싫은 22번째 영혼과 지구에 가고 싶은 조의 지구통행권 프로젝트는, 관점에 따라 세계를 움직이는 송고한 규칙에 저항하는 도전일 수도, 또는 왜 파란 지구에서 '삶'을 살고 싶은 지 답하는 끝없는 토론일 수도 있다. 그 답은 지구통행권을 얻기 위한 조와 22번 영혼이 고군분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관객의 판단에 달려있다. 영화는 총 세 개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길을 비추려고 한다.

첫 번째 관계는 영화의 굵은 줄기가 되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두 인물의 관계이다. 조 가드너와 22번째 영혼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이다. 이때의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전수할 권위있는 인물이 아닌 그저 지구의 삶을 먼저 경험한 존재로 그려진다. 무료한 점화선 같던 자신의 삶에서 불꽃이 반짝이는 순간을 먼저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아직 지구의 삶을 겪어보지 못한 영혼에게 ‘스파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멘토는 하나의 선택지를 정답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저 영혼들이 이런저런 탐색을 하는 동안 베이킹은 어떠니, 소방관이 네 재능일 지도 모르겠구나 등 응원의 말을 보내는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다. 22번째 영혼은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멘토를 거쳤음에도 스파크를 찾지 못한 센터의 아픈 손가락이다. 22번째 영혼이 조 가드너의 육체에 불시착한 시점부터 영화는 본격적으로 삶에 대한 고찰을 시작한다.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삶을 경험해보지 않은 22번째 영혼의 시선에서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에는 22번째 영혼이 갑옷처럼 두른 두려움이 있었다.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간 자기 불신까지.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일어난 균열은 비단 22번째 영혼만의 것이 아니었다. 영화는 죽음 이후의 존재로 삶을 되돌아보는 조 가드너의 시선으로도 진정한 삶에 대한 가치를 조명한다. 조 가드너는 22번째 영혼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인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삶에서 멀어진 시점에서 비로소 답할 수 있는 것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누구를 위한 삶이었던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낀 나머지 하루가 지구의 생명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였음을 잊지 않았던가. 멘토와 멘티의 평면적인 관계에서 지구의 일상에 뛰어들 순간, 둘의 관계는 입체적으로 바뀐다. 가르침을 주는 동시에 가르침을 받는다. 인간의 몸이 서툰 불완전한 영혼이 아닌, 삶이 처음인 지구 초행길의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처음이니까 서툴 수 있다. 더 잘하고 싶어서 조급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영화가 주목하는 두 번째 관계는 조와 조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족공동체 속 관계이다. 조 가드너의 몸에 들어간 22번째 영혼이 조의 어머니를 마주하는 장면은 조와 어머니의 갈등이 최대로 부풀었다가 단숨에 해소되는 변곡점이다. 조와 조의 어머니가 가족공동체 속 부풀어오르는 서사를 대표하는 이유는 삶의 모든 순간에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넘겨짚기 쉬운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꼽을 수 있다. 두 인물은 일에 대한 가치관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의 어머니는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직업을 바란다. 그 배경에는 조의 아버지가 재즈 뮤지션의 삶을 택하면서 생계를 짊어져야 했던 그녀의 삶이 있었다. 강요받은 희생도, 무의미한 노력도 아니지만 조의 어머니가 조의 삶에 간접적으로 부유하는 순간마다 조와 어머니의 갈등은 끝없이 팽창한다. 바늘 하나로 터질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바늘을 꺼내지 않는다. 그때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쉬쉬하던 바늘을 외부인인 22번째 영혼이 들이밀었을 때 갈등은 뽕 터지고 만다. 조의 재즈를 향한 열정

을 자신이 겪은 불안정한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면한 어머니. 충돌하는 두 마음이 팽팽 부딪힐 때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회피하기 바빴던 조. 어머니의 작업장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아버지의 파란 양복을 아들의 몸에 맞추어 수선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관객에게 말한다. ‘가족이라서’는 모든 질문의 답이 될 수 없다. 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선택을 넘겨짚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화의 세 번째 관계는 인물의 외적 삶이 되는 현실과, 내적 자아의 관계이다. 이때 〈소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조가 재즈 피아니스트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즈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된다. 즉흥 연주와 합주. 재즈는 시시각각 변하는 곡의 흐름을 타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변주가 주를 이루는 순간의 음악이다. 그와 동시에 재즈는 다른 여러 악기와 합주를 기본 형태로 하는 음악이다. 조 가드너는 재즈와 완벽하게 반대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조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에서 오는 결핍은 조의 매일매일을 감아먹었다. 홀로 보낸 고민의 밤이 모여 괴로움이 되었다. 조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오케스트라 교실은 재즈의 자유로움과 대비되는 잿빛 콘크리트 건물로 표현된다. 정해진 악보에서 벗어나면 질서가 흐트러지는 오케스트라와 달리, 재즈는 악기로 소통하며 매년 무대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재즈의 즉흥성은 22번째 영혼이 조에게 길거리를 신나게 걷는 것, 파란 가을 하늘에 날리는 낙엽을 잡는 것, 환풍기의 바람을 쐬는 것 모두가 ‘재즈’가 될 수 있다고 던진 질문에 조가 그 역시 모두 재즈라고 답하는 말에서 영화가 전달하

고자 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삶은 재즈와 닮아 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서 즉흥 연주를 해야 하는 시간도 오고,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간도 온다. 영화는 분절된 음이 모여 연주가 되고, 연주가 모여 공연이 되는 것처럼 짧은 순간이 모여 하루를 이루고, 차곡차곡 모인 하루가 쌓여 삶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조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장면은 삶의 연속이 아닌 분절된 기억 단편을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복기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들려드렸던 피아노 연주,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아버지의 유골을 뿌린 날 모래알의 촉감, 만원 지하철 창문 너머로 드리우던 주황빛 노을. 행복을 그림으로 그리면 치열한 노력 끝에 쟁취하는 가파른 상승곡선이 아닌, 매일매일의 꾸준하고 촘촘한 점의 집합에 가까울 것이라는 영화의 메시지를 잘 드러낸다.

영화의 핵심은 ‘스파크’를 특정 짓기 전에 22번째 영혼이 지구통행권을 얻으면서 드러난다. 두 멘토와 멘티의 깨달음의 순간은 관객들에게도 울림을 준다. ‘스파크’는 한 영혼의 존재 이유나 삶의 목적을 뜻하지 않는다.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천부적인 재능 역시 아니다. 영화에 따르면 우리 모두 지구통행권을 갖고 푸른 별에 안착했다. 지구통행권의 마지막 칸인 ‘스파크’는 무엇인가? 센터 관리자 제리에 따르면 ‘스파크’는 지구에 갈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다. 22번째 영혼이 조와 함께 두려움과 의심을 깨고 지구통행권을 얻은 측면에서, ‘스파크’는 존재 증명의 완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반갑게 받아

들일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깬 망치는 무엇인가? 22번째 영혼이 지구에서 경험한 사소하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행복한 순간들이다. 하루하루가 모두 빛날 순 없어도, 우리 모두 하루 중에 가장 빛났던 순간은 있다. 그 순간으로 하루를 살고, 그런 매일이 모여 삶이 된다면. 특별한 목적이나 재능을 이루기 위해 푸른 지구에 온 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의지만으로도 우리의 존재가 충분하다면. <소울>은 답보다 질문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다. 우리도 마지막 칸을 채우고 지구통행권을 받은 그날을 떠올려 보자. 검은 우주에 쌀알처럼 박힌 별들 사이로 푸르게 빛나던 지구 위로 떨어진 그날. 삶은 그 자체로 당신의 것이 되기에 충분하다.

전예원

그림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이상(理想)을 고민하는 학문이다. 동시대의 세상이 빛은 질문을 답하고, 또다시 질문을 던진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오늘날의 쇼펜하우어까지 이상적인 삶에 대한 고민은 계절마다 겪는 고삐처럼 이어졌다. 사르트르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인간이 결단을 통해 본질을 꾸려가는 과정을 참된 삶으로 보았고, 불교는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이 벗어나야 할 8대 고통 중 하나로 삶(生)을 꼽았다. 삶에 대한 고민이 세대를 흘러 이어졌다는 뜻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때에는 구체적인 개별 맥락으로 파고들 수 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살다 보면 삶이 초라한 날이 있다. 나조차도 내가 불품없어 보이는 날. 안팎으로 실마리를 찾다가 그저 손가락을 뺨고 남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 날. 온갖 핑계로 내가 나에게 날을 세우는 날. 긍정적인 생각이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 침대로 숨어들어 가만히 숨만 쉬는 게 전부인 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없는 날. 물로도 씻기지 않는 우울을 꼭꼭 씹어먹다가 체하는 날. 나의 세계를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날. 내가 나인 게 미운 날들이 있다. 이 사유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르트르도, 고타마 싯다르타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간절히 기대했던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그 결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그 자체로 고행이다. 수차례 꺾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꺾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실망감이 있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익명의 아무개가 나의 기회를 빼앗은 사람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끝난 일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위로는 통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은가. 졸음을 참아가며 지새운 수많은 밤과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가득한 새벽을 오롯이 기억하는 것은 나이다. 나의 노력을 가장 잘 아는 건 나이므로 결과에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도 나인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종종 말라버린 웅덩이 앞을 서성이며 갈라진 밑바닥을 보고 물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만약'으로 시작하는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힌다.

세상은 차갑고, 수면으로 드러나는 건 과정이 아니라 결과다. 나의 치열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나의 몫이다. 평범하지 않기 위해 평범하지 않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긴 밤과 캄캄한 새벽에 세상이 보답하지 않을 때마다 힘이 빠지는 쪽이다. 그리고 결국 그 원망의 화살표를 어디에 돌려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자신이 품기로

한다. 뽀족한 화살표는 콧코 박혀서 마음에 굳은살을 남기고, 한껏 기대하고 새롭게 도전할 마음을 잃게 만든다. 거듭된 실망에 대상을 잃은 미움만 남는다. 대개 그 미움의 종착지는 '나'이다. 당장 채울 수 없는 결핍만 가득히 보인다. 세상이 미워지면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사라지고, 내가 미워지면 오늘을 살아갈 의욕이 사그라든다. 어제는 후회되고 오늘은 불안하며 내일은 아득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몇 백 년 전의 철학자들도 머리를 싸매고 동이 트는 새벽까지 고민한 명제들이다. 고대 그리스의 광장에 나아가 수많은 반대 의견들과 대립하고 싸워서 정착한 주장이고, 오랜 수양 끝에 다듬은 문장이다. 우리의 고민은 유별난 것이 아니다. 시기를 놓친 고민이 아니다. 뜨겁게 노력한 뒤에 남는 불순물 같은 마음은 결코 잘못된 마음이 아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일은 고귀하고, 그 시간이 내 안에 흔적을 남기는 일은 자연스럽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그 귀한 시간을 통째로 부정하더라도 나만은 그 시간을 온전하게 아껴주어야 한다. 그 역시도 나의 일부이니까. 차가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믿는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마음은 어떠한 형태로든 나의 삶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니까. 아파하고 실망해도 또다시 기대하고 힘껏 무언가를 위해 꿈틀대는 것이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힘껏 울고 속상해하자. 그 시간으로 나의 노력을 온전히 인정해주자. 그리고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고 발버둥 쳐서 세상에게 몇 번 넘어졌다고

망가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자. 잘 먹고, 잘 자면서 마음을 쓰고 돌
보아야 마땅한 존재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지 차가운 세상에게 보여주자. 다 괜찮다. 사랑해도
괜찮고 기대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고 실망스러운 결과에 화를 내도
괜찮다. 틀리지 않았다. 미완의 미덕은 무한한 가능성에 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요인에는 선명한 색감, 재치있고 흡입력 있는 대
사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한 주제 때문
이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 공장에서 일하다가 악덕 고용주에게 휘둘리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들은 ‘인생 한 방’을 노리며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다. 옆
사람이 죽어가도 여태까지 쌓인 돈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에 게임
을 계속 진행한다. 어딘가 켕 해보이는 강새벽의 눈은 현대 사회의 텅 빈
구석을 보여주는 듯 하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삭막하고
무서웠던가 하는 두려운 생각에 잠기게 된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러
게 변해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포괄하는 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닐까? 마
음 속에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애정할 줄 알았더라면 유족에게 부조
금으로 가는 돈이 아까워 게임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죽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잔인한 게임을 멈추고 다시 일

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종의 인류애로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하게 만든다. 심지어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희생에 도달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게임 참가자들의 마음 속에는 저 돈을 손에 쥐어야겠다는 황당한 이기심만 존재했을 뿐이었다.

〈원미동 사람들〉에서의 ‘원미동’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멀고도(遠) ‘아름다운(美)’ 동네라는 뜻의 원미동에서도 폭력과 소외는 분명히 존재했다. 〈원미동 시인〉에서 몽달 씨는 좋게 말하면 시를 좋아하는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청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몽달 씨가 무서운 폭력배들에게 쫓기고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력배들은 경찰서를 들먹이고 합법적 폭력을 가장하며 날뛰었다. 그들 앞에서 김 반장은 몽달 씨를 낯모르는 타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웃들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경옥이의 엄마는 7살의 어린 경옥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경옥이를 사랑하지 않고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이렇듯 폭력과 소외의 정당성 여부에는 관심도 없고 논쟁하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무서운 이면이 소설 속에 나타날 정도로 만연하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하지만 원미동에는 미(美), 즉 사랑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 경옥이는 상처 입었을 몽달 씨를 걱정하고 위로한다.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서 임 씨는 이해타산적이고 의심이 많았던 ‘그’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정직하고 정이 많았다. ‘한계령’을 들은 ‘나’는 은자를 비롯해 테이블 위 취객들을 눈물 어린 시선으로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들이

술에 취해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다는 것, 한 줄기 바람처럼 살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이해한다. 우리 사회가 적어도 원미동만큼만 됐으면 한다. 원미동은 이상적인 곳은 아니다. 원미동은 서울에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도시 소외계층들의 공간이다. 어쩔 수 없이 동네 가게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했다. 또 출퇴근 길 지하철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 같은 꺼리침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불행이 존재한다. 그러나 불행을 잠재우고 더 나은 곳, 즉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있고 서로에 대한 연민과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곳곳이 살아가는 따뜻한 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힘들고 지친 순간은 존재한다. 그러나 타인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달려가는 잔인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도시화와 산업화, 과학·통신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면대면 결합까지 어려워졌다. 어쩌면 인간성이 결핍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자 사회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멀다고’ 그것을 떨쳐내지 않자 〈오징어 게임〉 속 악마들은 탄생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헬렌 켈러가 남긴 명언처럼 무관심, 소외, 무력감은 〈오징어 게임〉의 참여자들이 인간을 애정했다면 그 안에서 피어났을 사랑, 혹은 개인이 타인을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려는 노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 원미동 사람들처럼 말이다.

이가인 쓸모없는 일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우리는 정답이 정해진 삶을 살곤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것. 이런 정해진 삶을 착실히 살아내기 위해 정작 좋아하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라며 외면받는다. 매일을 해야 하는 일에 갇혀서 살아간다. 학교 갔다가 학교 다녀오면 과제를 해야 하고 틈틈이 자기계발도 해야 하며 뉴스를 읽으며 사회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해야 하며 운동도 하면 좋다. 해야 하는 ‘쓸모 있는 일’이 너무 넘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의 순간에도 쓸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어를 배울 때 내 커리어에 가장 도움이 될 영어를 배우지만 사실 나는 일본 영화들을 좋아해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일본어가 큰 필요 없기에 일본어를 단순히 나의 흥미를 위해 배우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며 그럴 시간에 영어 공부 조금이라도 더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어책을 꺼내 들곤 한다. 또한, 화학과인 나에게서는 전공이나 취직에 전혀 관련 없는 그림을 그리는 일, 좋아하는 캐릭터의 피규어를 모으는 일 등의 일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나에게 쓸모없는 일이 된다. 이런 그저 취미생활에 몰두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되는가? 취미마저도 어떻게든 생산적인 취미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쓸모없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사람은 모두 다르다. 좀 바꿔 말하자면 저마다의 취향이 다 다르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영향 없이 본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본인만의 취향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작게는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향을 좋아하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부터 어떨 때 즐겁고, 내가 꿈꾸는 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와 같은 생각까지. 자기소개서같이 어느 수업을 들어 어떤 역량을 길렀고 하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취향이 나를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를 즐기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일이 꼭 필요하다. 쓸모없는 일을 무수히 많이 해봐야 온전한 나의 취향이 완성되며 취향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나에게 살아갈 의미와 힘을 준다. 우리는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다. 뒤처지면 어찌지? 이런 쓸모없는 일을 하기 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불안이 우리가 ‘쓸모 있는 일’만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만든다. 하지만 사회가 정한 틀에 맞춰서 커리어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다 보면 정작

본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본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잊기 쉽다. 이런 본질을 잊어버린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삶이 과연 ‘쓸모없는 일’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런 실리를 따지지 않고 그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쓸모없는 일’이 비록 생산적이지 않더라도, 평생 써먹을 일이 없더라도 그저 좋아하는 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쓸모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만들어내는 예측불허한 수많은 변수와 기회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쓸모없는 일을 흔쾌히 즐겨보자!



우당탕!

“방금 뭐야?”

“뭐지?”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초록아!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내 당근을 도둑맞았어... 내가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열심히 모은 당근 100개가 다 없어졌어... 나 어떡해?”

“나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어. 안 할래. 다 필요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은 건데...”

항상 열심히 일하던 초록이도 이번에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열심히 일 하던 열정 마을의 다른 토끼들은 초록이가 금방 마음을 다잡고 같이 일할 줄 알았지만, 초록이는 며칠 동안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과 달리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의 대화에 끼지 못했고, 다시 당근을 찾으러 나서지도 못했어요. 사흘 넘게 끼니도 거르고 무기력하기만 했어

요.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이장님이 초록이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매일 누워서 잠만 잘 거면 나가!”

이장님의 잔소리에 얼떨결에 마을에서 쫓겨난 초록이는 무작정 마을 밖으로 걸어갔어요. 그렇게 아무런 방향도, 생각도 없이 한참을 걷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어? 이 소리는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초록이는 노랫소리를 따라 걸어갔어요.

발이 끌려 다다른 곳은 울창한 숲길 입구였어요. 안쪽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지만 초록이는 머뭇거렸어요. 이 숲은 나무가 뽕뽕하고 길이 들쭉날쭉해 다른 토끼들도 무서워하는 미로 같은 장소였어요. 자칫하면 길을 잃고 영영 헤맬지도 몰라요. 하지만 초록이는 꼭 참고 앞으로 나아 갔답니다. 노랫소리의 정체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주위가 잿빛 구름으로 어둑어둑해졌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초록이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애써 무시했어요. 그때였어요. 우르릉 황!

후두둑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제야 초록이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털은 폭 젖어 가라앉았고 나무 그림자가 매섭게 흔들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초록이는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더는 어디가 어딘지도 알 수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을 구할 동물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초록이는 외로웠고, 덜컥 겁이 났어요.

“일단 비를 피하자. 난 할 수 있어.”

초록이는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주워 작은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나뭇가지와 흙을 쌓으니 비를 피할 만한 작은 집이 완성되었어요.

나름 근사한 집이라고 뿌듯해하던 그때, ‘와르르, 쿵!’ 집이 내려 앉고 말았어요. 천둥 번개가 무서워 급하게 지은 탓에 집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초록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힘이 빠져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비를 피할 곳도 없어. 이제 난 어찌지?”

그렇게 한참을 울다 그제야 초록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빗물에 젖은 눈이 시원했어요. 팔도, 다리도, 온몸이 비를 맞아 개운해졌어요. 몸을 떨며 털을 흔들니 더 상쾌했어요.

“비를 맞는 것도 나쁘지 않네.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초록이는 즐겁게 비를 맞으며 더 깊은 숲속으로 당차게 걸어갔어요. 하지만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만 끊임없이 펼쳐져, 초록이는 다시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방황하며 울창한 숲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만, 빠져나갈 단서를 얻지 못 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거인 같은 나무들뿐이었어요. 작은 초록이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렇게 헤메는 동안 날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길은 더 이상 못 찾겠어.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초록이는 낮에 무너진 집 때문에 집짓기가 잠시 망설여졌어요.

그러나 초록이는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아까는 엉성했어. 이번엔 진흙을 발라보면 어떨까?”

새로 완성된 집은 비도 새지 않았고 밤바람이 매섭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감을 얻은 초록이의 눈은 반짝 였어요. 초록이는 튼튼한 집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 해가 떠오 르고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새소리와 노랫소리도 들려왔어요. 초록이는 노랫소리에 켜켜게 집을 나와, 찬란한 초록빛의 풀과 나무들을 보고 소리쳤어요.

“무서웠던 숲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 줄이야!”

초록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노랫소리를 따라갔어요. 따라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숲에는 더 많은 빛이 모여들었어요. 소리가 절정에 달할 때, 초록이의 앞에는 강렬한 햇빛이 쏟아졌어요.

“설마, 숲이 끝난 걸까?”

초록이는 기대에 부풀어 쏟아지는 빛을 향해 달려갔어요.

“와아아!”

초록이의 눈앞엔 진한 파란 물감 같은 바다와 하늘, 설탕처럼 고운 백색 모래사장이 펼쳐졌어요.

“소문으로만 들던 바다다! 내가 들었던 노랫소리는 파도 소리였구나!”

초록이는 바다로 뛰어가 신나게 물장구를 쳤어요.

찰싹찰싹 파도가 얇게 치더니 이어서 초록이의 키보다 높은 파도가 밀려왔어요.

췌 시원한 바닷물을 맞은 초록이는 몸을 털고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파도에 떠밀려 온 커다란 조개가 있었어요.

조개는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더니 입을 열어 초록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보는 아이구나. 어디서 왔니?”

초록이는 조개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저는 저 숲 너머에 있는 열정마을에서 왔어요.”

조개가 말했어요.

“저 숲을 지나왔다고? 정말 용감한걸!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야?”

초록이가 말했어요.

“바다도 봤으니,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말해주려던 참이었어요.”

조개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다는 정말 깊고 넓은데, 이곳만 보고 돌아가도 되겠어? 얼른 나한테 타! 내가 아주 멋진 곳을 안내할 테니까!”

초록이는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조개 위로 올라탔어요. 잠시 후, 또 한 번 거대한 파도가 올 때 조개와 초록이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깊은 바닷속, 짙은 푸른빛이 아름다운 고래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고래야 안녕?”

초록이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고래가 천천히 지느러미를 흔들며 화답했어요.

“넌 왜 혼자 있니?”

“친구들과 함께 바다 위로 가고 있었는데 산호가 정말 아름다운 거 있지? 그래서 잠시 구경하고 있어.”

“혼자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물론이지. 난 나만의 속도대로 가고 있는 것뿐이야. 이쪽에서 산호를 한번 봐볼래?”

고래의 손을 잡고 산호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해마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있니?”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걸 모으는 중이야. 내가 모은 건 작은 보석이지. 내 친구는 인어의 비늘을 모으고 있대.

오! 저 친구는 깃털을 들고 가는구나!”

해마들이 모은 물건들이 산호를 밝게 비추었어요.

초록이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산호마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고래도 산호 앞에서 멈췄던 것 아닐까요?

초록이는 마을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런 초록이에게 조개의 친



구들이 다가왔어요. “안녕?” 쌍둥이 해파리였어요.

“안녕! 너희는 뭘 하고 있어?”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러. 둘이서 부르면 더 재밌거든. 들어볼래?”

해파리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초록이의 귀가 쫑긋 올라갔어요.

“어때? 바다가 마음에 들면 우리랑 같이 살래? 셋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바닷속 친구들과 함께하면 분명 즐거울 거예요. 하지만 밖을 돌아다니는 동안 초록이에게는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답니다. 초록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난 토끼 마을로 돌아가려고 해. 다른 토끼들에게도 내가 본 풍경을 전해주고 싶거든!”

“아쉽지만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멋진 생각이야!”

쌍둥이 해파리는 초록이를 응원했어요. 조개도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이제 데려다줄게. 언제든지 놀러 와.”

조개는 다시 초록이를 등에 태우고 해변으로 올라갔어요.

‘얼른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해줘야지!’ 조개와 작별인사를 마친 초록이는 설렘 가득한 발걸음으로 마을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비를 맞기도 했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 계속 걸어갔어요.

“애들아! 나 왔어!”

마침내 오랜만에 마을로 돌아온 초록이는 밝고 힘찬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초록이의 기대와 달리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열정 마을은 초록이가 떠나기 전과 다를 바 없이 각자의 몫을 해치우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초록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는 단 한 명 뿐 이었어요.

“애들아! 나 돌아왔다구!”

초록이가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한 친구가 대답했어요.

“어, 안녕? 오랜만이야. 그동안 뭐 하고 지냈어?”

형식적인 인사치레였지만 초록이는 신이 나서 그동안의 여정을 소개했어요.

“나는 그동안 숲과 바다를 여행했어. 숲에 갔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 내가 집도 지어서 비를 피해봤어!”

초록이의 말을 듣던 다른 친구가 와서 귀 기울였어요.

“정말? 집을 지었다고?”

초록이는 말을 이어갔어요.

“응. 그리고 바다에선 고래랑 조개랑 마을을 구경했는데, 정말 여윌롭더라고! 다들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멋있어보였어.”

또 다른 친구가 다가와 물었어요.

“너 수영도 할 줄 알아? 대단하다!”

“나도 몰랐는데, 꽤 잘하더라고! 물살을 가르는 행복을 이제야 알았대니까.”

초록이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와 멋지다!”

흥미진진한 초록이의 얘기를 듣기 위해 친구들은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초록이의 여정을 들으며 그의 용기와 성장에 감탄했어요. 초록이가 덧붙였어요.

“아 참, 친구들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찾으면 돼!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 꿈과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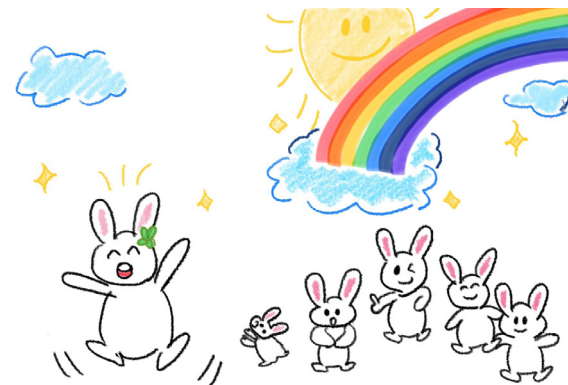
초록이의 말을 곰곰이 듣던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각자의 봄날은 모두 다른 순간에 찾아오니깐. 하지만 내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꾸준히 고민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면 길이 보일 거라고 믿어. 그러다보면 분명 봄날의 꿈이 꽃 피울 수 있을거야!”

초록이의 말이 끝나자 친구들은 환호했어요.

때마침, 내리던 비가 그치고 선명한 무지개가 온 하늘을 덮기 시작했어요.



이야기의 시작

갓 볶은 원두를 갈아 내린 듯이 깊고 진한 커피 향기가 카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넓고 크지 않았지만 카페 주인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아늑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카페였다. 이곳에서 그녀들은 익숙하고도 새로운 만남을 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세연은 바깥이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약간 긴장한 듯 보이는 세연에게 보연이 다가와 인사했고, 뒤이어 진서와 지혜가 함께 들어와 네 사람이 모두 모였다. 그녀들은 함께 음료와 케이크를 주문했다.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 슬슬 덥기 시작하네.”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보연이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단상담할 땐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참 시간이 빠르다.” 진서가 말을 하며 가방에서 부채를 꺼내 보연에게 건넸다. 지혜와 세연이 음료와 케이크를 받아와서 앉았고, 세연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상담 끝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네. 다들 상담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 나도 그렇고, 다들 고민 있어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집단상담 참여했던 거였잖아. 고민은 좀 해결된 것 같아?” 세연의 물음에 세 사람은 한숨을 토하며 대답했다.

“나는 여전히 계속 고민 중.. 뭐해먹고 살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집단상담 받고나서 전보다 조금은 마음 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연애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해.”

“나도야. 좋은 일 생겨서 기뻐하다가도 친구문제만 생각하면 갑자기 우울해져.”

세연도 한숨을 내쉬며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취업 생각만 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그냥 피하고 있어. 누가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네 사람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일단 먹자.”며 포크를 집어드는 진서를 따라 다들 포크를 쥐고 케이크를 먹고 음료를 마셨다.

“우리 그냥 정면돌파 해볼까?” 케이크를 먹으며 보연이 말했다. “정면돌파? 어떻게?” 진서가 물었다. “딱 기간을 정해서 각자 고민을 머리가 깨지도록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보연의 말에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음.. 나는 좋은 것 같아. 마침 방학이라 시간도 있고!”

“그래, 나는 방학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 회사일이 다른 때보다 여유 있는 편이라서 좋아. 주말에 만나서 하면 좋겠다. 이번 여름에 한번 돌파구

를 찾아보자.”

“우리 같이 하면 웬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한다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기간 잡고 계속 고민하면 뭔가 실마리가 잡힐지도 몰라.”

지혜는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까?”라고 말하며 핸드폰의 캘린더를 켜다. 세연도 캘린더를 함께 보면서 “진서언니가 괜찮으면 다음 달까지 방학이니까 한 달 동안 해보면 어떨까?”하고 물었다. “방학 없는 직장인 배려해줘서 고마워. 나는 한 달 동안 하는 거 좋아.” 진서가 웃으며 답했다. “그러면 우리 이번 기회에 고민 싹 해치워버리자! 매주 한번씩 만나는 거 어때?” 보연이 제안했다. “좋아! 그러면 각 주마다 고민 주인공을 미리 정할까? 그 날은 주인공의 고민을 다 같이 들어주는 거지.” 지혜의 말에 다들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면 우리 이왕 만나는 거 활동적인 거 하면서 이야기할까? 우리 추억도 만들고, 고민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세연이 눈을 빛내며 제안했고, 다들 신이 나서 함께 하고 싶은 활동들을 이야기했다. “이 고민해결의 달이 지나면 우리 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져있을 거야. 그러면 또 새롭게 나아가는 거지!” 진서가 힘차게 말했고 다들 기대감에 들떠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카페를 가득 채웠다.

지혜이야기

만나기로 한 파티룸으로 향하던 중 지혜는 잠시 그들로 몸을 피했다. 너무 무더운 날이었다. 태양이 뜨겁고 강렬한 빛을 내뿜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덥고 습한 공기는 한층 더 지혜를 힘겹게 했다. 혹시나 해서 챙겨 나온 휴대용 선풍기가 없었다면 에어컨 바람을 쐬러 카페로 들어갈까 하는 유혹을 참지 못했을 것이다. 가만히 나무 그늘 속에서 매미 소리를 들으며 선풍기 바람에 더위를 식혔다. “인간적으로 너무 덥네, 진짜” 시계를 보니 벌써 약속 시간에 가까워 지혜는 더 여유를 부릴 수 없어 서둘러 그늘에서 나와 파티룸으로 향했다.

“오늘의 주인공이 도착했네! 오늘 너무 덥지?” 먼저 와 있던 진서가 먼저 지혜를 반겨주며 그녀를 에어컨 쪽으로 이끌었다. 이어 보연이 시원한 물을 지혜에게 가져다주었다. “나도 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아아 사서 마시면서 왔어. 사막을 걷는 줄 알았다니까.”라고 말하며 세연도 지혜의 곁에 와 앉으며 모두 에어컨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몸을 맡기고 더위를 식혔다. 보연은 “근데 여기 되게 좋다. 나 파티룸 처음 와봐! 지혜 언니 덕분에 이런 곳도 와보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다. “나도 예전에 와보고 오랜만에 온 거야. 친구들이랑 오면 재밌더라고~그럼 술슬 시작해볼까? 오늘 준비물은 다들 가지고 왔겠지?” 지혜가 말하자 다들 가방 속에 가지고 온 준비물을 꺼냈다. “어릴 때 이후로 퍼즐 오랜만이라서 설레!” 진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퍼즐을 할 생각을 아예 못했어. 진짜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퍼즐을 생각했어?” 세연은 퍼즐 상자를 열며 물었다. 지혜는 “사실 나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 우울하거나 기분전환하고 싶을 때 평소에 안하던 걸 해보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은 취미로 뭐하면서 사나 SNS 찾아보다가 퍼즐 보고 이거다 싶었어. 웬지 딱 뽀이 꽃혔달까..”라고 대답하며 퍼즐 조각들을 바닥에 쏟았다. “새로운 것 해보는 거 좋지. 덕분에 나도 추억 여행하네. 언니 이야기는 언니가 편할 때 해줘~” 보연은 퍼즐 조각을 바닥에 쏟고 엎드렸다. 지혜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그래~일단은 퍼즐 맞추자!”라고 말하며 바닥에 퍼즐판을 두고 퍼즐 조각을 퍼즐 상자에 담았다.

어느새 모두가 조용히 각자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지혜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작은 퍼즐 조각을 판에 하나씩 맞추는 것에 몰두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조각들이었지만 모두 다른 조각이었다. 똑같아 보이는 하늘색 조각들도 같지 않았다. 각자 자신이 맡고 있는 자리가 있었고 어떤 조각도 다른 조각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었다. 퍼즐 판의 중앙을 차지하든, 가장자리를 차지하든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판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판을 채워감에 따라 퍼즐 판의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작은 조각들로 이렇게 커다란 판을 언제 다 채울 수 있을까 싶었던 생각이 무색하게 그림의 형체가 들어나면서 퍼즐 맞추는 것에 속도가 붙었다.

“내 머릿속이 흩어진 퍼즐조각들 같아. 뒤죽박죽이야.” 퍼즐을 맞추며

지혜가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말했다. 보연은 퍼즐 조각을 집어 든 채 지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세연과 진서도 퍼즐을 맞추다 말고 지혜를 봤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지혜의 눈치를 살피다가 세연이 나지막하게 “왜?”라고 물었다. “나는 여태까지 내 삶에서 하나의 퍼즐도 완성을 못한 것 같아. 내가 어디에서 유의미한 퍼즐 조각이었던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해서 무언가를 선택한 적도 없었고, 늘 떠밀리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보다 하고 선택을 했어. 당연히 결과도 그저 그랬고. 중학교 때는 특목고 가야 좋다고 하니까 그냥저냥 공부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인생에서 대학이 중요하단니까 그리고 다들 공부하니까 따라서 적당히 공부해서 대학 오고, 당장 취업이 어려운데 공무원 되면 먹고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막상 공시 준비하니까 매일이 학원, 독서실, 집의 반복이었고 공부도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 지혜가 퍼즐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그쳤다. “공무원이 꼭 되고 싶어서?” 지혜를 걱정스럽게 보던 보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살짝 가로 저으면서 답했다. “아니, 이거 그만두면 나 또 선택해야 하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또 뭘 해야 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 그 몇 년을. 사실은 도망쳤던 거야. 그래도 버티는 거 힘들었는데, 그렇게 버티고 나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매번 시험에 떨어지면서 패배감만 더 생기고 괜히 자신감도 없어지고 해놓은 것 없이 나이만 먹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 도망가고 회피했더니 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거 같아. 당장 내

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하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는 나이는 많은데 경험은 부족하니까 더 마음만 조급해지더라고. 몸은 누워있으면서 마음만 급해지니까 너무 우울했어.. 이런 저런 생각으로 머릿속만 복잡하고. 나 뭐가 되려고 이럴까. 내가 뭐라도 될 수는 있을까...” 지혜가 털어놓은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다들 잠시 생각에 잠겼다.

“뭐가 되긴 뭐가 돼. 넌 그냥 계속 너지.” 침묵을 깨고 진서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한 걸 한다고 해도 나도 그냥 나고, 너도 그냥 계속 너야. 지혜야,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너는 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야. 니가 생각하기에 그저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시간에서도 계속 뭐라도 하려고 했잖아. 그리고 멈춰있어도 돼. 멈추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야. 니가 퍼즐을 보고 ‘아, 이거다!’했던 것 같은 마음에 꼭 드는 선택지가 없으면 선택 안하는 걸 선택하고 멈춰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멈춰있는 시간도 필요하더라. 그러면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절대 늦은 거 아니니까.” 보연은 “오~역시 우리 큰언니. 너무 멋있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 지혜 언니.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언니가 삶에서 원하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거고,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언니가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믿어.” 세연은 지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지혜는 “뭐야, 다들 째어? 왜 이렇게 말 예쁘게 해. 나 눈물 나려고 해. 진짜 고마워..” 지혜는 자칫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농담을 하

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힘들었던 마음에 대한 공감을 받으면서, 따뜻한 위로와 조언에서 느껴지는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감격해서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지혜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보연은 “자, 언니들 우리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퍼즐부터 완성합시다. 그리고 뭐 좀 먹자! 너무 집중했더니 배고파.”라고 자신의 배를 두 팔로 감쌌다. 세 사람 모두 보연의 의견에 동의했고 다들 미소를 지은 채 다시 퍼즐 맞추기에 집중했다.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남은 조각보다 맞춘 조각이 더 많아질 때 지혜는 어쩐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스스로에게 무얼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라는 퍼즐판을 먼저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추어 나가면서 내가 하나의 의미 있는 퍼즐조각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우며 지혜는 퍼즐을 완성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파릇한 잔디밭과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한 사람. 그림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면서 지혜는 다짐했다. 다시 시작해보자, 고

진서이야기

진서는 오늘도 잠을 설쳤다. ‘연애’라는 단어와 ‘왜’라는 단어가 뒤죽박죽 엉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써 진서의 마지막 연애는 끝난지 5

년이 흘렀고, 진서는 올해로 20대 후반이 되었다. 진서의 부모님께서는 요즘 들어 부쩍 언제 연애를 할 건지 물으셨다. 하지만, 연애를 해야 할 필요와 이유를 느끼지 못한 진서는 부모님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곤 했다. 그런 진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진서의 부모님은 계속 소개팅을 주선하셨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보았지만, 부모님의 회유로 소개팅을 피할 수 없었다. 여러번 소개팅에 나갈수록 그녀는 ‘이제 정말 연애를 해야할 때인가?’라는 초조함에 휩싸이곤 했다. 또, 결혼을 생각하는 주위 친구들이 늘어나니 더욱 마음이 조급해졌다. 분명, 아직 결혼과 연애에 관심이 없는데도 진서는 자신이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했다.

초조함 때문에 잠도 설쳤는데 진서는 또 고민하느라 멍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부랴부랴 나갈 준비를 했다. 오늘은 진서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지혜와 보연, 세연이가 진서를 찾아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밤 드로잉 카페를 가자는 동생들의 문자를 확인하고, 진서는 신촌역 근처의 드로잉 카페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 내리자마자 강렬한 햇빛으로 이글이글 일고 있는 뜨거운 공기들이 느껴졌다. 진서의 멍했던 기분은 열기로 인해 짜증으로 변했다.

“가뜩이나 아침부터 신경 많이 써서 열나는데, 날씨는 또 내 정수리를 태우려고 그러네.”

진서는 걸음을 재촉했다. 드로잉 카페에 도착했을 때, 동생들은 이미 커다란 캔버스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그때, 지혜가 일어나서 진서

를 불렀다.

“언니! 언니 자리 여기야!”

진서는 자리에 앉아 옷을 잡고 펄럭이며 동생들에게 말했다.

“어우 더워. 다들 일찍 왔네.”

고르지 못한 숨으로 이야기하는 진서에게 세연은 얼음물을 건넸다.

“이거 마셔. 오느라 고생했어. 우리는 언니 올 동안 뭐 그럴지 좀 생각해 보고 있었어. 언니는 뭐 그럴 거야?”

“음... 고민 안했는데. 너희는 어떤 그림 그리려고?”

“우리도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사장님께 여쭙봤더니 여름이니까 고래 그려보는 거 어떠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샘플 그림까지 받아왔어. 한번 봐바.”

샘플 그림 속에는 거대한 고래가 있었다. 그 고래는 어둡고 깊은 바다 속에서도 푸른 빛을 뿜내고 있었다. 그림을 보고 있으니 진서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또 청량감을 넘어선 시원한 느낌까지 들었다.

“좋다! 난 이거 참고해서 그럴게!”

지혜와 보연, 세연도 고래를 그리겠다고 했다. 그들은 연필을 들어 각자의 캔버스 위에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용함 속에 사각사각 소리가 이어졌다. 진서는 거대 고래의 배 주름을 한줄 한줄 그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초조함이 가셨다. 초조함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그녀는 다시 서서히 냉정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밑그림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진서는 부모님의 재촉과 주위 친구들의 깊은 연애로 잠시 가려졌었던 자신의 본심을 마주했다. ‘나는 아직 혼자이고 싶다.’는 마음이다. 그리고 동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애들아. 그림 잘 돼가?” 보연이 진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잘 돼가, 그나저나 언니 벌써 밑그림 다 그렸네. 세연 언니는 벌써 채색 시작했네.” 진서는 동생들의 그림을 살펴보다가 답했다.

“그러네! 혹시 다들 너무 집중하느라 바빠?”

보연과 세연, 지혜는 잡고 있던 붓과 연필을 내려놓고 진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안 바빠! 언니 고민 들어줄 거야” 진서는 엄지를 세우며 말했다.

“타이밍 좋네. 안그래도 내 고민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얼른 얘기해봐”

동생들은 다시 붓과 연필을 잡았다. 동생들의 손은 캔버스 위에, 귀는 진서를 향해 있었다.

“나 연애에 관심 없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지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진서를 돌아보았다.

“그랬어? 언니 소개팅 자주 나가지 않았어?” 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다.

“맞아... 부모님이 계속 주선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야. 부모님께 연애에 관심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주위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 생각하길래 이제 정말 연애해야 하는 나이인가 싶기

도 해서... 근데 지금 그림 그리면서 이제는 부모님께 확실하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아직 정말 연애가 하고 싶지 않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기도 하고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누리고 싶어. 흠... 근데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용기가 나질 않네. 어쩌면 좋을까?”

세연은 붓을 의자에 탁탁 쳐 물기를 빼며 말했다.

“지금 우리한테 말한 것처럼, 부모님께 진솔하게 말해보면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언니, 우리가 그린 그림들을 봐봐. 언니는 밑그림을 이제 다 그렸고, 세연이는 벌써 색을 입히고 있고 나랑 보연이는 아직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잖아. 이렇게 같은 고래를 그리고 있어도 과정과 속도가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은 각자만의 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결혼 생각을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지혜는 세연의 말에 맞장구치며 말했다. 진서는 지혜의 말을 들으며 찬찬히 그림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속도’를 되뇌어 보았다. 그림을 향해 천천히 굴러가는 눈동자와 머리 속에 맴도는 단어 ‘속도’는 진서가 주변의 상황에 보다 흔들리지 않도록 단련해주는 것 같았다. 진서의 자리에서 가장 먼 보연의 그림까지 다 훑어본 뒤, 그녀는 말했다.

“이야, 동생들한테 이런 위로를 받다니... 나 지금 정말 든든해. 너네가 해준 말 명심하고, 부모님께 잘 말해볼게. 정말 고마워! 자자, 얼른 그림 마무리 짓자.”

지혜와 세연, 보연은 쑥스러운지 뒷머리를 휘적휘적하다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고, 진서도 그림에 몰입했다. 진서는 그림을 그린 이 짧은 시간 동안 내면을 깊이 읽어볼 수 있어서, 사람마다의 다른 속도를 깨달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얼른 부모님께 전달하고 싶었다. 진서는 앞으로 조급함 없이 더 누릴 수 있을 자신만의 시간이 기대됐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래의 꼬리를 색칠하기 시작했다.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니 진서는 고개를 돌려 친구들의 그림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푹 웃어버렸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린 고래보다 꼬리가 커, 친구들이 작은 붓으로 고래 꼬리를 칠할 때 자신은 큰 붓으로 색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팡 터뜨려버렸다.

“학학학”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웃어.”

지혜가 놀란 눈초리로 진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내 고래 너무 꼬리가 커.”

“진짜네. 그런데 고래 꼬리가 행운을 의미하는 거 알지? 크게 그린 거 보면 행운이 들어오려나 본데?”

‘행운이라...’

진서는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다가올 행운이 무엇일지 그려보았다. 그녀가 그린 행운은 조급함 없이 나만의 속도로 인생을 즐기는 순간들이었다. 진서의 편안했던 입꼬리는 설렌 듯 올라가기 시작했다.

세연이야기

“아, 이러다 늦겠다.” 생각에 잠겨있던 세연은 준비물을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섰다. 밖에는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 이제 날씨도 안도와주네.” 세연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 우산을 가지고 나와 터벅터벅 약속 장소로 향했다. 세연은 지혜의 집 앞에 도착해서 우산을 접다가 웃으면서 다가오는 진서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세연아, 보연이도 곧 도착한다니까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

“그래. 그런데 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쏟아질까. 하늘에 구멍 뚫린 것 같아.”

“내 말이. 신발 다 젖었어. 그래도 빗소리는 좋다.”

세연은 진서와 빗소리를 들으며 보연을 기다렸다. 점점 더 쏟아지는 빗줄기에 보연은 흠뻑 젖어서 도착했고, 셋은 지혜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다. “근데 보연이는 왜 이렇게 젖었어? 우산 안 썼어?” 지혜는 보연에게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보연은 “그니까. 언니 나 우산 왜 썼어? 이렇게 젖을 거면 그냥 맞을걸 그랬어.”라고 말하며 건네받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다. “다들 오느라 고생했네. 얼른 맛있는 거 해먹자. 비 오니까 전도 부쳐 먹을까? 집에 야채랑 부침가루도 있고 막걸리도 있어!” 지혜가 말하자 다들 기뻐하며 각자 준비해온 재료들을 꺼냈다, “떡볶이에 만두 곁들여서 먹고 부침개 바삭바삭하게 부쳐서 막걸리 마시자! 아, 나 빙수 기계랑 재료도 가져왔어!” 보연은 집에서 가져온 빙수기를 꺼내고, 네 사람은 신이 나서 떡볶이, 만두, 부침개, 빙수 담

당을 나눠서 요리를 시작했다.

“세연언니는 평소에 요리하는 거 좋아해?” 보연이 빙수에 넣을 과일을 썰면서 물었다. “아니, 요리 잘 못하는데 관심은 많아. 매번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다보니까 자연스레 음식이랑 요리에 관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요리하는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따라서 하고 그랬지. 그리고 맛있는 거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그래서 요리로 정한거야. 때마침 고맙게도 지혜가 자취방에서 해도 된다고 장소 협찬도 해줬고.” 세연은 부침개에 들어갈 재료를 다듬으면서 답했다. 만두를 구우려고 준비를 하던 진서는 세연에게 물었다. “아, 세연아. 저번에 인턴 지원한다는 건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떨어졌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안 될 것 같았어. 경쟁이 엄청 치열했거든. 면접 보러 갔더니 어쩔 그렇게 다들 말을 술술 잘하는지. 나는 아직 멀었나봐.” 세연은 착잡한 기분을 숨기려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려고 애썼다. 진서는 당황하며 “괜히 물어봤네, 미안해. 나는 좋은 소식 있을 줄 알고..”라고 말하고 세연은 “아니야, 괜찮아! 언니가 그만큼 나한테 관심 가져준 거잖아. 비 맞아서 그런지 배가 더 고프네. 얼른해서 먹자!”며 재료 손질을 서둘렀다. 김치를 썰고, 각종 야채를 채 썰었다. 부침가루와 물을 적당량 섞어 반죽을 만들고 썰어둔 재료를 넣고 섞었다. 부침개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각기 다른 맛과 향, 그리고 서로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형성해냈다. 김치는 김치대로, 양파는 양파대로, 해

산물은 해산물대로, 애호박은 애호박대로, 김치부침개에서 함께하면서도 각자의 매력을 뽐냈다. 세연은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얇게 펴 바삭한 부침개를 만들기 위해 집중했다. 네 사람 모두 자신이 맡은 요리를 정성들여서 하고 모여 앉아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맛있는 거로 배불러서 행복하다. 모처럼 집에서 제대로 해먹었네.” 지혜가 누우며 말했다. “나도 오늘 비에 홀딱 젖어서 기분 별로였는데 잘 먹어서 기분 한결 나아졌어.” 보연과 진서도 나른한 표정을 지으며 벽에 기대앉았다. “나도 그래. 사실 나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였거든.” 세연의 말에 “왜? 무슨 일 있었어?”하고 보연이 물었다. “친구가 취직했다고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는 축하하는 마음은 커녕 ‘나는?’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반사적으로 나를 그 친구랑 비교하게 되더라. 그 친구 고생한 거 알아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됐어. 또 그게 잘 안 되는 내가 한심해보이고.. 나는 인턴도 계속 떨어지는데 친구는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니까 나는 여태 뭐했나 싶고. 아등바등하면서 바쁘게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쓸데없이 기운만 뺏나 싶은 거 있지.” 세연이 한숨을 쉬자 지혜가 물었다. “전에 니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학기 중에 알바, 동아리, 대외활동 하고, 방학 중엔 학원도 다니고 엄청 바쁘게 시간 보내는 것 같던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 스펙 보면 한숨부터 나와. 동아리,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학점관리, 외국어 능력 외에도 나는 대체 이

사회가 고작 대학생인 나한테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어려운 걸 다 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불평하는 시간에도 곳곳하게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인턴 면접만 보러 가도 인턴을 몇 번씩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또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가면 경력 많은 중고신입이 차고 넘쳐. 내가 그간 해 온 것들은 하찮아 보이고, 서류나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 나 그냥 월급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월급날 플렉스 한번씩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한테 그것마저 사치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그저 막막하기만 해..” 세연은 말을 마치며 막걸리를 입에 쏟아 부었다.

“언니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언니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보연에 이어 진서가 말했다. “그래, 세연아. 니 잘못이 아냐. 그리고 기죽을 필요 없어. 너도 바쁘게 살면서 분명 많은 것을 했을 거야. 니가 그 가치를 몰라주는 걸 수도 있어.” 세연은 한숨을 쉬며 “그렇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심정인가.”라고 말했다.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남이 가진 건 좋아 보이고 다 그런 거지, 뭐. 너도 분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험,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야. 진서 언니 말처럼 기죽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봐. 꼭 양파, 당근 있어야 부침개 만드는 거 아니잖아. 베이컨 있으면 베이컨 넣어도 되고 버섯 있으면 버섯 넣어도 되는 거지. 그게 틀린 부침개는 아니잖아? 그

냥 맛이 다른 부침개인거지. 난 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 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 차분하게 지난 경험들 돌아보면서 더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혜는 말을 마치며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 키고 과장되게 “크으, 비오는 날 막걸리 참 좋다”라고 말했다. 보연과 진서는 그런 지혜를 놀리며 장난을 쳤고 세연은 그들을 보며 웃음이 터졌다.

가지고 있는 재료를 손질하고 단계별로 조리해서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장점을 살려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세연은 취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다른 재료 넣는다고 부침개가 아닌 건 아니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 재료도 없는 건 아니니까, 뭐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나만의 특별하고 색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세연은 그동안 자신이 소홀히 여겼던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미처 보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김치 부침개를 먹기 좋게 찢어 입에 넣으면서 세연은 세 사람과 함께 웃었다.

보연이야기

오늘은 철저히 보연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다. 보연은 침대를 빠져나와 창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다. 창문 사이로는 가을을 알리는 고소하면서도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다. 보연은 크게 숨을 들이마셔 가을의 지혜로운 기운을 몸 가득 담아냈다. 보연 안에 채워진 기운들은 보연의 답답한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 같았다. 서둘러 집을 나와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우리 빨간 잠망경 앞! 얼른 와”

보연은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한 뒤 달리기 시작했다. 빨간 잠망경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언니들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언니들을 향해 달려가 와락 안겼다.

“보연아 우리가 어디갈지 찾아봤는데, 역 앞에 보드게임 카페가 새로 생겼더라고. 가볼까?”

“난 뭐든 좋아!”

보연과 진서, 세연, 지혜는 나란히 보드게임 카페로 향했다. 보연이는 설레는 발걸음으로 가볍게, 언니들은 어떻게 보연이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들은 보드게임 카페에 도착해 자리를 잡자마자 루미큐브를 가져왔다. 세연은 게임을 펼치며 말했다.

“여러분, 게임도 중요하지만 보연이를 위해 모인 거 아니죠? 보연이 이야기 들어주는 거 잊지 맙시다. 차례는 보연이부터 시계 방향!”

보연이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 지혜가 물었다. “그래서 보연이는 무슨 고민이 있는 거야?”

차례는 진서에게로 넘어갔고 보연은 책상에 놓여진 숫자 타일과 자신이 갖고 있는 숫자 타일을 번갈아 응시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빨간색 숫자 타일과 검은색 숫자 타일 각각이 무리지어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보연이 가진 숫자는 어디에도 이어붙일 수 없는 파란색 숫자 타일이었다. 그녀는 그 타일의 모서리를 이마에 콕콕 찍으며 골똘히 생각하다 답했다.

“요즘 날 괴롭게 만드는 건 친구 관계야. 가장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조금 멀어졌어.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나지 못 해서인지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분위기는 나만 느낀 게 아니었나봐. 친구들도 이제는 만나자는 말을 잘 안 해.”

그때, 진서는 자신의 숫자 타일들을 내놓으며 말했다.

“딱히 싸운 건 아닌데, 관계가 서먹해졌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들 새로운 환경에 관심을 쏟다 보니 서로에게 소홀해졌나보네. 보연이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사실 나는 유지하고 싶어서 친구들이 만나자 하지 않아도 먼저 여러 번 연락했는데, 잘 못치지 않더라구.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야 하나 싶어. 근데, 이 친구들과 관계를 끊어냈을 때 나 혼자서 친구들에게 털어 놓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동안은 친구들이 내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

도 꽤 내줬는데 말이야. 또, 친구들을 잃는 게 두렵기도 하고..”

보연은 진서가 내려 놓은 타일을 바라본 뒤 자신의 타일과 조합해보며 답했다. 진서가 내놓은 3개의 타일은 보연이 기다리던 파란색이었다. 심지어 보연의 타일은 7이란 숫자였는데, 운이 좋게도 진서가 내려놓은 타일이 4,5,6이어서 6 뒤에 타일을 놓으면 되었다. 보연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진서에 이어 세연의 순서였다. 세연은 3이 적힌 파란 타일을 진서의 타일 옆에 놓으며 보연에게 말했다.

“당연히 혼자서 해결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언니들이 보연이의 새로운 친구들 아니야? 우리처럼 새로운 인연들은 계속 생길테니까 너무 외로워마. 지혜야 너 차례다.”

지혜는 세연의 말을 듣고 보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과 2의 파란 타일을 세연이 내려 놓았던 3의 파란 타일 원편에 두었다. 차례가 돌아온 보연은 합성을 지르며 보연이 갖고 있던 타일을 이어붙였다.

“와, 우리 1부터 7까지 파란색 타일이 다 모였네. 신기하다. 언니들이 내 새로운 친구가 되어 줘서 그런가? 이렇게 한 번에 숫자들이 이어지다니!”

지혜와 세연, 진서는 보연이를 향해 엄지를 세웠다. 세연이 말했다.

“진짜 신기하다. 애들아, 정말 우리 인연인가 봐. 참... 보연아, 친구 사이는 어찌면 루미큐브 같을지도 모르겠어. 한번 잘 살펴봐.”

보연은 세연의 말을 듣고, 책상 위에 하나의 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 타일들을 바라보았다. 색이 달라도 같은 숫자로 묶여있는 타일 무리, 같은 색이면서 1부터 차례대로 묶여 있는 타일 무리들이 있었다. 이런 무리들

을 끊어내고 재조합해서 새로운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보연이 이긴 루미큐브 게임이었다. 게임의 과정을 찬찬히 생각해본 후, 그 제서야 보연은 루미큐브의 방법이 친구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모였다가 흐터졌다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것. 또, 새로운 인연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보연은 고개를 들어 세연과 눈을 맞추고 대답했다.

“그러게, 언니. 관계의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였어. 오늘 다들 너무 고마워.”

진서와 지혜는 보연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보연이 정말 기특한 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깨닫고 말이야. 더 이상 친구 관계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까 친구들 없이 혼자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했잖아.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늘 너가 혼자 고민하고 게임을 이긴 것처럼, 너는 너에게 찾아온 고민을 충분히 혼자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 그래도 어렵다면, 우리에게 연락하면 돼.”

보연은 진서와 지혜의 따스한 조언에 자신감을 얻었다. 보연은 오늘 언니들과의 만남 덕에 새롭게 깊어지는 인연을 돌아볼 여유를 얻었으며, 잠시 주춤하는 관계에 크게 상처받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다. 보연은 깨달음을 선물해준 언니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전했다.

“언니들 덕분에, 나 오늘 한층 더 강해지고 성장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언니들의 말 명심할게. 그리고, 내가 자주 연락해도 귀찮아하지 않지!”

“그럼!”

지혜와 진서, 세연은 보연을 가운데에 두고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보연은 자신을 위해주는 언니들의 모습에 그동안 갖고 있던 고민들을 말끔히 지워낼 수 있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더 이상 친구 관계로 슬퍼하지 않기로, 또 새로운 인연을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이어서, 보연은 마음속으로 나지막하게 고등학교 친구들을 향해 인사했다. ‘지금 우리 잠시 멈춰있지만, 우리가 그랬던 추억들은 꼭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 다시 뭉치는 날, 꺼내보도록.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모두의이야기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계절이 찾아왔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다. 거리마다 사람이 가득하고, 도시의 조명은 쉬지 않는 연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다시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이다. 올 여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했던 네 사람은 각자의 날을 맞아 저마다 하나씩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의 영향일까, 그녀들은 지난 여름보다 성숙해보였다.

보연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어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샀다. 지난 크리스마스엔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들과 보냈지만, 올해는 혼자 지내 볼 생각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연은 크리스마스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했고, 또 혼자가 아닌 여럿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올

해 보연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혼자 지내는 크리스마스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보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오늘 무엇을 할지 목록을 적어보았다. 책 읽기, 넷플릭스 보기,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기, 그리고 언니들에게 전화하기. 보연은 올해 가장 의지가 많이 되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싶은 새로운 인연을 얻었다. 언니들이 그 인연이었다. 보연은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그들을 꼭 만나고 싶었다.

진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연말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연말은 사방팔방에서 연인들이 보이는 시기이기에 조급함이 엄습해오고 부모님의 눈치가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서는 지난 여름, 동생들을 만나고부터는 연말이 기다려졌다. 특히, 오늘이 제일 기대됐다. 부모님께 진솔히 말해보라는 동생들의 조언에, 진서는 그날 바로 부모님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저만의 속도가 있어요. 아직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라고. 그때 진서 부모님은 진서의 예상과 달리 온화한 미소로 진서의 의견을 존중해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진서에게 소개팅을 요구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지난주에 진서의 어머니는 진서에게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를 신청하셨다. 어머니의 제안을 들었을 때, 진서는 크게 웃으며 답했다. “엄마, 뭐라고? 데이트? 완전 환영이지!” 그래서 오늘 진서는 엄마와 함께 외출하러 나간다. 엄마랑 거리를 걸을 때마다 연인들이 스쳐지나가겠지만, 진서나 진서의 어머니나 이제 더 이상 연애에 개의치 않기로 다짐했다. 진서는 진서의 속도가 있으니까. 아

무조록 진서는 어머니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자기도 목도리를 하며 집을 나섰다.

세연은 요즘 2달 뒤부터 시작될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기 위해 자소서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다. 스터디에 참여하면 혹여나 남들과 스펙을 비교하고 좌절할까봐 잠시 망설였으나, 세연은 지난 여름 자신을 바꿔놓았던 보연과 지혜, 진서 언니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 자소서 스터디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경험들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를 연구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원하는 직무를 정리하고 연결시키면서 말이다. 어제 이런 작업을 하는 도중, 좋은 자기소개가 떠올라 오늘 스터디원과 만나서 피드백을 나누기로 했다. 세연은 자신의 학부생 시절이 아카이빙 되어있는 두툼한 15인치 노트북을 챙기며, 어깨에 기합을 넣고 스터디카페로 향했다.

지혜는 지난 여름 퍼즐을 맞추며 이야기 나눴던 시간을 기점으로, 자신을 직접 더 알아가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고 없는지를 알기 위해 최근 여러 동아리와 대외활동에 지원했다. 연극 대본을 작성하는 동아리에 최근 서류가 합격되어 오늘 면접을 보러간다. 크리스마스날이 하필 면접일이어서 아침에 살짝 심술이 났지만, 그래도 자신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금방 마음이 나아졌다. 지혜는 어느 때보다도 말끔한 옷을 꺼내 입었다. 옷장을 열면서 창문을 내다보니 조그만 솜 덩어리 같은 눈이 훑날리고 있었다. 지혜는 땅이 질퍽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짜증보다는 설렘이 느껴졌

다. 신발장에서 장화와 가장 튼튼한 우산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면접장으로 향했다.

바지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다.

“엄마, 잠깐만. 보연이 전화다.”

진서에 이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복기하며 걷던 세연도, 면접의 첫인사를 다시 읊으며 위풍당당히 걸어가던 지혜도 모두 보연이의 전화를 받았다.

“언니, 내일 시간 돼? 시간 되면 만날까?”

“좋아”

“좋아”

“완전 좋아”

보연이는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언니들이 모두 내일 시간이 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할 일에서... 언니들에게 전화하기도 완료! 내일 너무 기대된다.”

보연은 자신의 삶에 활력을 더해 줄 만남이 성사되어 너무 기뻐다. 전화를 끊은 진서와 세연, 지혜의 얼굴에도 눈처럼 맑은 웃음이 피어났다. 그렇게 내일은 그들의 따스한 연말이 시작된다.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고 또 위로해주는 따뜻한 연말 모임이 말이다.

어딘가에서 표류하고 있는 단어들을 집어다가 뭐라도 표현할 수 있는 일이란 멋진 것이다.

몸으로는 못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다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되짚어 보자. 아니 되짚어 보도록 하자. 비록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지고 있던 특성이 유지되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런 척이라도 해보기로 했다. 지구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머리를 구겨가며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봤다. 지구는 점점 괴기해져 갔다.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뭔가에 홀린 듯이 무언가를 줄줄...

아니 척척이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홍보하고 나섰다. 그 흐름에 타지 않으면 묻히는 것이다. 당장의 생계를 놓치고 그 우주선에 탑승한 사람은 몇 명이었나. 나는 꽤 많은 시간을 버텼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4시간이 흘렀다. 지체라고 하기에는 단어가 아까웠고, 공부라고 하

기에는 지속되지 못했으나, 명예라고 하기에는 사회적 위치와 그다지 관련 없었다. 자발적 고립이 제일 적절하다. 그렇다. 스스로 세상을 거부하면 흐름에 비껴져서 그럭저럭 살 수 있었다. 나도 22살이 될 때까지 철저히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 흐름은 구처럼 돌고 돌아서 언제든 내가 탑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구가 점점 넓어지고 또 넓어져 내가 더 이상 볼 수도 없을지는 몰랐다. 전혀 몰랐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정상인 줄 알았다. 드디어 지구가 평범해졌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또 20년을 보냈다. 관계를 쌓아가지 못하는 내가 잘못인지, 나는 못처럼 유난해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찾은 건 그들이었는지 고민의 시간은 영겁을 넘었고, 저 멀리 누군가에게 꼭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했다. 지금 당장 이 광활한 우주를 보고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승자이기도 했다. 불안하다. 더 이상 소통할 수도, 너무 멀어져 버린 흐름을 따라갈 수도 없다.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다시 지구에 내려 어느 유흥가를 걸으면서 목이 막히는 담배연기를 맡으며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없는 길이다. 잠깐, 비판은 내 즐거움이었나? 그렇게 타인을 폄하하며 살아왔는가 싶다. 맞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나면 한껏 마음이 안정되고, 스스로가 멋졌다.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말이자, 웬지 모르게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지금은 어떤 대상도 없는 시대이니 내 즐거움이 없어졌나 보다. 고독이란 그런 것이다.

흐름에 대해서 남은 22살 때부터 20년을 고민하면서 보냈다. 이제는 내

정신도 될 대로 성숙

했을 때라 이런저런 생각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기 때문이다. 내 옆을 돌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드디어 사회 속으로 한 걸음 내밀었을 때 낭떠러지를 느꼈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자발적 고독으로 계속 깊어져갈 때 어떤 환상을 꿈꾸었는데 그걸 기대하고 나간 힘찬 움직임이 사그라지는 순간이었다. 흐름은 내 곁에 있지 않았다. 잡지 못한 사람들만이 곁에 잔상처럼 지나갔고 그 중간에는 나만 있었다. 그제서야 흐름은 다른 행성으로 저 멀리 퍼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20년을 또 자발적 고독으로 들어갔다. 대신에 목적을 가지고. 그 흐름은 뭐였을까 하고 말이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흐름이 막 생겨나 내 곁을 머물고 있었을 몇십 년 전을 거슬러 기억을 짜내야 한다. 유일하게 나를 스쳐갔던 때를. 모두가 같은 얼굴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투로, 같은 일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맞다. 이래서 내가 지구를 괴상하게 느꼈던 것이다. 어쩌면 복제인간처럼. 그 속에서 나를 찾기란 어려웠다. 그래서 나를 저 멀리 신경 쓰이는, 그런데 존재감이 없어서 누가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멀어져 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왜 흐름을 타고 인생을 허무하게 보냈을까. 누군가의 사랑이 그리워졌었다. 그러기에는 처음부터 흐름 속에 자신들을 가두었던 사람들이다. 그립다는 감정은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면 사랑을 원했나? 모두 다 곁과 속이 같으니까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타인으로 하여금 만족시키길 원했던 걸까. 고독의 생각으로 마음을 추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42살까

지 일주일에 적어도 1번씩 그들의 삶이 궁금해졌고 이런저런 가설을 세워 보기도 했다. 마치 과거에만 매달려 자발적 고독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말이다. 또 다른 생각을 하느라 우주에서의 삶이 또 기억나지 않는다. 또 다른 20년은 내가 왜 지난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지 고민하면서 보내지는 양기로 했다. 이 글이 마지막이다. 그래도 글은 참 멋지다. 나중에 보면 즐거울 것 같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루가 지난 오늘 미래에 대한 나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흐름이 곁에 머물렀을 때, 어느 한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다. 주인공이 영상으로 자신에게 인사를 남긴다. 꽤 멋진 일이었다. 시간을 넘어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오로지 나와 나의 대화인 것이다.

A에게.

내가 왜 A라고 널 지칭했는지는 잘 알고 있지? 22살까지 내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내 이름

은 A로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A라고 부를게. 아직도 흐름에 대해 종종 떠오르곤 하니? 아니면

내 편지를 읽고 재밌는 추억이 문득 떠오른 듯 웃음을 짓고 있지?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궁금하다. 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괜찮을 만큼 꽤 괜찮은 인간이었나 싶어. 그 위인들도 인간이니까 같은 종족이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하겠지? 한 마디마디, 생각 한 조각마다 두꺼운 알맹이가 있는지는 궁금해. 지금 나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때려 박은 글로 포장 중이거든. 그래도 글이니까 멋져 보이는데, 나이도 어느덧 환갑일 텐

데 이제는 삶의 지혜라는 게 여러 개 생겼어? 고독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거지? 아니면 스스로를 비판하며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면서 사는 건가? 당장은 A, 널 볼 수 없지만 이 편지로 근황을 전해볼게. 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아주 완벽했다는 증거겠지?

사실 나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어도 하루를 남기는 글은 몇 번 남긴 적이 많았다. 어렸을 때

는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가끔 시간을 내서 과거의 기록들을 읽다 보면 시간이 빠르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기도 하다. 다시 또 인생을 고민하는 시점이다. 길어야 백 년을 산다는 데 이리저리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출발선도 모두 다르고 흐름도 잘 타야 했다. 이 시간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삶의 큰 문제이다. 나는 자발적 고독을 택했는데, 사실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 20년 뒤에 내가 이 글을 웃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고, 오로지 나로만 이 몸뚱어리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더 멀어진 흐름에게 외쳐본다. 내가 흐름이고, 넌 고독이었다고.

...

이건 아무에게 밝히지 않은 글임을 밝힌다. 매주 우주에서 혼자만의 글을 발표하곤 했는데, 유일한 지구에서의 기록이자 흐름이 곁에 머물렀을

때의 글자들이다. 꺼내는 이유는 20년 뒤의 A가 잘 이해할 것이라 믿고, 마지막으로 첨부한다. 더 이상의 수정은 없을 것이다.

지구에서 얼굴 혹은 외모,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격과 매력도를 단

박에 정의하는 그 표면적인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고치고 변형시켜

흐름에 당연하듯 탑승하고 스스로를 더욱 감추고 살아간다. 나도 한때는 그런 걸 고민했었다.

놀랍게도 삶이 곧 얼마 남지 않은 노인네들도 외적을 집착하고 살았으니 갓 태어난 사람들은

30cm 남짓한 몸체가 진리이자 전부로 받아들일 수 받게 없었다. 사회의 탓으로 잠깐 돌려봤

다. 참 어이가 없고 기괴하다. 내면은 중요치 않다. 무슨 생각을, 신념을, 가치관을 가졌는지

왜 묻지 않는 건가. 우선순위가 틀렸다. 다르게 아니라 아주 많이 틀렸다. 내가 해결할 수 없

는 사회의 응어리인 것처럼 느껴진다. 마음의 응어리는 잘 녹아내리지만 오랫동안 굳어온 녀석을 쉽게 풀어낼 수는 없는 법이다. 거대한 폭탄을 만들어 내지 않는 이상. 이상한 걸 요구하는 지구와 내가 만들어낸 우주의 환상. 그 차이는 측정 가능할지 모르겠다.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채, 나는 오롯한 자아를 위해 자발적 고독으로 수련의 길을 걸어보고자 한다.

22살의 이른 나이, 혹은 조금 늦은 나이지만. 결과는 나도 모른다. 나를 망
치게 될지, 이끌게 될지. 그래도 후회는 없게 출발해 보고자 한다. 흐름에
서 떨어져 고독으로.

지금,우리

P A R T

4

청춘

지 금 , 우 리



이십대를 막 맞이한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에도 착했다는 사실에 조금은 설레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슬슬 어른만이 지니는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라도 한 듯 소녀의 표정은 약간 오묘했다. 완전히 읽지는 못한 건 아니니까 약간이라고 하겠다. 이십대를 맞았다. 사실 뭔가 많이 기대했다. 드라마며 영화며 스무 살은 조금 특별하지 않은가. 물론 이 사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건 다음 날 아침에 알아챘다. 학창 시절,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다 새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소용없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새로운 나를 또 기대해 봤다. 명칭하 다. 스무 살이 되면 내가 갑자기 공주가 되기라도 하나.

그 소녀에게 바로 다가가기에는 오히려 내가 더 무서웠다. 나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싶었다. 의도한 접근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 게끔. 사실 그 소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친구 사이를 유지해 왔다. 가끔 그녀가 숙제를 못했거나, 가족과 싸웠거나, 중요한 동아리 면

접이 있거나 할 때면 항상 가까이 있어줬다. 그러고는 쑥 사라졌다. 귀찮은 존재가 되고 싶진 않아서. 그래도 이제는 스무 살이 되어 날 잊을 수도 있으니, 대학 생활이 너무 즐거워 나의 존재 자체를 잊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가가보려고 한다.

대학은 생각보다 지루했다.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망스러웠다. 반복되는 과제, 공지, 시험, 동아리 활동, 그 어느 것도 날 즐겁게 하지 못했다. 그래도 고등학교에 비하면 많은 자유가 생겼으니, 꽤 만족은 한다. 게다가 대학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성향은 상상할 수도 없이 다양해서 마음에 들었다. 환상은 깨졌지만 노는 건 나쁘지 않았다. 젊음이 느껴진다. 좋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소녀는 더 이상 날 기억 못 하는 게 확실하다. 내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 조금은 대담하게 다가가야겠다.

어느덧 내가 선배님의 호칭을 가지기 시작할 무렵, 부쩍 알 수 없는 녀석이 자꾸 날 찾아온다. 예전에도 자신은 있었다며 주장을 하지만 이름은 알려주지 않는다. 흐릿하게 내 기억에도 그 자 식은 자리 잡고 있었다. 숙제를 안 했거나, 가족과 싸웠거나, 내일 면접이 있거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불쑥 나타났던 아이였다. 그것만 기억이 난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고, 또 열심히 생활을 영위할 때쯤이면 그 녀석은 사라진 후였다. 그러나 지금의 녀석은 사뭇 다르다. 요즘 내 삶이랑 연관되어 있는 걸까 머리를 되짚어봐도 뭐가 나오질 않는다. 너무 지금이 행복해서일까. 복잡한 생각이 어렵게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이게 언젠가는 끝

이 날 것을 나도 알아서인가 싶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한번 내 머릿속에 그려본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그 녀석이 또 문을 두 드린다. 잠깐 나 좀 보자면서. 행복하긴 하지만, 작년에는 알 수 없이 빠졌던 내 머리, 갑자기 압이 생겼던 엄마. 이것저것에 대한 조급함과 이제는 사회생활로 뛰어들기 직전의 다이빙대에 서있는 내 모습이 외부로 투영되어 바라볼 수 있는 지경이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분명 나쁘지 않은 삶이다. 그런데 그 녀석은 내가 더 안 좋은 길을 걷게끔 부추긴다. 사라지지 않는다. 예전과 다르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흉흉한 사건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굉장히 모순적인 것은, 그 녀석이 있음에도 지금 상태가 꽤 안정적이고, 이사 온 집에 적응도 했고, 친구 들도 자주 만나고, 가족과의 사이도 완벽하다. 아까도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나쁘지 않다고. 근데

자꾸 이게 곧 추억할 과거로 흑 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비현실적 바람 때문인 것 같다. 근데 그 바람을 자꾸 손에 넣어보라는 그 녀석의 재촉에, 뚜렷 하지도 않은 무언가가 영화 속 필름처럼 과거 회상을 하는 나의 비참한 모습이 그려지고, 그건 또다시 계속해서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생각의 꼬리가 또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이게 내가 늙었 다는 증거겠지. 첫 스무 살을 떠올려본다. 2년이 무색하지만은 않다. 정말 늙은 건가. 벌써부터 추억으로 남을 오늘을 그리워하고 내일을 생각한다. 왜일까. 그 녀석이 해답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처음으로 그 녀석과 눈을 맞춰본다. 진심을 담아.

드디어 그 소녀가 날 알아본다. 삶에서 날 느낀다. 기쁘다. 맑은 눈망을

이 보인다.

이름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결심한다. 정체를 알아야 나에게 도움 되는 애인지 아닌지 뭐라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이름이 뭐니?"

이제는 정체를 밝혀야 그 소녀가 나를 확실히 각인할 것 같다. 그래야 나도 내 역할을, 그녀도 나를 끌모 있게 다룰 것 같다. "너를 살아가게 하는 불안. 그게 나잖아. 네가 먼저 나 찾았잖아. 예 전에는 나도 날 잘 몰랐지. 근데 너 이제 스무 살 넘었잖아. 나도 그만큼 성장했거든. 안 사라질 거야. 계속 있을게. 항상 곁에서 지켜볼게. 지금을 소중히 생각하라고. 날 너무 좋아하진 말고, 싫 어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너무 되새기지도 말고. 존재는 알고 있으라고, 이제야 답할게."

그 녀석이 그 녀석이었다. 또다시 말소리가 들린다.

"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줄래? 그게 편해. 그게 오히려 편하다고. 너한테. 지금 넌 날 없애려 하잖아. 나도 이제 이십대인데 거절 당하기엔 너무 젊거든"

헛된 희망이 더 괜찮았는데, 하필 불안이었다.



수하는 혜안과 처음 만났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안녕.”

자신에게 수줍게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을. 혜안의 미소는 참 싱그러웠다. 수하는 문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싱그럽다는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와닿았다. 3학년과 방을 써야 한다는 그 불평은 이미 날아간 지 오래였다. 수하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연신 혜안을 훑쳐보았다. 열심히 흘끗거리다가도 혜안이 제 쪽을 쳐다보면 정리하고 있던 책을 했다.

수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 사랑이구나. 그것도 그 유명한 첫사랑.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가슴 속에 평생 남게 된다면, 인생에서 겪을 사랑 중에 가장 아프다던, 그 첫사랑이구나. 수하는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았다. 처음 누워 본 침대가 낯설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건너편 침대에 혜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말뚱말뚱한 눈을 돌려 옆을 쳐다보니 혜안은 이미 꿈나라에 빠져 있었다. 언니, 언니는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는 없어 속으로만 되었다. 혜안은 미동조차 없었다. 수하가 천장을 보고 누웠다. 눈을 감았다. 여전히 심장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지만, 내일 등교를 위해 억지로 잠을 청해야 했다.

혜안의 행동은 수하를 착각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행동이든 그렇게 느껴졌겠지만, 아무튼. 복도에서 마주치면 맨날 보는 얼굴인데도 뭐가 그리 반가운지 저쪽에서부터 뛰어와서 백허그를 한다든지 정면에서 끌어안는다든지 했다. 그러면 수하는 곤란한 척하면서 살포시 혜안을 함께 안았다. 혜안은 수하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수하에게 안기면 품 안에 쑥 들어왔다. 그 안에서 방방 뛰면 19세의 귀여움에 18세의 심장이 가슴팍을 찢고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뛰었다.

언젠가는 도서관에서 세특에 적을 만한 책을 찾는데 혜안의 유난히 볼록하고 둥그란 뒤통수가 눈에 들어왔다. 손을 뻗어 책장 맨 위 칸에 있는 책을 꺼내겠다고 깡깡대고 있었다. 수하는 말없이 혜안에게 다가가 책을 꺼내 혜안의 품에 안겨주었다. 혜안은 고맙다며 눈을 접어 웃었다. 혜안이 저렇게 눈을 접어 웃을 때면 눈꼬리가 유독 더 올라가서 더 여우 같았다. 그러니까, 정말 동물 여우를 닮았다는 뜻이다.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수하는 자신이 이 여우 같은 웃음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혜안은 기숙사 점호 시간이 되기 전까지 꼭 수하에게 온종일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다. 혜안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즐거웠던 일, 우울했던 일, 화가 났던 일들을 조잘조잘 떠드는 그 목소리

가 308호를 가득 채울 때면 힘들고 지치는 학교생활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수하는 하루 중에 그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평범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수능이 한 달 전으로 다가왔다. 혜안은 주로 자습실보다는 방 안에서 공부를 했는데, 수하는 그걸 알고는 처음에 자습실에 두었던 짐을 죄다 방 안에 들여다 놔다. 덕분에 책상이 난장판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쌓아둔 짐들은 혜안을 몰래 훑쳐보기에 딱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노트 필기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책 너머의 혜안을 훑듯 쳐다보면 혜안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혜안은 늘 수학에 절절했다. 전에 혜안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안 풀렸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하에게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수하는 3학년 수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혜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속상했다. 그 뒤로 수하는 툼툼이 3학년 수학을 공부했다. 국어와 영어는 좀 못해도 수학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혜안에게 문제를 가르쳐줄 때마다 수하는 뿌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보답으로 혜안은 수하에게 국어를 알려주었다. 둘이 한 책상에 붙어서 서로에게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다 보면 이따금 창가에 보름달이 비추는 달빛이 책상 안쪽까지 닿곤 했다. 그럴 때면 혜안은 동그랗고 탐스러운 보름달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수하야 그거 알아?”

“네?”

“오래전에 일본 소설가 하나가 I love you를 달이 참 밝네요, 라고 번역

했대.”

그렇게 말하고는 수하를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수하는 빨갛게 달아오른 제 얼굴을 들킬까 얼른 고개를 숙였다. 수하는 빨개진 얼굴을 가라앉히려 꽤 애를 먹었다. 수하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혜안은 수학 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있었다.

요즘 따라 혜안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수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다. 그러던 어느 날 통금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혜안이 들어오지 않았다. 수하는 괜히 창문 밖을 들여다보았다. 혹시라도 언니가 있을까 해서. 그러다 기숙사 건물 앞에서 있는 혜안을 보았다. 가로등이 혜안을 비추었다. 그 아래에서 혜안이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혜안은 울면서 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그는 울면서 악을 쓰는 혜안을 끌어안았다. 혜안이 그에게 매달려 울었다. 그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었다. 한참을 매달려 울던 혜안을 그가 품에서 떼어냈다. 둘의 얼굴이 겹쳐졌다. 심장이 곤두박질치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아플 정도였다. 속도 울렁였다. 수하는 겨우 둘에게서 시선을 뗐다. 심장이 너무 아팠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연신 주먹으로 가슴을 쳐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 맺혔다. 목 놓아 울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 자꾸 억눌린 소리만이 튀어나왔다. 한참을 꺾꺾대며 울었다. 그렇게 밤새 울어댔던 것 같다. 혜안은 밤새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엔 슬펐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났다. 그다음엔 화가 났다. 혜안 때문이 아니라 별거 아닌 혜안의 행동에 설렌 자신 때문에. 원망스러웠으나

차마 헤안을 원망하진 못하고 자신을 원망했다. 그냥 마음이 그랬다. 헤안을 미워하려고도 미워할 수가 없었다. 이런 자신이 더 미워졌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종잇장처럼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없듯, 한 번 접은 종이에겐 자국이 남듯, 수하는 여전히 헤안이 좋았다.

수하는 점점 헤안을 피하기 시작했다. 헤안을 마주한다면 무너질 것만 같았다. 방 안에 있던 짐들을 다시 자습실에 옮겨 놓았다. 책상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 문제집과 책들을 꾸역꾸역 쑤셔 넣었다. 쑤셔 넣어진 책들은 대부분 고3 수학 문제집이었다. 2학년 문제집보다 더 너털너털한, 그래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너털너털해진 제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그 늘어난 부피로 오히려 심장에 더 꽉 끼게 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것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게.

며칠 전부터 어금니 쪽 잇몸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다. 수하는 어쩔 수 없이 미루고 미뤘던 치과에 갔다. 치과 문만 열어도 나는 그 치과 냄새에 심기가 불편했지만, 잇몸이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었다.

“사랑니가 나고 있네요.”

사랑니. 이름도 거창한 사랑니. 빼뿔게 나고 있어 다 나면 뽑아야 한단다. 잇몸을 찢고 나와 아픈 것인데, 다 날 때까지는 계속 아플 거라고도 했다. 수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치과를 나섰다. 사랑을 알 때쯤 나는 이라서 사랑니. 또는 첫사랑만큼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 해서 사랑니. 둘 중 뭐가 됐든 수하는 둘 다 소름 끼치게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다소 빼뿔어진 나의 첫 사랑니. 수하는 괜히 가슴 한편이 옥신거렸다. 처음 사랑니라

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수하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그려졌다. 머릿속에 해사하게 웃고 있는 헤안이 그려졌다. 헤안만 생각하면, 사랑니가 나고 있는 잇몸보다 심장이 더 아프게 옥신거렸다.

엄마는 사랑니가 났으니 어른이 됐다고 했다. 사랑니의 고통을, 첫사랑의 고통을 겪어야만 어른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까? 수하는 어서 빨리 사랑니의 고통도, 첫사랑의 고통도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하는 밥을 먹다 말고 울었다. 사랑니가 너무 아파서인지, 사랑이 너무 아파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헤안은 이제 기숙사에 없었다. 수능이 끝나고 짐을 모두 빼버렸기 때문이었다. 헤안의 흔적, 헤안의 향, 헤안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308호는 고요했고 공허했다. 힘겨웠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부 내주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괴로운 일인지. 헤안도 그에게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수하는 결국엔 돌고 돌아 헤안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헛웃음을 지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 베개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달이 반짝이는 무언가를 비추었다. 수하는 일어나 그 무언가를 집었다. 반지였다. 헤안이 늘 끼고 다니던 반지였다. 커플링인 듯, 반지의 안쪽에는 헤안의 이니셜과 누군가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더는 상처가 생길 곳도 없는데 자꾸 상처를 받았다. 반지는 수하의 상처를 파고들어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냈다. 수하가 아랫입술을 짓이겼다. 쓰레기통을 향해 뺏었던 손을 거두어 주머니에 넣었다.

헤안의 반 앞에 선 수하는 창문을 통해 반 안을 살폈다. 헤안이 보였다.

친구들과 떠들며 웃고 있던 혜안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하는 다급하게 화장실에 가는 척을 했다. 결국 반지는 수하의 주머니 속에 남았다. 전하지 못한 반지는 계속해서 수하의 재킷 주머니 속에 상주하며 수하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그런데도 수하는 반지를 혜안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졸업식이 다가왔다. 수하는 가지 않으려 했으나, 방 송부 일손이 부족하던 말에 돕기로 하였다. 어떤 핑계든 대고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었지만, 수하는 아무 핑계도 대지 않았다. 마땅히 핑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수하는 멀리서 해맑게 웃고 있는 혜안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 웃음은 미워할 수도 없었다. 악의 하나 없는 그 미소는, 수하의 마음을 움켜쥐고 흔들어 놓았지만, 그 미소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수하는 더 마음이 아팠다. 무의식중에 혜안이 있는 쪽을 쳐다보다가 사진을 찍는 혜안과 그만 눈이 마주쳐 버리자 수하는 황급히 눈을 돌렸다. 괜히 의자 옮기는 척을 했다.

“수하야, 안녕. 오랜만이야.”

혜안의 목소리에 수하의 모든 세포가 하던 일을 멈추었다. 수하는 들고 있던 의자를 내려놓고 혜안을 쳐다봤다.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언니.”

혜안은 수하에게 여전히 수하가 첫눈에 반한 그 싱그럽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 수하야. 신발 끈 풀렸다.”

“아,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

혜안은 조용히 쭈그려 앉아 수하의 신발 끈을 묶었고 수하는 얼음이 된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근데 수하야, 그거 알아?”

“...뭐를요?”

“신발 끈 풀리면 누가 너 생각하는 거래.”

수하는 혜안의 실없는 소리에도 웃을 수 없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언니가 제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면, 이제라도 언니가 제 생각해 주면 안 될까요? 혜안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혜안이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수하는 모르는 척 묻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꺼낼 자신조차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도 못할 말들을 침과 함께 삼키려고 노력했다. 역류할 것 같았다. 잘 삼켜지지 않았다. 겨우겨우 삼켜내느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꾸 이러면 어른이 못 돼, 수하야. 이렇게 울기만 한다면 어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수하는 눈물을 애써 참아냈다.

“됐다.”

“... ..”

“난 이만 갈게. 안녕.”

수하는 혜안에게 신발 끈 묶어줘서 고맙다는 말도, 졸업을 축하한다는

말도, 많이 좋아했다는 고백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전히 수하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반지를 전해줄 수도 없었다. 그저 다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이 짝 묶인 신발 끈을 쳐다만 볼 뿐이었다. 신발 끈이 야속했다. 신발 끈을 짝 묶어버린 혜안을 차마 미워할 수 없어서 신발 끈을 미워했다. 수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신발 끈을 쳐다보았다. 그날 방에 들어가자마자 신발 끈을 전부 풀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묶었다. 자신이 서툴게 묶은 신발 끈이 풀릴 때마다 수하는 혜안 생각을 했다. 사실은, 신발 끈이 풀리면 누가 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짝사랑하던 사람이 자기만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게 억울하고 분해서 이런 말을 지어낸 게 아닐까? 이따위의 생각들을 하며 신발 끈을 묶었다. 신발 끈을 동여맬 때마다 발등도, 사랑니가 나고 있는 자리도, 사랑을 하고 있는 심장도 한 번씩 육신거렸다.

수하는 미루고 미루었던 치과에 갔다. 의사는 사랑니가 전부 나왔다고 했다. 예상대로 빠뜨리게 나서 뽑아야 한다고도 했다. 언제 뽑으러 오겠냐는 의사의 말에 수하는 오늘 뽑겠다고 했다.

사랑니가 뽑힌 자리는 어색하고 공허했다. 수하는 생각했다. 사랑니처럼 첫사랑도 쓱 뽑아버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며칠만 앓고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끝까지 수하는 혜안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바뀌는 것은 없었다. 사랑니보다 더 아픈, 지독한 첫사랑이었다.

P A R T

3

공유

지 금 , 우 리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집에서 영상물이 굉장히 많이 시청하는데 요즘 폭 빠진 것이 다큐멘터리이다. 내가 시청했던 다큐멘터리 중 흥미로웠던 편을 두 가지 골라보았다. 글에는 약간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시청할 계획이 있다면 다큐를 먼저 시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1. BBC-당신은선한가악한가

처음 이 다큐멘터리는 제목에 이끌려 보게 되었다. 이 영상에서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뇌 과학자들은 사람의 뇌를 보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들은 분노를 조절하는 대뇌의 손상이나 일명 전사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발현에 의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생물학적

특징을 가진 모든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기질의 발현에 환경적인 영향도 크다. 흥미로웠던 점은 위와 같은 연구를 하던 뇌과학자가 본인의 뇌사진이 포함된 뇌사진들을 보고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분리를 하는데 본인의 뇌사진을 사이코패스라고 분류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고 어쩌면 나도...?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다큐멘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시청 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디까지가 유전이며 어디까지가 우리의 자유 의지로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법정에서 있는 사이코패스 살인범 한 명을 생각해 보자. 우선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특징을 드러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가진 것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물론 이 사람은 도덕적인 잣대에서 악함을 부정할 수 없고 사회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도 유전적으로 선택권이 없었으며 불우한 가정환경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운이 좋게 그런 유전적, 환경적 조건을 비껴간 사람들은 선한 것이고 운이 안 좋게 비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것일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런 사고방식으로 약간이라도 면죄부를 줘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문장은 “인간의 선함과 악함은 일부는 유전자로 결정되고 일부는 환경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죠. 진정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을까요?”이다. 지금

까지 사람들의 성격이나 선함과 악함은 당연히 본인에 의해 형성되고 본인 의지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했었고 내 자아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100% 나의 자유 의지로 조절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나를 얼마나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던 다큐멘터리였다.

2. CNN Films-어느 일란성 쌍둥이의 재회

이 다큐멘터리는 매우 소름 끼쳤던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각기 다른 곳으로 입양되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자라왔다.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된 셋은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을 받으며 스타가 되었고 형제를 찾았다는 기쁨에 화려한 삶을 즐기게 된다. 사람들은 이들이 다른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공통점이 매우 많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그들은 같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으며 생각도 비슷했다는 인터뷰를 수차례 반복했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신기해하며 쌍둥이의 진귀한 사연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쌍둥이를 태어나자마자 떼어놓은 점, 각 가정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심리학 연구대상이었음이 밝혀진다. 이들의 유전적 요소

가 동일함을 이용해 유전과 환경 중 무엇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실험하고자 했다. 자라나는 환경이나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싶어했고 이를 관찰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다. 쌍둥이는 각각 노동자층, 중산층, 부유층의 다른 계층의 부모에게 입양되었으며 모두 입양된 누나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동갑이었다. 쌍둥이는 이들이 입양된 가정은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에 의해 목적에 따라 선택된 것이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찰되어 왔다. 이 모든 것이 설계된 것임이 밝혀진 후에도 그들은 연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우선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되었다는 것이 매우 소름 끼친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평범하게 자라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를 구성하고 나의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설계된 실험의 일부였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쌍둥이 이외에도 여러 쌍둥이들이 실험 대상이었는데 밝혀지지 않은 쌍둥이들은 이 세상에 본인의 자매, 형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영화같은 일인가. 유전이 중요한가 양육이 중요한가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이를 증명하고 연구하기 위한 실험의 일환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관찰되고 희생되고 결정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무섭도록 비슷하다는 점에 열광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서로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보유했고 이에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인생은 달랐다. 이 실험의 결과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세쌍둥이에게 열광한 이유와는 달리 이들은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았다. 사람들은 세쌍둥이에게 비슷할 것을 기대하고 비슷한 점만을 강조하여 바라봤기에 이들의 차이점은 부각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아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이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이 보여졌다. 그렇다면 양육의 힘이 더 큰 것일까? 명확한 결론이 내려져 있는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의 비윤리성, 유전과 양육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다큐였다. 세 쌍둥이의 복잡한 사정과 심정이 궁금하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보기를 추천한다.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화려한 영상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흥미진진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제작자의 치열한 고민을 좋아한다. 하나의 사건 혹은 본질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집요하게 취재하여 그 의미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제작자들의 노력이 매우 매력적이다. 위의 두 다큐멘터리는 유전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영상들이다. 비교적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부담 없이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014년 이후로 주춤했던 뮤지컬 시장이 2018년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19년에는 국내 뮤지컬 시장이 대략 3,600억 규모로 추정될 정도이다. 각각 2조 4,000억과 7,900억, 7,000억의 규모를 가진 미국과 영국, 일본에 비하면 아직 미약하지만, 한국은 이들과 나란히 세계 4대 뮤지컬 시장으로 꼽힌다. 한국의 뮤지컬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세를 띠고 있어 미래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한국의 뮤지컬 시장 규모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만큼,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뮤지컬이 어려운 당신에게, 뮤지컬이라는 환상의 세계를 소개한다.

뮤지컬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고급 취미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뿐 뮤지컬에 빠져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저 당신 스스로든, 남의 손에 이끌리듯 뮤지컬 한 편을 예매해서 보러 가면 끝이다. 뮤지컬을 보고 나온 당신은 아마 뮤덕(뮤지컬 덕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뮤지컬이 어려운 당신에게, 뮤지컬 용어를 알려드립니다.

뮤지컬은 보통 라이선스 뮤지컬과 창작 뮤지컬로 나뉜다. 라이선스 뮤지컬은 외국 작품의 공연권을 허가받아 한국어로 번역하여 무대를 올리는 뮤지컬이다. 창작 뮤지컬은 국내에서 제작된 뮤지컬을 통틀어 이른다. 넘버는 뮤지컬에 등장하는 모든 노래를 부르는 말이다. 뮤지컬 대본에 노래마다 번호가 순서대로 매겨져 있어 제목 대신 번호를 부르기 때문이다. 커튼콜은 공연이 끝난 후에 관객들이 무대 뒤로 퇴장하였던 출연진들을 무대로 나오도록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출연자들은 커튼콜을 받으면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하거나 앙코르 공연을 하기도 한다. 보통 뮤지컬은 녹화 혹은 녹음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일부 공연의 경우 커튼콜 촬영은 허용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용어 이외에도 관람객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가 있다. 자첫은 자체 처음 또는 자체 첫번째의 줄임말로, 관객이 특정 극이나 배우를 처음 봤을 때를 뜻한다. 응용으로 자둘, 자셋, 자막(마지막으로 본 공연) 등이 있다. 예문으로는, “나 오늘 시카고 자첫했어.”가 있다. 회전문은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보는 것을 말한다. 취켓팅은 취소된 티켓을 노리는 티켓팅을 이야기한다. 관크는 관객 크리티컬의 줄임말로, 공연장에서 다른 관객이 공연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용어정리표

라이선스 뮤지컬	외국 작품의 공연권을 허가받아 한국어로 번역하여 무대를 올리는 뮤지컬
창작 뮤지컬	국내에서 제작되는 뮤지컬
넘버	뮤지컬에 등장하는 모든 노래를 부르는 말
커튼콜	공연이 끝난 후에 관객들이 무대 뒤로 퇴장하였던 출연진들을 무대로 나오도록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는 것
자첫	관객이 특정 극이나 배우를 처음 봤을 때를 이르는 은어(응용: 자둘, 자셋, 자막 등)
회전문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보는 것
취켓팅	취소된 티켓을 노리는 티켓팅
관크	공연장에서 다른 관객이 공연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뮤지컬이 어려운 당신에게, 입문작을 추천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바로 <위키드>이다. <위키드>는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을 올린 뮤지컬로, 한국에서는 2013년에 초연되었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작품 속 오즈의 마녀인 초록 마녀 엘파바와 금발의 하얀 마녀 글린다의 우정과 그들만의 사연을 그려낸 작

품이다. <위키드>의 넘버 중 하나인 ‘파플러’는 허풍쟁이 글린다의 상큼하고 톡톡 터지는 매력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디 파잉 그래비티’는 한계에 부딪힌 엘파바가 그것을 극복하는 스토리를 담은 넘버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엘파바의 성량이 돋보인다. <위키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좋아할만한 스토리와 중독성 있고 통통 튀는 매력의 넘버로 이루어져 있어 입문작으로는 제격인 작품이다.

두 번째로 추천할 작품은 <렌트>이다. <렌트>는 작품을 직접 극본, 작곡, 작사한 조나단 라슨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에이즈, 동성애, 마약중독 등 파격적인 소재로 1996년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렌트>는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모여 사는 가난한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 사랑과 우정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그린 작품이다. 유명한 합창곡인 ‘Seasons of Love’가 바로 <렌트>의 넘버이다. 모든 배우가 등장하여 함께 부르는 넘버로, <렌트>의 공연을 본 후에는 그 가사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렌트> 속 등장인물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 절망하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렌트>는 그런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공연을 보는 젊은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입문작으로 추천한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시카고>이다. 역시나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초연된 <시카고>는 앞서 소개한 뮤지컬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관능적이다. <시카고>는 192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 스타가 되는 당대 사회의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이다. <시카고>는 당대

유행했던 음악 장르인 재즈풍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 매혹적이다. 특히 <시카고>의 시작을 여는 넘버인 ‘All That Jazz’는 매혹적인 재즈 멜로디와 관능적인 벨마의 몸짓, 화려한 앙상블의 춤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때문에 ‘All That Jazz’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시카고>에 폭 빠져들 준비를 마치게 된다. <시카고>는 재치 있는 넘버로 가득해서 모든 넘버 하나하나가 매력적인데, 그중에서도 ‘Roxie’는 <시카고> 무대를 본 적은 없어도 넘버는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곡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스타가 될 생각에 들떠 있는 록시를 풍자하는 넘버이다. 또라이(?) 같은 록시의 매력이 돋보인다. ‘We Both Reached for the Gun’은 살인자를 무죄로 만드는 스타 변호사 플린의 꼭두각시가 된 록시의 모습을 풍자하는 넘버이다. 꼭두각시 연기를 하는 록시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자꾸만 귀에 맴도는 중독성 있는 가사가 특징이다. <시카고>를 입문작으로 본다면 화려하고 웅장한 뮤지컬의 매력에 폭 빠져서 다른 뮤지컬 티켓을 예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세 작품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다. 그만큼 화려한 무대와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지만 아직 뮤지컬에 큰돈을 쓰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4~6만 원대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중,소극장 뮤지컬을 추천한다. 한국의 뮤지컬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중,소극장 뮤지컬의 퀄리티 또한 대극장 뮤지컬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중,소극장 뮤지컬 중에서도 <어쩌면 해피엔딩>을 입문작으로 추천한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창작 뮤지컬로, 21세기 후반의 서울을 그리고 있다. 그곳에 존재하는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점점 인간의 감정을 배워가고 사랑을 깨달아 과정의 이야기이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넘버 ‘우린 왜 사랑했을까’는 〈어쩌면 해피엔딩〉을 여는 오프닝 넘버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스토리의 결말을 내포한 애절한 가사와 해맑게 하루를 시작하는 로봇 올리버가 대조되어 모순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귀여운 올리버의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느껴진다. 또 다른 넘버 ‘사랑이란’은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사랑스러운 가사가 특징이다. 올리버와 클레어의 사랑스러운 로봇 연기와 감정을 배워가는 과정을 담은 따뜻한 스토리는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티켓 가격까지 첫 뮤지컬로는 적절하기 때문에 입문작으로 딱 맞다.

지금까지 뮤지컬 용어와 입문작으로 좋은 작품을 알아보았다. 이 글을 읽고 당신이 뮤지컬과 더 친해지고, 빠지면 빠질수록 매력적인 뮤지컬의 세계에서 발을 디뎠으면 좋겠다.



백 마디의 말보다 한 소절의 가사가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 노래를 듣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자기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나 역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내고 위안을 얻곤 한다. 특히 멜로디와 어우러지는 가사에 귀 기울이며, 노래가 전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다보면 어느새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내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노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당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노래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건네는 곡과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는 곡. 코로나19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다. 마음의 그늘이 생기기 쉬워진 요즘, 내게 위로가 되었던 몇 곡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다섯의 'Youth'

“큰 꿈 부풀어 안고 마냥 앞만 보며 달려왔던 나는 어떡가요.
뒤도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며 마주하는 나를 놓쳤네요.”

이 곡은 당시 이용 중이던 스트리밍 앱에서 추천해줘서 우연히 듣게 되었다. 처음 보는 가수의 처음 듣는 노래라서 ‘일단 조금만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재생을 했는데 강렬한 도입부에 이끌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난다.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간 이후,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느끼는 공허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이다.

손디아의 '어른'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OST로 유명한 곡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는 드라마여서 OST도 큰 사랑을 받았다. 노래 가사를 눈여겨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걸까?’하는 생각이 들며 씁쓸하지만 공감이 되기도 한다. 아프고 무더지길 반복하는 중에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희망,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이 웃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생각해보게 되는 노래이다.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난 괴로워. 네가 나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오 그렇게 날 싫어해 날
너에게 편지를 써 내 모든 걸 말하겠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랑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필요할 때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그렇게 아예 그 감정 속에 폭 들어갔다 나오면 한결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한다. 바닥을 친 후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브로콜리너마저의 '울지마'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아니라고 하면 왜 거짓말 같지?”

종종 독서실을 함께 다니며 공부하던 친구가 힘들 때 들으라며 추천해줬던 노래 중 하나이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노래를 찾아서 들

어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던 순간이 떠오르기도 한다. 제목은 ‘울지마’인데 듣다보면 결국 울게 되는 노래랄까.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마음고생하며 힘들어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해줬던 노래다. 이 노래를 반복 재생해놓고 혼자 밤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었다.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위해 잠시 함께 도망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노래이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 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던 곡이다. 예쁜 노랫말을 천천히 읽다보면 마치 스스로에게, 혹은 소중한 누군가에게 쓴 편지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쉴 새 없이 달리는 것에 익숙한 우리는 “지금 그대로 충분히 괜찮다”는 말에 참 인색한 것 같다. 우리가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 말을, 이 노래는 따뜻하게 건넨다. 노래를 듣다보면 잠시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를 돌볼 시간을 가질 때, 미소를 지으며 한가로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정승환의 ‘눈사람’

“꽃잎이 번지면 그림에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그대 만드시 행복해지세요.”

위로가 되는 노래로 유명한 곡. 이 노래하면 떠오르는 때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선 출근길이다. 공기는 차갑지만 햇빛이 화사했던 날, 이 노래를 들으며 출근하면서 만드시 다시 올 따뜻한 봄을 떠올렸던 생각이 든다.

노래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긴다. 노래가 멜로디, 가사를 통해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노래를 듣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담길 수 있다. 노래를 듣던 그 순간, 노래에 얹힌 그 사람, 노래를 듣던 그 때의 나 등. 그렇기에 같은 노래도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위

에 언급한 곡들 이외에도 내게 위로가 되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담긴 소중한 위로의 노래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번쯤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내가 추천한 노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매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마셨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2잔 이상은 무조건 마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는 한 잔만으로도 새벽까지 깨어있곤 했다. 하지만 매일 마시다 보니 몸에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 한 잔만 마시면 잠이 깨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카페인에 중독된 사람처럼 마시는 양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날이 많다 보니 커피 자체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여러 카페의 아메리카노를 마셔보면서 여기는 무슨 맛이냐고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커피를 마셔보며 나도 한 번 커피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글을 쓰며 커피의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한다.

인류가 언제 커피를 처음 접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커피의 기원으로 에티오피아의 산악지대인 카파(kaffa)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발견설에 있

어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설로는 칼디의 전설이 있다. 6-7세기경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가 어느 날 염소들이 붉은 커피 열매를 따 먹고 흥분하여 날뛰는 것을 보고 발견하였다는 설이다. 다른 설로는 오마르의 발견설과 무함마드와 가브리엘의 전설도 있다.

커피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가 6세기 예멘을 침공함으로 인해 동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 가였고, 예멘에서 처음 경작되기 시작하였다. 커피나무는 품종에 따라 100m 이상도 자라지만 재배 및 수확에 용이하도록 나무의 키를 2-2.5m 정도로 유지하여 기른다. 주로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5도, 남위 25도 선에서 자라며 띠처럼 형성되기에 이를 커피 벨트 혹은 커피 존이라고 부른다. 해발 500m 이하의 지역에서는 저급 품종인 로부스타종이 주로 생산되고, 그 이상의 지역에서 고급 품종인 아라비카종이 주로 생산된다. 특히,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는 최상급 아라비카 커피가 생산된다. 커피나무에서 생선된 꽃은 흰색이며 재스민 향이 난다. 개화 기간은 3일 정도로 비교적 짧으며, 꽃이 지고 난 자리의 씨반 부분이 발달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는 체리와 비슷하다여 커피 체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익으면서 노란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한다.

커피의 종으로는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카네포라종), 리베리카종으로 3가지가 있다. 오늘날에는 상품성이 낮은 리베리카종은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으며,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아라비카종은 로부스타종에 비해 향미가 우수하고, 산미와 단맛 그리고

아로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로부스타종은 아로마가 상대적으로 약하나 쓴맛과 바디감(묵직함, 무게감)이 좋으며, 카페인 함량도 더 많은 편이다, 로부스타종은 재배가 더 용이하며, 주로 인스턴트 커피의 재료로 사용된다.

구분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
원산지	에티오피아	콩고
적정 고도	800-1200m	700m 이하
카페인 함량	약 1.4%	2-4%
주요생산국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원두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다. 햇볕(열, 온도), 산소, 그리고 습도가 중요한 3가지 요소이다. 이 3가지 요소는 원두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면서 원두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요소이다. 즉, 햇볕을 고려하여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진 곳의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하고, 산소를 고려하여 아로마 밸브가 부착된 원두 봉투가 좋지 만 그렇지 않다면 밀봉하여 보관해야 하며, 습도를 고려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원두의 수명을 장시간 보관할 수 있다.

글을 쓰기 위해 커피에 대해 조사하며, 매번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커피에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피를 마실 때

는 ‘쓰다.’, ‘산미가 조금 강하다.’ 정도의 말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커피의 밸런스가 잘 맞추어져 있는가에도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특히나, 커피를 보관하는 방법을 몰라 입구만 닫은 채로 아무렇게나 보관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한 보관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처럼 커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관심이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글이었으면 싶다.

지금,우리

3월 활동 시작 당시

11월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덧 겨울 냄새가 느껴지네요.

아무쪼록

65호 “지금, 우리” 교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녹원 역사상 최초로(?) 15명의 부원들이 공들여 만든 교지입니다.

화상회의로 아이디어를 받고

구글 드라이브로 작성한 글과 피드백을 공유하며 완성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해 같이 작성하고 교정했다면

더 많고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노트북 너머로 벋들과 웃으면서 글 짓던 시간

편집장님! 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책임감을 느꼈던 시간

모두 그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만나지는 못했지만, 65호 교지를 넘길 때마다 끈끈히 연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2021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추억 감사합니다 :)

지금,우리

편집장

권나현

부편집장

이주은

편집위원

권민경, 김별, 류지민,
배숙경, 손채린, 송한나, 신서현, 이가인,
이소정, 이수진, 이유민, 이주은, 전예원, 홍지연

